

생명인당,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목차

제 I 장. 서 론	3
제1절. 조사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3
제2절. 조사 방법	5
제3절. 조사의 설계	6
제4절. 실태조사의 실시와 분석 방법	12
제 II 장. 국내의 청년 정책 동향	15
제1절. 국내 청년 정책	17
제2절. 해외 청년 정책	32
제 III 장.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분석	39
제1절. 응답자 특성	41
제2절. 성장과 거주	45
제3절.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관	49
제4절. 진라남도의 청년정책	89
제5절. 향후 전남 거주방향	93
제6절. 실태조사 시사점	96
제 IV 장.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01
제1절. 집단심층면접조사 진행 개요	103
제2절.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05
제3절. 집단심층면접조사 시사점	122

제 V 장. 정책제언	127
제 VI 장. 실태조사 분석결과표	145
제1절. 시군별 분석	147
제2절. 권역별 분석	164
제3절. 성별 분석	187
제4절. 연령별 분석	204



I

서 론

제I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조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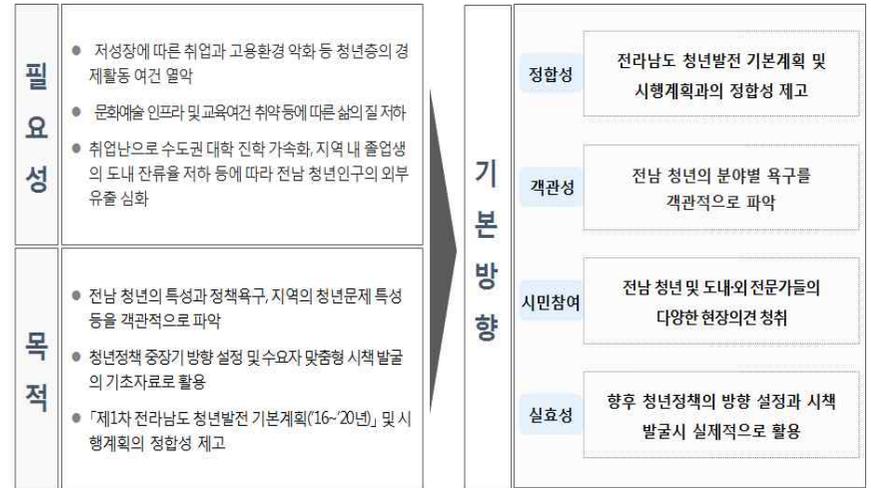
- 장기간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청년의 고용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금융, 결혼, 출산 등 청년의 삶 전반의 문제로 확대
-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집과 경력을 포기하는 '오포세대', 여기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는 '칠포세대'를 넘어 N가지를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 이같은 청년의 삶과 의식의 변화는 학자금 대출 상황, 과도한 집값과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 압박으로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어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최저기록을 갱신
- 아울러 진학, 일자리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교육여건 취약 등의 이유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상황
- 따라서 전남 청년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현재 삶과 욕구에 대한 종합적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함

2.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전남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파악하여 향후 전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전남 청년 중장기 방향 설정 및 수요자 맞춤형 시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남 청년의 특성과 정책욕구, 지역 청년 문제의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
 - 「제1차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계획(’16~’20년)」 및 시행계획의 정합성 제고

3. 조사의 기본방향

- 정합성 : 「제1차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계획(’16~’20년)」 및 시행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 객관성 : 전남 청년의 분야별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
- 시민참여 : 전남 청년 및 도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 실효성 : 향후 전남 청년정책의 방향 설정과 시책 발굴에 실제적으로 활용



<그림 I-1> 조사의 목적과 기본방향

제2절 조사 방법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통해 전남 청년의 기본 현황 분석
- 기존의 청년 관련 정책 보고서 및 국내외 청년 정책 검토
- 전남의 청년 대상 주요 추진정책 분석

■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남 거주 만 18~39세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유치조사
- 모집단의 규모 : 466,684명(남 248,645명, 여 218,039명)
- 모집단의 분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
- 유효표본 : 1,000명
- 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
- 조사기간 : 2018.2.9.~2018.2.21.(13일간)

■ 집단심층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 기존 문헌연구나 실태조사 등 정형화된 양적 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전남의 청년 문제와 정책수요를 진단 및 파악하기 위해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함
- 그룹별(대학생 및 취업준비 청년, 귀농귀촌청년, 유턴청년, 주부, 창업, 직장인 등) 3~6명 이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자의 진행하에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향후 전남의 청년 관련 정책 방향성 제시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제3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내용

-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성장과 거주,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관,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향후 전남 거주의향 등 4개 대분류와 각 항목의 특성요소가 반영된 세부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함

<표 I-1>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조사내용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I. 성장과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기간, 거주계기 • 전남을 떠났던 연령, 전남 재거주 시작 연령
II.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관	1. 생활 전반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만족도와 우선순위 •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과 충분석
	2.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활동 상태 •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 일자리 수준 평가의 중요도 • 일자리 상황의 만족도 •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정도 • 일자리 선택시 중요한 요소 •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 중소기업 취업의향,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유무, 자녀의 취학상태 •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 • 전남 교육환경 만족도 •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 보육,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4.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활동 빈도 •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 •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 •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여가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 •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수단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5.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소유에 대한 의식 • 주거지 결정항목의 정도 • 현 거주지의 만족도 •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 월평균 부담 주거비용 •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 • 주 이용 의료시설 • 의료시설 이용 항목의 중요도 •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 •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
	6.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수입원 • 소득 만족도 및 희망소득 • 지출순위 • 부채여부, 주된 부채항목, 주된 부채 사유,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 •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
III.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 전남 청년정책 추진사업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 청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시 중요 항목 • 전남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IV. 향후 전남 거주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 전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이주계획 시기

2. 표본설계

■ 모집단 현황

-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는 총 1,000표본을 목표로 조사를 설계함
- 조사모집단은 전남 청년 466,684명(남 248,645명, 여 218,039명)으로, 2017년 12월말 기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자료를 활용함
 - 5개 시지역에 전체 전남 청년의 64.1%인 299,125명이 거주하고 있음
 - 17개 군 지역에 167,559명(35.9%)이 거주하고 있음

<표 I -2>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모집단 현황 : 22개 시군별 청년 인구수 (단위: 명, %)

구분	전남 총인구수	전남청년 인구수	전남청년 인구수(남)	전남청년 인구수(여)	청년 인구비율	
시	목포시	234,379	66,600	34,893	31,707	14.27%
	여수시	286,382	77,254	41,617	35,637	16.55%
	순천시	279,331	79,407	41,457	37,950	17.02%
	나주시	110,110	29,006	15,128	13,878	6.22%
	광양시	155,857	46,858	25,359	21,499	10.04%
군	담양군	47,285	10,050	5,361	4,689	2.15%
	곡성군	30,131	5,690	3,045	2,645	1.22%
	구례군	27,525	5,129	2,746	2,383	1.10%
	고흥군	66,736	10,510	5,671	4,839	2.25%
	보성군	43,755	7,633	4,134	3,499	1.64%
	화순군	64,680	14,509	7,509	7,000	3.11%
	장흥군	40,136	7,757	4,203	3,554	1.66%
	강진군	36,868	7,052	3,736	3,316	1.51%
	해남군	73,604	14,221	7,344	6,877	3.05%
	영암군	55,616	12,368	6,866	5,502	2.65%
	무안군	82,872	20,722	10,787	9,935	4.44%
	함평군	34,328	6,301	3,456	2,845	1.35%
	영광군	54,774	11,939	6,507	5,432	2.56%
	장성군	46,111	9,838	5,275	4,563	2.11%
	완도군	52,109	10,201	5,646	4,555	2.19%
	진도군	31,765	5,890	3,272	2,618	1.26%
	신안군	42,070	7,749	4,633	3,116	1.66%
합 계	1,896,424	466,684	248,645	218,039	100.0%	

자료 : 행정자치부(2017.12), ‘주민등록인구통계’

■ 표본추출계획 및 배분 부수

- 표본의 할당은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지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모집단 구성원들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기준은 거주지, 인구통계적 특성(나이, 성별)을 이용함
- <표 I-3>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은 1,000개의 설문부수를 기준으로 각 시·군 부수를 청년인구비율(A)에 따라 구하고, 이를 성별 비율에 따라 남·여 각각 할당한 결과임
 - 전라남도 시·군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설문부수를 결정했을 때 시·군의 인구비율에 따라 시 청년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표 I-3>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할당표본추출을 통한 표본추출(제1안)

(단위: 명, %)

구분	청년인구비율(A)	부수	남(부수)	여(부수)	
시	목포시	14.27%	143	75	68
	여수시	16.55%	166	89	76
	순천시	17.02%	170	89	81
	나주시	6.22%	62	32	30
	광양시	10.04%	100	54	46
군	담양군	2.15%	22	11	10
	곡성군	1.22%	12	7	6
	구례군	1.10%	11	6	5
	고흥군	2.25%	23	12	10
	보성군	1.64%	16	9	7
	화순군	3.11%	31	16	15
	장흥군	1.66%	17	9	8
	강진군	1.51%	15	8	7
	해남군	3.05%	30	16	15
	영암군	2.65%	27	15	12
	무안군	4.44%	44	23	21
	함평군	1.35%	14	7	6
	영광군	2.56%	26	14	12
	장성군	2.11%	21	11	10
	완도군	2.19%	22	12	10
진도군	1.26%	13	7	6	
신안군	1.66%	17	10	7	
합 계	100.0%	1,000	533	467	

자료 : 행정자치부(2017.12), '주민등록인구통계'

- <표 I-4>는 군지역 청년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두고 표본을 추출한 결과임
 - 비율(B)는 전라남도 시·군 청년인구의 합(299,125명) 대비 전라남도 각 시·군 청년인구 비율
 - 비율(C)는 전라남도 군단위 청년인구의 합(167,559명) 대비 전라남도 각 군 청년인구 비율

<표 I-4> 군지역 청년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표본추출(2안, 3안)

(단위: 명, %)

구분	시지역 청년인구 (299,125명)	군지역 청년인구 (167,559명)	2안 (5:5)	3안 (4:6)
	비율(B)	비율(C)	부수	부수
시	목포시	22.26%	111	89
	여수시	25.83%	129	103
	순천시	26.55%	133	106
	나주시	9.70%	48	39
	광양시	15.67%	78	63
군	담양군	6.00%	30	36
	곡성군	3.40%	17	20
	구례군	3.06%	15	18
	고흥군	6.27%	31	38
	보성군	4.56%	23	27
	화순군	8.66%	43	52
	장흥군	4.63%	23	28
	강진군	4.21%	21	25
	해남군	8.49%	42	51
	영암군	7.38%	37	44
	무안군	12.37%	62	74
	함평군	3.76%	19	23
	영광군	7.13%	36	43
	장성군	5.87%	29	35
	완도군	6.09%	30	37
진도군	3.52%	18	21	
신안군	4.62%	23	2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행정자치부(2017.12), '주민등록인구통계'

- 전라남도 청년을 시단위청년과 군단위청년 2개의 모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에 따라 할당표본추출함
 - (제2안)은 시단위와 군단위 가중치를 5:5로 두어 1,000부 중 각각 500부씩 할당 후 거주지 인구비례로 할당
 - (제3안)은 시단위와 군단위 가중치를 4:6으로 두어 군단위 청년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자 1000부 중 각각 400부, 600부로 할당한 후 거주지 인구비례로 할당
- 그러나 2안과 3안 역시 곡성, 구례, 함평 등의 지역은 통계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청년인구 대비 각 시·군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의 설문부수의 최하 기준을 30부¹⁾로 정하여 <표 I -5>와 같이 제4안을 제안함

<표 I -5>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위한 최종 표본배분 결과(제4안)

(단위: 명, %)

구분	총부수	남(부수)	여(부수)	
시 (420부)	목포시	90	47	43
	여수시	105	57	48
	순천시	105	55	50
	나주시	55	29	26
	광양시	65	35	30
군 (580부)	담양군	35	19	16
	곡성군	30	16	14
	구례군	30	16	14
	고흥군	35	19	16
	보성군	30	16	14
	화순군	40	21	19
	장흥군	30	16	14
	강진군	30	16	14
	해남군	40	21	19
	영암군	35	19	16
	무안군	50	26	24
	함평군	30	16	14
	영광군	35	19	16
	장성군	35	19	16
	완도군	35	19	16
진도군	30	17	13	
신안군	30	18	12	
합 계	1,000	536	464	

자료 : 행정자치부(2017.12), '주민등록인구통계'

1) 통계적으로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함

제4절 실태조사 실시와 분석방법

1. 실태조사 실시

■ 사전조사(Pre-Test)

- 조사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개시 전 설계된 조사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고자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함
 - 사전조사 기간 : 2018.2.1.~2018.2.3.(3일간)
 - 사전조사 결과 : 문항 및 보기의 타당성, 응답이 어려운 문항, 설문 로직 오류 등 설문의 전반적 내용 점검, 평균 소요시간, 조사 진행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에 반영함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 품질을 높이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숙련된 조사원 27명을 선발,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조사원 선발 기간 : 2018.2.4.~2018.2.7.(4일간)
 - 조사원 대상 교육 : 2018.2.9.(2회)
 - 조사원 교육 내용 : 조사 목적 및 배경, 조사절차 및 진행요령, 조사 문항별 응답 지침 등 조사전반에 관한 이해

2. 분석방법

■ 자료처리 및 분석

- 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입력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 분석을 수행함
 - 교차분석 변수 : 성별, 연령(18~19, 20~24, 25~29, 30~34, 35~39), 거주지역(시, 군), 직업, 혼인여부
- 실태조사시 개방형 문항은 응답내용을 그룹화 한 후 특정 단어의 빈도에 따라 분류함

- 집단심층면접(FGI)으로 수집된 자료는 면접 과정에서 녹취된 자료를 대본화 (script)하고, 주제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함

■ 지수산출방식

-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구간에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리커트 척도의 100점 환산 방식
 - 환산점수 = ((평가점수-1) / (척도 최대값-1)) * 100
 - ※ 평가 점수는 응답자가 평가한 점수이며, 척도 최대값은 리커트척도의 최대값인 7점임
- 지수산출방식은 실태조사 항목 중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각 항목별 삶의 질 평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 수준 평가, 근로 수준 만족도, 거주지 결정시 교육환경의 중요성, 현 전남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화/여가 활동 요소의 중요도, 문화/여가활동 선호도 및 만족도, 집에 대한 인식, 주거지 결정 항목의 중요도,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 의료시설 이용시 항목별 중요도, 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월소득의 만족도, 전남 청년정책 인지도, 참여도, 중요도, 청년지원 프로그램별 중요도 등을 지수화 함



국내외 청년 정책 동향

제II 장. 국내외 청년 정책 동향

제1절 국내 청년 정책

1. 중앙정부

■ 청년지원 관련 법률

-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단일법령은 없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교육기본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년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표 II-1> 청년지원 관련 법률

구분	법률	내용
고용분야	고용정책기본법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와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을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함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인력양성, 중소기업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시함 - 특히, 청년실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12조)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구분	법률	내용
교육분야	교육기본법	-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곧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를 규정
주거분야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 시행령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시

■ 전국 단위 청년 관련 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2017)
 - 통계작성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작성 목적 :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 통계작성 대상 :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이하 청년
 - 통계작성의 주기 : 매년
 -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 청년 고용동향
 - 통계작성기관 : 통계청 고용통계과
 - 통계작성 목적 :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

- 통계작성 대상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중 만 15~29세 이하 청년층
- 통계작성의 주기 : 매월
-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 정부는 2018년 3월 15일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함
 -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주요 골자로 함
 - 이번 대책에는 취업, 창업 대책 뿐 아니라 주거복지와 교통비 지원 등 복지정책도 일부 포함됨

<표 II-2>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분야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1-1.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 중소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연봉의 1/3수준(9020만원) 지원 -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1-2. 주거·교통비 경감	-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청년동행카드 발급)
	1-3. 목돈마련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1-4. 대기업·공공기관 취업	-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 연장 - 수시증원, 명퇴활성화 등으로 '18년 공공기관 채용 5천명 이상 확대
2. 창업활성화	2-1.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1천만원 성공불 융자 및 5천만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에는 최대 1억원 오픈마우처 지원 - 혁신모험펀드('18년 2.6조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소진시 추가재원 확보 -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 지급으로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 해소 -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창업 지속 지원 확대

분야	추진과제	주요 내용
	2-2. 창업기업 세금 면제	-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2-3. 민간주도 창업지원, 지방창업 우대	-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 대전(연구단지), 판교(판교밸리), 서울 강북(마포) 등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
	2-4.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	- 대기업과 창업·벤처기업간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R&D,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 활용 추진
3.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3-1. 지역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공간, 자금, 멘토링 등 지원
	3-2. 해외취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 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연봉 3200만원 이상) 취업기회 확대 -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 연 1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 확대 및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3-3. 新 서비스	-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회 확대 - 4차 산업혁명 분야 新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4-1. 軍 장병 취업	-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 -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 지원
	4-2.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국비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학 지원 -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에 훈련비, 군 보직 연계 등 지원
	4-3. 미래 핵심인재 육성	-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중심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창업 연계 -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청년주거지원제도

- 중앙정부는 기존 주거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청년층으로 확대함
-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원제도로써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주택, 그리고 사회주택이 최근 청년층을 포함하거나 주요 대상으로 확대함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임
 -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별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제도임
 - 사회주택은 2016년 9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됨.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한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 기관이 청년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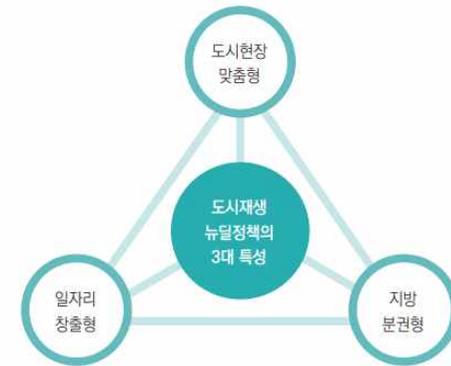
<표 II-3> 정부의 ‘청년주거지원제도’ 주요 내용

분야	제도	주요 내용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대학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직접 찾아 LH에 의뢰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사회주택	- LH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한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제공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금융 지원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26~3.15%로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최대 2천만원(임대보증금의 70%)을 연 2.3~2.7%로 2년(최장 10년)간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총 960만원을 연 1.5~2.5%로 2년(최장 10년)간 대출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정책과는 차별화된 도시현장맞춤형, 지방분권형, 일자리창출형 등 3개 특성을 지님
 - 도시현장맞춤형 사업은 종래의 3개 유형(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이었으나,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을 추가한 5개 유형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분권형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 효과를 지역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 더욱 밀착되고 주민 실생활과 근접해 주민과 소통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신규사업지역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
 - 이중 일자리 창출형은 문재인 정부의 중추적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의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단순한 공간적 차원의 도시활성화 정책을 넘어 경제적 차원과 연결되어 사업으로 인해 파급되는 다종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특징임

<그림 II-1>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3대 특성



자료 : 박양호(2017),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역할’, p.30.

2. 지방정부

■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경남도,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 강원도, 경북도, 인천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됨
- 전남 22개 시군 중에는 장성군, 영암군, 신안군, 강진군, 완도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곡성, 여수, 순천, 영광, 광양, 무안 등 6개 시군에서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됨

<표 II-4>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2018.3월 기준)

구분	청년기본조례 (제정날짜순)	청년기본계획 수립
광역시도	서울시	2015.01.02. 2020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16~2020)
	전남도	2015.07.23. 제1차 청년발전 기본계획(2016~2020)
	경기도	2015.08.13.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광주시	2015.12.28.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2021)
	대구시	2015.12.30. 2020 청년희망 대구(2017~2020)
	충북도	2016.05.24. 2030 충청북도 청년비전(2018~2022)
	경남도	2016.06.09. -
	제주도	2016.06.22.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대전시	2016.10.20. -
	세종시	2016.12.20. -
	충남도	2016.12.22.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2021)
	전북도	2017.04.14.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울산시	2017.04.27. -
	부산시	2017.05.31. 청년 디딤돌 플랜
	강원도	2017.11.03. -
	경북도	2017.12.28. -
	인천시	2018.02.26. -
전남시군	곡성군	2016.01.11. 곡성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
	장흥군	2016.05.17. -
	여수시	2016.06.08. 여수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순천시	2016.09.22. 순천형 청년 희망정책
	화순군	2017.05.10. -
	목포시	2017.06.05. -
	고흥군	2017.06.27. -
	보성군	2017.06.27. -
	해남군	2017.06.28. -
	영광군	2017.06.30.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
	나주시	2017.07.20. -
	함평군	2017.07.26. -
	광양시	2017.07.28. 청년희망 행복광양 기본계획
	무안군	2017.10.16. 무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진도군	2017.12.27. -
	담양군	2018.02.19. -
	구례군	2018.02.28. -

■ 2020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16~'20)

- 서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2015.1.2)하고,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함
-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에 5대 핵심사업과 15개 일반사업으로 구성됨

<표 II-5> 2020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목적	핵심사업	일반사업
설자리 (4개사업)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활동지원	-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저소득 장학생 지원
일자리 (9개사업)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 쉼린지 1000 프로젝트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서울일자리+ 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지원 - 이트비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 -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살자리 (4개사업)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 청년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
놀자리 (3개사업)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 청년활력공간 조성지원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 생태계 확산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자료 : 서울시(2015),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서울시 '청년주거지원'

- 서울시는 청년주거지원을 위해 희망하우징,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한지분세대공감 사업 등을 시행중임
 - 희망하우징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소형 주택의 멸실에 따라 학교 주변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H에서 기존 매입 임대주택의 일부 및 신축한 원룸을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에게 공급하

는 사업임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낡은 비주거시설(고시원, 여관 및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공간이 반영된 셰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지봉세대공간 사업은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청년과 노인이 주거를 공유하게 하는 사업임

<표 II-6> 서울시의 '청년주거지원제도'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내용
희망하우징	-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제공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평균 8만~9만5천원 정도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최초 계약기간은 2년(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낡은 비주거시설(고시원, 여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셰어하우스로 제공 -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1인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 - 주택의 운영·관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담당함
한지봉세대공간	-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택에 대학(원)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월 20만원 내외) 임대료를 내고 거주 - 노인은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 개선(도배, 장판 등) 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고립감도 해소

■ 부산시 '청년 디딤돌 플랜'

-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청년활동 보장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청년 디딤돌 플랜'을 수립함
- 청년 디딤돌 플랜은 일자리, 생활안정, 문화, 주거, 참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함

<표 II-7> 부산시 청년 디딤돌 플랜 주요 내용

구분	핵심사업	사업개요
일자리	- 청년 디딤돌 카드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240만원(월 최대 50만원 사용 가능)의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 청년 희망적금 2400	-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근무하면 2400만원 목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부산시가 연간 600만원 지원
	- 취업준비땅	- 지역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 프로그램 앱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역량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완화
	- 청년 해외취업 지원	- 국내 일자리 한계를 극복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취업시 항공료, 체재비 2.5~3백만원 지원
	- 창업기업 인턴지원	- 초기 창업기업의 인건비 부담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취업 청년층과 기술직 은퇴자들에게 6개월간 150만원 이상 지원
생활안정	- 굿알바	- 근로 사각지대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인식개선
	- 청년부비론	-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 융자(최대 1500만원, 연 1% 고정금리, 5년간 원리금 분할상환)로 신용회복 지원
	- 청년건강지킴이	- 학업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
	- 청년희망날개통장	-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을 1:1 매칭지원
	-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역대학 역량강화 지원 및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경주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행복연합기숙사(17.3월 개관) 일부를 장기임대하여 입소자 기숙사비(월 5만원, 연 60만원)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대출한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문화	- 청년 금융 통장	- 신용, 부채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금융특강
	- 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아트마켓 활성화, 대학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문화 커뮤니티뱅크
	-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 부산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쇼케이스 공연

구분	핵심사업	사업개요
		500만원(3명), 쇼케이스 심의 후 6천만원 지원(1명)
	- 청년문화 인력양성	- 청년문화 인력 양성 및 청년 문화 전문인력 양성 수료자 실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매칭
	- 청년문화 네트워크	- 청년 예술가의 해외진출 지원
	- 청년문화 인프라·공간 지원	- 지역별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공간 육성 및 콘텐츠 지원
	- 부산드림 결혼식	- 결혼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 제공
	- 미혼남녀 만남행사	- 미혼남녀들간 만남 주선
주거	- 머물자리론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과 이자를 지원(3%)
	- 햇살동지	- 빈집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개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으로 3년간 임대
	- 행복주택	- 2022년까지 1만호 공급 목표
	- 드림아파트	-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2만호 공급 목표
	- 셰어하우스	- 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2022년까지 부산형 셰어하우스 1만호 공급 목표
	- 부산청년 우리집	- 공유경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들 제공받아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매칭하고,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을 지원
참여	-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로 시정참여 확대
	- 청년위원회	-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시정참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여 세대별 균형 있는 시정참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청년희망아카데미	- 지역 내 시니어 명사 아카데미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청년 두드림 센터	- 청년들의 취업문제 등 일자리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민관협업을 위한 청년들의 홍보와 소통 공간 조성
	- 청년창조발전소	- 청년 주도의 문화, 예술, 교육학습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위한 청년창조공간 조성 및 제공

자료 :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young/join06>)

■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17~'21)

-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정(2015.12.28.)하고, 청년 인재육성과를 신설했
- 광주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청년복지, 청년문화 등 4개 분야에 18대 핵심과제와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II-8>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일자리	미래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반 구축	- 미래산업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 광주형 일자리 연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 에너지밸리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창업 허브 조성	- 청년친화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운영 - 광주청년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 - 청년창업문화촌 조성·운영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청년창업 금융, 판로, 컨설팅 지원
	도전과 상상력으로 개척하는 청년진로설계	- 공공형 청년혁신 일자리 확대	- 공공형 경과 일자리 발굴 및 교육 -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창의인재 청년직업능력개발 훈련 촉진	- 지역특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여성 특화 돌봄사회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 특성화고·대학연계 NCS 기반 인력양성
		- 청년기반 시정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인재	지구적 전망과 실전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글로벌 인재육성	- 아시아 인재교류 네트워크 사업 - 미래창의인재 해외활동 지원사업
		- 실전형 인재육성	- 신성장산업 실전형인재지원사업 - 문화창의인재 대학원 합동과정
		- 제3섹터형 창업환경 조성 인재 발굴	- 광주활력자원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 광주형 사회서비스 발굴사업
		- 광주인재 진로관리 프로그램	- 인재포트폴리오 프로그램 - 진로관리운영협의체 구성

분야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
복지	금융·주거·의료 등 복지인프라 연계로 탄탄한 청년사회 안전망구축	- 청년부채 감축	- 광주형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 주거문제 해결과 연대강화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도입 - 청년주거커뮤니티활동 지원
		- 광주청년 건강권보장	- 청년 건강검진 참여 병원 지정 및 정기검진 지원 - 청년의 정신건강 강화
		- 장애청년에 대한 사회적 자장강화	- 장애청년의 사회진출 확대 - 장애청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여성청년의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 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 지원
문화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향유권 확대	-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 뮤지컬@캠퍼스필드 - 수요자 중심의 버스킹 - 컬처트럭 지원 - 청년동아리페스티벌
		- 청년문화인재육성	- 청년 문화예술유통 전문가 육성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 청년인디문화지원
		- 청년공간조성 및 활성화	- 민자유치를 통한 청년공간조성 - 청년문화예술카페 지원 - 청년문화의집 확대운영 - 청년생활문화 공공 공간 제공

자료 : 광주광역시(2017),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18~'22)

-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2015.8.13)함
- 경기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목표, 1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됨

<표 II-9>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전략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참여	청년참여 정책 추진	- 청년활동 지원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 청년정책 통합 추진	- 청년 마복공동체 사업 -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도약	청년 역량 강화	- 교육비 경감 - 청년역량 개발 - 전문적 맞춤형 양성	- 경기도 학자금 이차 지원 - 게임산업육성추진(G-NEXT) - 경기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 -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전문능력개발) -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후계농업인력양성) -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자립	입직과 안정	-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제고 - 생활안정 - 입직 전 체험과 멘토링 - 적성과학과 진로결정	-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 문화창조허브(판교, 광고, 북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 청년 해외 역지구 창업지원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 청년창업 SMART 2030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 일하는 청년통장 - 자립지원사업 - 청년구직지원금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향유	생활의 질 향상	- 장거리 이동 지원 - 주거안정 지원 - 문화 활성화 - 권리보호	- BABY2+ 파복하우스 - 송파학사 운영 - 파복기숙사 사업 - 청년 공유기숙사 - 서울농생대문화공간 조성(청년문화작소운영)

자료 : 경기도(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 경기도 '청년주거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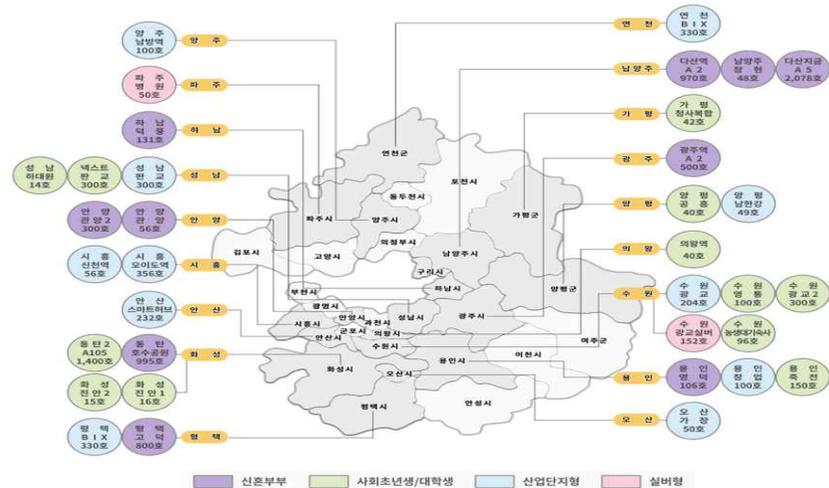
- 경기도는 청년주거 안정화를 위해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제도를 시행중임
 -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며, 안양, 수원, 파주, 수원, 안산 등에서 건설·공급예정임
 - 임대보증금 이차지원은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 이자의 40~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차지원 수준은 자녀출산에 따라 차별화하는 정책임

<표 II-10> 경기도의 '청년주거지원제도'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내용
따복하우스	-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경기도 내 18개 시군, 35개 사업지구, 10,605호를 추진중임 - 이중 신혼부부와 사초년생/대학생을 위해 각각 5984호, 2513호 등 총 8497호를 공급할 계획임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2020년까지 예정) - 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 입주 시 기본지원 40%,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이상 출산시 100% 지원

따복하우스 추진 지구

- 경기도 내 18개 시·군, 35개 사업지구, 10,605호



제2절 해외 청년 정책

■ 프랑스

- 프랑스는 지역단위 청년종합지원정보센터(CIDJ :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pour la Jeunesse)를 통해 청(소)년의 취업,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함
 - 프랑스 내에 1200개 정도의 청년종합지원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 고용 및 취업에 필요한 진로상담, 고용정보 제공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체육·청년·대중·교육·지역생활부 : 고용 및 생활전반에 관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대상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학교 중도자퇴자 지원서비스, 문화예술지원, 진로교육, 청년참여 활성화 및 국제교류 활동 등을 시행함
 - 고용부 : 학교 중도자퇴자 대상 고용지원, 일반 청년 대상 직업창출, 직업훈련생 훈련개선, 공공영역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주거문제 해결안 마련 등을 지원
 - 교육부 : 학교 중도자퇴자 대상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에서의 권리보장 중도자 퇴예방 등을 위한 지원, 청년 수당제도 등
 - 사회보장·여성부 : 청년 보건영역 지원
 - 내무부 : 청년의 진로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 법무부 : 청년재소자 재활촉진 및 자치권, 주거와 복지에 관한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
 - 생태·지속가능한개발·에너지부 : 청년 중심의 기후협약 컨퍼런스 실시

■ 독일

- 독일의 청년정책 관련 법률은 '사회법전(SGB : Sozialgesetzbuch)'에 근거함
 - 제2권(SGB II)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과 제3권(SGB III) 사회보장에 따른 고용촉진에서 청년을 포함하여 고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함

- 제8권(SGB VIII)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 정책대상과 관련해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18세 미만, 청년은 18~27세 미만으로 정의함
- 독일연방에서 수행하는 주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 : 최대 25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월 184유로씩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해당아동이 대학교 등 정규 고등교육 이수시 최고 25세까지, 군대나 대체복무시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지급이 가능함
 - 청(소)년을 강하게 프로젝트 :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사회, 교육, 직업교육을 제공
 - 실업급여 ; 미취업 청년이나 학생들 중 초단기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 야간 노동, 교대제 노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 직업훈련 :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부에서 담당.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수당을 제공. 직업훈련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의 생계수요, 생활비와 교통비, 직업훈련 비용 등이 포함됨

■ 벨기에

- 청년실업이 심각하던 2000년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게 하는 청년고용 프로그램(FJA : First Job Agreement), 일명 '로제타 플랜(Rosetta²) Plan)'을 도입해 성공을 거둠
 - 1999년 신정부 출범당시 벨기에의 청년(15세~24세) 실업률은 22.6%로 EU국가 평균 청년실업률(18.3%)에 비해 높은 상황이었음. 때문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협약을 통해 예방적 접근을 포함한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함
 - 5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에게 전체 근로자(전년도 2/4분기 풀타임 근로자)의 3%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3% 충족시 신규고용 1인당 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을 분기당 500유로 감면, 3% 초과시 분기당 1100유로 감면)
 - 반면,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미채용 인원 1인당 하루 75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로제타 플랜의 고용 대상은 우선연령 그룹별 순차시스템(waterfall system)을 채택함

2) '로제타'는 1999년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벨기에 영화 제목으로, 실직후 후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명의 젊은 여성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로제타 플랜이라는 명칭을 붙임

- A그룹(학교를 떠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5세 미만)이 우선대상이고, A그룹 부족시 B그룹(25세 미만 구직자), C그룹(30세 미만 구직자)의 순으로 고용
- 청년 구직자는 실행 프로그램(Activation Programme)에 참여하고 일자리 제의 수락의 의무가 있음
 - 미취업 청년에게 실업방지 캠페인,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직업상담, 훈련 등 사회로 복귀한 기회를 제공
 - 그러나 합리적 이유 없이 2회 연속 일자리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혜택이 중지됨
- 아울러 미숙련(Low-Skilled) 청년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함
 - 1년이상 FJA 계약시 : 첫째 1년간은 소요비용의 75%, 2년차에는 50%의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 2년이상 FJA 계약시 : 첫째 1년간은 소요비용의 100%, 2년차에는 75%의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 숙련 청년근로자 고용 유지시 1년간 10%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 영국

- 1998년 영국의 청년실업률이 유럽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인 13.5%에 이르자 영국 정부는 1998년 1월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뉴딜정책을 실행함
 - 영국의 뉴딜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편부모 자녀, 장애인, 청년 실업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룸
- 영국의 청년실업 정책으로서의 뉴딜은 청년들이 직업 훈련, 교육, 노동경험 등을 통해 결정적인 직업 경험을 쌓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하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향함
- 영국의 뉴딜정책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수당을 신청한 18세~24세 이하의 청년과 25세 이상의 구직자로 2년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뉴딜정책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은 최대 4개월간 지속되는 '게이트웨이(Gateway)'에 편입되어 구직상담, 안내, 정보 등 각종 도움을 강력하게 제공
- 게이트웨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구직자는 다음 4개의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는 뉴딜 직장 : 추가 고용을 위해 공석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유인책
- 환경 테스크포스에서의 일자리 : 환경 관련 조직에서 일하거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원 부문의 일자리 프로그램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자원부문의 일자리 : 청년 실업자들이 사회적, 공공 부문에서 노동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하는 동안 최소 주당 30시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훈련을 받아야 함.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국가 공인 직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음
- 풀타임 교육이나 훈련 등 :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청년들의 기본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공인 직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호주

- 호주는 청년(15~24세)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창업(startup)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실제 호주의 청년창업은 G20 국가 중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청년창업자금 지원(5위), 기업가 정신 문화(5위), 교육훈련(2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음
- 청년창업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2014년 기준 약 2만여개로, 5년전에 비해 약 37% 증가한 수치임
 - 2만여개 사회적 기업 중 49.1%는 직접 고용이나 교육훈련에 있어 청년세대에 유익한 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Social Traders, 2014).
 - * 사회적 기업들의 직접적인 청년들의 직접고용은 전체 고용 중 18.1%이며,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은 21.1%,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교육은 13.5%임
- 한편, 호주정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창업교육과 진로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음
 - 예컨대, 퀸즈랜드의 젊은 창업가를 위한 아카데미(AYE : Academy for Young Entrepreneurs)의 교육대상은 10~12세 청소년들이며, 소규모 창업

- 의 개발과정, 필요한 기술 및 재정자립 방법, 글로벌 시민의식,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 등 매우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함
- 연방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 내에 진로교육을 포함시키려고 ABCD(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라는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지침을 개발하여 호주 전역의 진로교육의 기준을 제시함
 - * 모든 학생들은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진로와 관련된 학습들이 주정부 차원의 커리큘럼의 다양한 학습영역들에 걸쳐 특화·통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 예컨대, New South Wales주(州)에서는 진로교육 목표요소 및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위한 모듈 개발, 필수교과목인 자기개발과 건강 및 체육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통합시킴

■ 스웨덴

- 스웨덴은 1970~80년대에는 중앙정부가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과 책임을 맡으면서 일원화된 형태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직업교육의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 나타나게 됨
 - 직업교육의 다양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91년 스웨덴 교육과정에 직업교육(Vocational Program)과 대학진학 프로그램(Academic Program)을 분리하는 개편이 실시됨
 - 개편당시 총 14개 프로그램 중 직업교육프로그램 12개, 대학진학 프로그램 2개였으나, 이후 2011년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기업과 산업현장의 노동수요 변화에 맞춰 18개 프로그램(직업교육프로그램 12개, 대학진학 프로그램 6개)의 3년제 교육과정이 새롭게 등장함
 - 2011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직업교육 프로그램 : 어린이 오락, 건축 및 건설, 전기 에너지, 차량 및 운송, 비즈니스 및 관리, 수공예품, 호텔 및 관광, 산업 기술, 레스토랑 경영 및 식당, HVAC 및 건물유지 보수, 천연자원 사용, 보건 및 사회복지 등 12개임
- 한편,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소재의 기업들이 직업교육과 직업학교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됨

- 기업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직업학교로는 제조업, 중공업 분야 대기업인 Volvo, Scania, ABB 등임. 이들 기업은 과열된 시장경쟁을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였고, 이들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함임
- * Volvo 직업학교(Volvo gymnasiet) : 볼보 직업학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자연과학, 기술, 산업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42명이 재학중임. 볼보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의 번영과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통과 협동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음. 3년의 교육과정 중 1년차에는 공통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2년차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자동생산라인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 ABB 직업학교(ABB Industrigymnasium) : ABB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ASEA사와 스위스 BBC사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Asea Brown Boveri Group)로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임. ABB는 스웨덴 내 몇몇 지역에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1994년 ABB 직업학교를 설립을 시작해 현재 3개 지역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임. ABB 직업학교에는 교육 프로그램 중 기술과 전기·에너지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제조시설이 요구하는 기술분야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을 제품개발과 전력기술 분야의 공학기술이나 에너지 기술분야 등으로 차별화하고 있음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분석

제III장.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응답자 특성

■ 출생지와 거주지

- 전체 응답자의 73.8%가 전라남도에서 출생하였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10.6%의 순임
- 거주지는 표본추출시 할당된 지역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III-1> 출생지

구분	빈도	비율(%)
전라남도	738	73.8
광주	106	10.6
서울	51	5.1
부산	12	1.2
인천	8	0.8
대전	13	1.3
대구	7	0.7
울산	3	0.3
강원도	5	0.5
경기도	11	1.1
충청북도	4	0.4
충청남도	3	0.3
전라북도	19	1.9
경상북도	6	0.6
경상남도	7	0.7
제주도	2	0.2
기타	2	0.2
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표 III-2> 거주지

구분	빈도	비율(%)
목포시	90	9.0
여수시	106	10.6
순천시	103	10.3
나주시	58	5.8
광양시	65	6.5
담양군	35	3.5
곡성군	30	3.0
구례군	32	3.2
고흥군	35	3.5
보성군	30	3.0
화순군	40	4.0
장흥군	30	3.0
강진군	31	3.1
해남군	40	4.0
영암군	35	3.5
무안군	50	5.0
함평군	30	3.0
영광군	35	3.5
장성군	30	3.0
완도군	35	3.5
진도군	30	3.0
신안군	30	3.0
합계	1000	100.0

■ 성별

- 전체 응답자의 52.1%는 남성, 47.8%는 여성임

<표 III-3> 성별

구분	빈도	비율(%)
남성	521	52.1
여성	478	47.8
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 연령

- 전체 응답자 중 만18~19세는 108명(10.8%), 만20~24세 248명(24.8%), 만25~29세 198명(19.8%), 만30~34세 204명(20.4%), 만35~39세 242명(24.2%)임

<표 III-4> 연령

구분	빈도	비율(%)
만18~19세	108	10.8
만20~24세	248	24.8
만25~29세	198	19.8
만30~34세	204	20.4
만35~39세	242	24.2
합계	1000	100.0

■ 혼인여부

- 전체 응답자 중 미혼 72.6%, 기혼 26.9%로 기혼보다 미혼이 월등히 많음

<표 III-5> 혼인여부

구분	빈도	비율(%)
미혼	726	72.6
기혼	269	26.9
무응답	5	0.5
합계	1000	100.0

■ 최종학력

- 응답자의 69.8%가 대학졸업(재학포함)이고, 고등학교 졸업 22.1%, 대학원졸업이상 5.3%의 순임

<표 III-6> 최종학력

구분	빈도	비율(%)
중학교 졸업	15	1.5
고등학교 졸업	221	22.1
대학졸업(대학재학포함)	698	69.8
대학원 졸업이상	53	5.3
무응답	13	1.3
합계	1000	100.0

■ 직업

- 응답자의 24.2%가 학생(대학/대학원)이고, 다음으로 사기업 종사자(16.3%),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15.6%), 자영업(10.3%)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7> 직업

구분	빈도	비율(%)
학생(대학/대학원)	242	24.2
사기업 종사자	163	16.3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	156	15.6
자영업	103	10.3
파트타임 근무(아르바이트)	71	7.1
취업준비생	63	6.3
기타	60	6.0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53	5.3
전업주부	38	3.8
무직(구직활동 하지 않음)	22	2.2
창업준비중	14	1.4
문화예술인	3	0.3
무응답	12	1.2
합계	1000	100.0

■ 월평균소득과 지출

-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평균 약 175만원(최소값 0원, 최대값 800만원)이고,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평균 약 442만원(최소값 150만원, 최대값 3500만원)으로 조사됨
- 본인의 월평균지출은 평균 약 96만원(최소값 10만원, 최대값 540만원)이고, 가구의 월평균지출은 평균 약 275만원(최소값 150만원, 최대값 2000만원)이라고 응답함

<표 III-8> 월평균 소득과 지출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소득(만원)-본인	0	800	175.48	119.590
월평균지출(만원)-본인	10	540	96.64	70.542
월평균소득(만원)-가구	150	3500	442.33	330.539
월평균지출(만원)-가구	150	2000	274.88	171.691

제2절 성장과 거주

■ 전남 거주 시작 연령과 계기

- 전체 응답자의 72.5%가 0~3세부터 전남에서 거주를 시작했고, 20세 이후부터 거주한 응답자는 전체의 15.2%임
- 전남에서 거주를 시작한 계기는 전체 응답자의 68.6%가 출생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취업(발령) 13.0%, 진학 7.0%, 부모님의 이사 6.4%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9> 전남 거주 시작 연령

구분	빈도	비율(%)
0~3세	720	72.5
4~7세	28	2.8
8~11세	48	4.8
12~15세	25	2.5
16~19세	20	2.0
20~23세	63	6.3
24~27세	46	4.6
28~31세	32	3.2
32~36세	11	1.1
무응답	7	0.7
합계	1000	100.0

<표 III-10> 전남 거주 시작 계기

구분	빈도	비율(%)
출생	686	68.6
취업(발령)	130	13.0
진학	70	7.0
부모이사	64	6.4
결혼	38	3.8
창업	8	0.8
기타	4	0.4
합계	1000	100.0

■ 전남을 떠났던 연령

- 현재는 전남에 거주하지만 전남을 떠났었던 응답자의 55.3%는 20세에 떠났었다고 응답함
- 20세 이후에는 24세(7.3%)가 가장 높음

<표 III-11> 전남을 떠났던 연령

구분	빈도	비율(%)
1세	1	0.7
2세	1	0.7
3세	1	0.7
4세	7	4.7
8세	10	6.7
12세	6	4.0
13세	2	1.3
14세	1	0.7
15세	1	0.7
16세	8	5.3
18세	2	1.3
19세	3	2.0
20세	83	55.3
21세	2	1.3
22세	1	0.7
23세	2	1.3
24세	11	7.3
25세	2	1.3
26세	1	0.7
28세	2	1.3
32세	2	1.3
36세	1	0.7
합계	150	100.0

■ 전남에서 재거주 시작 연령

- 전남을 떠났었던 응답자가 다시 전남에서 재거주를 시작한 연령은 24세와 28세(각 21.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2세(14.5%)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12> 전남에서 재거주 시작 연령

구분	빈도	비율(%)
8세	1	0.7
12세	1	0.7
13세	1	0.7
14세	2	1.4
16세	5	3.4
18세	1	0.7
20세	11	7.6
22세	5	3.4
23세	9	6.2
24세	31	21.4
25세	3	2.1
26세	4	2.8
27세	4	2.8
28세	31	21.4
29세	2	1.4
30세	4	2.8
31세	1	0.7
32세	21	14.5
33세	1	0.7
34세	1	0.7
36세	6	4.1
합계	145	100.0

■ 전남에서 계속거주 혹은 재거주 계기

- 전남에서 계속거주하거나 떠났다가 돌아온 청년의 재거주 계기는 취업(44.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학(24.8%), 결혼(19.6%)의 순으로 조사됨
-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44.8%)과 창업(5.6%)이 전체의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전남에서 계속거주 혹은 재거주 계기



제3절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관

3-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응답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3점(100점 환산 60.5점)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평균 4.73점(100점 환산 62.2점), 군지역은 평균 4.55점(100점 환산 59.2점)으로 시지역의 청년이 군지역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편임

<표 III-1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지역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평균
시군	시군평균	4.63	60.5
	시지역	4.73	62.2
	군지역	4.55	59.2
지역	목포시	4.68	61.3
	여수시	5.04	67.3
	순천시	4.81	63.5
	나주시	4.29	54.8
	광양시	4.59	59.8
	담양군	4.63	60.5
	곡성군	4.50	58.3
	구례군	4.72	62.0
	고흥군	4.29	54.8
	보성군	4.53	58.8
	화순군	4.55	59.2
	장흥군	4.33	55.5
	강진군	4.68	61.3
	해남군	4.98	66.3
	영암군	4.29	54.8
	무안군	4.32	55.3
	함평군	5.10	68.3
	영광군	4.31	55.2
	장성군	4.43	57.2
	완도군	5.26	71.0
진도군	4.03	50.5	
신안군	4.37	56.2	

- 성별로는 남성은 평균 4.61점(100점 환산 60.2점), 여성은 4.64점(100점 환산 60.7점)으로 여성 응답자가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음
- 연령별로는 만18~19세의 청년이 평균 4.79점(100점 환산 63.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만35~39세(평균 4.70점, 100점 환산 61.7점)의 순으로 조사됨
- 혼인여부별로는 미혼 청년은 평균 4.60점(100점 환산 60.0점)인 반면, 기혼 청년은 평균 4.70점(100점 환산 61.7점)으로 기혼이 미혼보다는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표 III-14>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성별, 연령별, 혼인여부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평균
성별	남성	4.61	60.2
	여성	4.64	60.7
연령별	만18~19세	4.79	63.2
	만20~24세	4.51	58.5
	만25~29세	4.64	60.7
	만30~34세	4.59	59.8
	만35~39세	4.70	61.7
혼인여부별	미혼	4.60	60.0
	기혼	4.70	61.7

■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

- 삶의 질 평가에 있어 각 분야별 중요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28점~5.65점(100점 환산 71.3점~77.5점)으로 5개 분야 모두 다소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삶의 질 평가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일자리(평균 5.65점, 100점 환산 77.5점)이고, 다음으로 경제(평균 5.54점, 100점 환산 75.7점), 문화/여가(평균 5.53점, 100점 환산 75.5점), 복지(평균 5.51점, 100점 환산 75.2점), 교육(평균 5.28점, 100점 환산 71.3점)의 순으로 조사됨
- 각 분야별 중요도에 있어서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일자리(평균 0.13점, 100점 환산 2.2점)이고,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복지(평균 0.02점, 100점 환산 0.3점)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I-15>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일자리	5.65	77.5	1.249	1
경제	5.28	71.3	1.238	2
문화/여가	5.53	75.5	1.218	3
복지	5.51	75.2	1.233	4
교육	5.54	75.7	1.251	5

<표 III-16>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 : 지역별 차이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자리	시지역	5.72	78.7	1.201	0.059
	군지역	5.59	76.5	1.282	0.054
	합계	5.65	77.5	1.249	0.040
경제	시지역	5.61	76.8	1.214	0.059
	군지역	5.49	74.8	1.276	0.053
	합계	5.54	75.7	1.251	0.040
문화/여가	시지역	5.59	76.5	1.223	0.060
	군지역	5.49	74.8	1.214	0.051
	합계	5.53	75.5	1.218	0.039
복지	시지역	5.52	75.3	1.245	0.061
	군지역	5.50	75.0	1.226	0.051
	합계	5.51	75.2	1.233	0.039
교육	시지역	5.30	71.7	1.231	0.060
	군지역	5.26	71.0	1.243	0.052
	합계	5.28	71.3	1.238	0.039

■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만족도

- 삶의 질 평가에 있어 분야별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12점~4.42점(100점 환산 52.0점~57.0점)으로 5개 분야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삶의 질 평가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일자리(평균 4.42점, 100점 환산 57.0점)이고, 다음으로 교육(4.30점, 100점 환산 55.0점), 복지(평균 4.19점, 100점 환산 53.2점), 문화/여가(평균 4.16점, 100점 환산 52.7점), 경제(평균 4.12점, 100점 환산 52.0점)의 순으로 조사됨
- 각 분야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여가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일자리, 복지, 경제분야의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II-17>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만족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일자리	4.42	57.0	1.425	1
교육	4.30	55.0	1.232	2
복지	4.19	53.2	1.274	3
문화/여가	4.16	52.7	1.423	4
경제	4.12	52.0	1.34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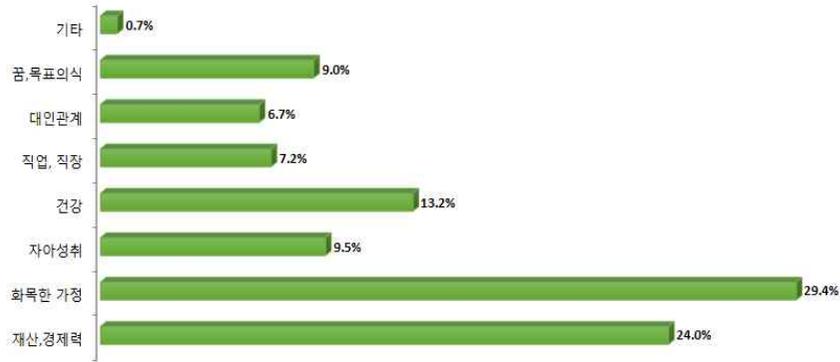
<표 III-18>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 : 지역별 차이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비고
일자리	시지역	4.43	57.2	1.427	0.070	
	군지역	4.42	57.0	1.424	0.059	
	합계	4.42	57.0	1.425	0.045	
교육	시지역	4.45	57.5	1.239	0.061	F=10.679, p=.001
	군지역	4.19	53.2	1.216	0.051	
	합계	4.30	55.0	1.232	0.039	
복지	시지역	4.22	53.7	1.246	0.061	
	군지역	4.17	52.8	1.295	0.054	
	합계	4.19	53.2	1.274	0.041	
문화/여가	시지역	4.27	54.5	1.431	0.070	F=3.993, p=.046
	군지역	4.09	51.5	1.413	0.059	
	합계	4.16	52.7	1.423	0.045	
경제	시지역	4.17	52.8	1.374	0.068	
	군지역	4.09	51.5	1.321	0.055	
	합계	4.12	52.0	1.343	0.043	

■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화목한 가정(29.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경제력(24.0%), 건강(13.2%), 자아성취(9.5%)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III-2>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의 충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4.45점 (100점 환산 57.5점)으로 충분성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시지역(평균 4.58점, 100점 환산 59.7점)이 군지역(평균 4.36점, 100점 환산 56.0점)보다 다소 높은 편임
- 성별로는 남성(평균 4.49점, 100점 환산 58.2점)이 여성(평균 4.41점, 100점 환산 56.8점)보다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만18~19세(평균 4.68점, 100점 환산 61.3점)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만20~24세(평균 4.24점, 100점 환산 54.0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기혼(평균 4.69점, 100점 환산 61.5점)이 미혼(평균 4.36점, 100점 환산 56.0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19>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의 충분성 : 지역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평균
시군평균		4.45	1.289	57.5
시군	시지역	4.58	1.337	59.7
	군지역	4.36	1.246	56.0
지역	목포시	4.45	1.289	57.5
	여수시	4.50	1.368	58.3
	순천시	4.93	1.409	65.5
	나주시	4.44	1.281	57.3
	광양시	4.22	1.534	53.7
	담양군	4.68	0.947	61.3
	곡성군	4.14	1.353	52.3
	구례군	4.10	1.496	51.7
	고흥군	4.63	1.497	60.5
	보성군	4.14	0.733	52.3
	화순군	4.27	1.388	54.5
	장흥군	4.88	1.114	64.7
	강진군	4.27	1.172	54.5
	해남군	4.68	1.166	61.3
	영암군	4.65	1.292	60.8
	무안군	4.14	0.845	52.3
	합평균	4.18	1.004	53.0
	영광군	4.60	1.499	60.0
장성군	3.74	1.379	45.7	
완도군	4.50	1.106	58.3	
진도군	5.23	0.973	70.5	
신안군	3.70	0.750	45.0	

<표 III-2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의 충분성 : 성별, 연령별, 혼인여부별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100점 환산 평균
성별	남성	4.49	1.283
	여성	4.41	1.297
연령별	만18~19세	4.68	1.391
	만20~24세	4.24	1.392
	만25~29세	4.38	1.226
	만30~34세	4.48	1.265
	만35~39세	4.60	1.17
혼인여부별	미혼	4.36	1.332
	기혼	4.69	1.142

3-2. 일자리

■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 응답자의 48.5%는 현재 취업상태이고, 다음으로 학생(22.6%), 취업준비중(10.8%), 창업상태(6.7%)의 순으로 조사됨
 - 취업, 창업 등 현재 경제활동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55.2%
 - 취업준비 혹은 창업준비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13.0%
 - 실업 혹은 무직상태인 응답자는 전체의 5.8%

<표 III-21>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	빈도	비율(%)
취업상태	485	48.5
학생	226	22.6
취업준비중	108	10.8
창업상태	67	6.7
무직	48	4.8
창업준비중	22	2.2
실업상태	10	1.0
기타	25	2.5
무응답	9	0.9
합계	1000	100.0

■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취업 혹은 창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4점(100점 환산 60.7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취업상태(평균 4.54점, 100점 환산 59.0점)인 응답자보다는 창업상태(평균 4.73점, 100점 환산 62.2점)인 응답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태	4.54	59.0	1.253
창업상태	4.73	62.2	1.123
합계	4.64	60.7	1.247

■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

-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임금수준(평균 5.86점, 100점 환산 81.0점), 근로복지여건(평균 5.77점, 100점 환산 79.5점), 근로수준(평균 5.65점, 100점 환산 77.5점), (재)취창업기회(평균 5.05점, 100점 환산 67.5점), (재)취창업정보(평균 4.97점, 100점 환산 66.2점), (재)취창업교육(평균 4.94점, 100점 환산 65.7점)의 순으로 조사됨
- 각 항목별 중요도는 평균 4.94점~5.86점(100점 환산 65.7점~81.0점)으로 6개 항목 모두 대체로 다소 높은 중요도를 보이나, 1위와 6위의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II-23>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임금수준	5.86	81.0	1.206	1
근로복지여건	5.77	79.5	1.180	2
근로수준	5.65	77.5	1.206	3
(재)취창업기회	5.05	67.5	1.392	4
(재)취창업정보	4.97	66.2	1.358	5
(재)취창업교육	4.94	65.7	1.366	6

■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

- 현재 전남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만족도 순위는 근로복지여건(평균 4.14점, 100점 환산 52.3점), 근로수준(평균 4.10점, 100점 환산 51.7점), 임금수준(평균 4.03점, 100점 환산 50.5점), (재)취창업정보(평균 3.82점, 100점 환산 47.0점), (재)취창업교육(평균 3.79점, 100점 환산 46.5점), (재)취창업기회(평균 3.78점, 100점 환산 46.3점)의 순으로 조사됨
- 근로복지여건과 근로수준,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100점 환산 50점 이상)의 만족도이나, (재)취업정보, (재)취창업교육, (재)취창업기회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100점 환산 50점 이하)의 만족도 수준을 보임
 - 임금수준과 (재)취창업기회는 중요도(각각 1위, 4위)는 높으나, 만족도(각각 3위, 6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4>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근로복지여건	4.14	52.3	1.290	1
근로수준	4.10	51.7	1.310	2
임금수준	4.03	50.5	1.333	3
(재)취창업정보	3.82	47.0	1.169	4
(재)취창업교육	3.79	46.5	1.184	5
(재)취창업기회	3.78	46.3	1.220	6

■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 전남의 일자리 여건에 대해 긍정적인 동의 보다는 부정적인 동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라남도의 일자리 정책, 전라남도의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2.90점(100점 환산 31.7점)과 2.89점(100점 환산 31.5점)으로 매우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임

<표 III-25>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3.39	39.8	1.322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 쉽다	3.33	38.8	1.338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3.19	36.5	1.307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3.44	40.7	1.288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3.39	39.8	1.338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5	52.5	1.494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3.38	39.7	1.338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다	2.90	31.7	1.368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2.89	31.5	1.531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29	38.2	1.442

■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

-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급여가 높은 일자리(20.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20.4%), 안정적 신분보장이 되는 일자리(19.4%), 분위기가 좋은 일자리(16.8%), 퇴근이 빠른 일자리(10.3%)의 순으로 조사됨
 - 급여와 신분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39.9%를 차지하나, 본인의 적성이나 발전가능성, 직장의 분위기, 퇴근이 빠른 일자리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7.7%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II-26>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빈도	비율(%)
급여가 높은 일자리	205	20.5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204	20.4
안정적 신분보장 일자리	194	19.4
분위기 좋은 일자리	168	16.8
퇴근이 빠른 일자리	103	10.3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102	10.2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12	1.2
기타	9	0.9
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 취업에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취업에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전공(22.1%), 인성(21.6%), 학벌(17.3%), 인턴 등 사회경험(14.8%), 자격증(13.5%)의 순으로 응답함
 - 외모, 가족배경 등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월등히 높음
 - 그러나 여전히 학벌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II-27>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전공	221	22.1
인성	216	21.6
학벌	173	17.3
인턴 등 사회경험	148	14.8
자격증	135	13.5
어학점수	31	3.1
수상경력	17	1.7
가족배경	15	1.5
외모	13	1.3
기타	28	2.8
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의 1순위는 인터넷(26.8%), 학교(18.0%), 취업알선 기관(16.5%), 부모 또는 지인(15.7%)의 순이고, 2순위는 인터넷(22.3%), 부모 또는 지인(19.2%), 취업알선기관(16.4%), 신문 등 언론매체(12.1%)의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로 인터넷과 취업알선기관에서 취창업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취업박람회, 현장실습/인턴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8>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터넷	268	26.8	223	22.3
학교	180	18.0	73	7.3
취업알선기관	165	16.5	164	16.4
부모 또는 지인	157	15.7	192	19.2
신문,TV등 언론매체	123	12.3	121	12.1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38	3.8	77	7.7
현장실습/인턴십	30	3.0	53	5.3
취업박람회	28	2.8	56	5.6
학원	4	0.4	11	1.1
헤드헌터	3	0.3	5	0.5
기타	1	0.1	3	0.3
무응답	3	0.3	22	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중소기업 취업의향

- 전체 응답자의 62.2%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III-3> 중소기업 취업의향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373명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용불안정(28.4%)과 낮은 급여수준(21.2%) 때문이 전체의 49.6%를 차지함
- 이 외에도 관련된 여러 업무에 대한 경험 부재(12.9%),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아서(10.7%),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9.1%)도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9>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고용 불안정	106	28.4
낮은 급여 수준	79	21.2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48	12.9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아서	40	10.7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34	9.1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17	4.6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려움	4	1.1
기타	25	6.7
무응답	20	5.4
합계	373	100.0

■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

-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 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정책 1순위는 기업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37.6%),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25.5%),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9.6%)의 순이고, 2순위는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21.1%),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15.6%),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13.7%)의 순으로 조사됨
- 기업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30>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376	37.6	140	14.0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255	25.5	211	21.1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	96	9.6	156	15.6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73	7.3	102	10.2
귀농, 귀촌, 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70	7.0	117	11.7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확대	66	6.6	137	13.7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47	4.7	106	10.6
기타	7	0.7	8	0.8
무응답	10	1.0	23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3-3. 교육

■ 자녀유무 및 자녀 취학상태

-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0%임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취학상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이용 16.2%, 초등학교 22.7%, 유치원 22.0%, 가정돌봄 14.5%로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로 구성됨

<그림 III-4> 자녀유무



<표 III-31> 자녀의 취학상태

구분	빈도	비율(%)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74	26.2
초등학교	64	22.7
유치원	62	22.0
가정돌봄	41	14.5
중학교	21	7.4
고등학교	11	3.9
기타	9	3.2
합계	282	100.0

■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

- 교육환경 중 거주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의 질(평균 5.65점, 100점 환산 77.5점), 교육기회와 접근성(평균 5.63점, 100점 환산 77.2점), 교육시설(평균 5.49점, 100점 환산 74.8점), 교육비(평균 5.38점, 100점 환

- 산 73.0점), 교육관련정보(평균 5.37점, 100점 환산 72.8점)의 순으로 조사됨
- 모든 교육환경 요소의 중요도가 7점 만점에 평균 5.37점(100점 환산 72.8점)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

<표 III-32>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교육의 질	5.65	77.5	1.299	1
교육기회와 접근성	5.63	77.2	1.301	2
교육시설	5.49	74.8	1.261	3
교육비	5.38	73.0	1.274	4
교육관련정보	5.37	72.8	1.314	5

■ 전남 교육환경 만족도

- 전남 교육환경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요소는 교육비(평균 4.06점, 100점 환산 51.0점), 교육시설(평균 4.03점, 100점 환산 50.5점), 교육의 질(평균 3.91점, 100점 환산 48.5점), 교육관련정보(평균 3.83점, 100점 환산 47.2점), 교육기회와 접근성(평균 3.79점, 100점 환산 46.5점)의 순으로 조사됨
- 전남 교육환경 요소의 만족도는 평균 3.79점~4.06점(100점 환산 46.5점~51.0점)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교육환경의 중요도와 전남의 교육환경 만족도간의 격차가 다소 크다는 것을 보여줌

<표 III-33> 전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교육비	4.06	51.0	1.205	1
교육시설	4.03	50.5	1.140	2
교육의 질	3.91	48.5	1.143	3
교육관련정보	3.83	47.2	1.161	4
교육기회와 접근성	3.79	46.5	1.252	5

■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 전남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 정도의 긍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평균 4.65점(100점 환산 60.8점)의 동의를 보여 앞의 교육환경의 중요도와 전남 교육환경의 만족도 결과와 연계됨

<표 III-34>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충분하다	4.11	51.8	1.186
전라남도 교육시설(유치원 이상)이 충분하다	4.05	50.8	1.196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3.93	48.8	1.228
전라남도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46	57.7	1.269
전라남도의 교육비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4.17	52.8	1.23
전라남도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73	45.5	1.156
전라남도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75	45.8	1.137
나는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4.65	60.8	1.497

■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1순위는 인터넷(31.8%), 학부모 혹은 지인(23.3%), 보육/교육기관(20.8%)의 순이고, 2순위는 학부모 혹은 지인(26.2%), 인터넷(24.8%), 인터넷(24.8%), 신문 등 언론매체(20.2%)의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로 인터넷과 주변 학부모 혹은 지인, 보육/교육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원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5>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터넷	318	31.8	248	24.8
학부모 혹은 지인	233	23.3	262	26.2
보육/교육기관	208	20.8	116	11.6
신문,TV등 언론매체	172	17.2	202	20.2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31	3.1	47	4.7
지자체 및 공공기관	24	2.4	64	6.4
학원	9	0.9	36	3.6
기타	2	0.2	11	1.1
무응답	3	0.3	14	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3-4. 문화/여가

■ 문화/여가활동 빈도

- 문화/여가활동 빈도는 한달에 2~3번(40.5%), 일주일에 2~3번(23.0%), 한달에 1번(20.8%)의 순으로 조사됨
 - 반면, 1년에 2~3번이라는 응답자도 전체 의 9.2%로 개인별 문화/여가활동 빈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표 III-36> 문화/여가활동 빈도

구분	빈도	비율(%)
매일	36	3.6
일주일에 2-3번	230	23.0
한달에 2-3번	405	40.5
한달에 1번	208	20.8
1년에 2-3번	92	9.2
기타	28	2.8
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

- 개인의 문화/여가활동 관련 지출 비용은 한달 평균 21만6천원이고, 가족의 경우에는 한달 평균 47만 6천원 수준이라고 응답함
- 본인 또는 가족의 월소득 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 비율은 평균 18.4%임
 - 그러나 시지역의 경우 월소득 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 비율이 20.1%인 반면, 군지역은 17.0%로 지역별로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III-37>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문화/여가활동 본인지출비용(만원)		21.6	29.393	
문화/여가활동 가족지출비용(만원)		47.6	69.916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율(%)		18.4	18.587	
지역별	시지역	20.1	19,992	F=5.390, p=.021
	군지역	17.0	17.410	

■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

- 문화/여가생활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평균 5.69점, 100점 환산 78.2점), 주변 문화시설과의 접근성(평균 5.40점, 100점 환산 73.3점), 문화/여가생활 비용부담(평균 5.29점, 100점 환산 71.5점), 문화콘텐츠의 수준(평균 5.20점, 100점 환산 70.0점), 문화/여가 정보 이용 가능성(평균 4.94점, 100점 환산 65.7점)의 순으로 조사됨
 - 모든 문화/여가생활 환경 요소의 중요도가 7점 만점에 평균 4.94점~5.60점 (100점 환산 65.7점~78.2점)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임

<표 III-38>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개인적시간의 여유	5.69	78.2	1.257	1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5.40	73.3	1.261	2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	5.29	71.5	1.325	3
문화콘텐츠의 수준	5.20	70.0	1.297	4
정보이용가능성	4.94	65.7	1.297	5

- 모든 문화/여가생활 요소별 중요도에 대해서 지역별차이는 거의 없으나, 성별로는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과 문화시설과의 접근성, 문화콘텐츠의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중요도가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만 24세 미만의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문화/여가생활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 35세 이상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표 III-39>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차이

구분		개인적시간의 여유	문화여가 생활비용부담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문화콘텐츠의 수준	정보이용 가능성	
지역별	시	평균	5.68	5.26	5.39	5.18	4.84
		표준편차	1.175	1.319	1.262	1.269	1.304
	군	평균	5.69	5.32	5.41	5.21	5.02
		표준편차	1.315	1.329	1.262	1.317	1.287
성별	남성	평균	5.64	5.14	5.29	5.08	4.85
		표준편차	1.276	1.334	1.241	1.316	1.322
	여성	평균	5.74	5.47	5.53	5.33	5.05
		표준편차	1.237	1.291	1.269	1.261	1.256
연령별	만18-19세	평균	5.65	5.51	5.27	5.32	5.06
		표준편차	1.225	1.211	1.121	1.092	1.162
	만20-24세	평균	5.87	5.34	5.50	5.24	4.97
		표준편차	1.238	1.399	1.284	1.366	1.311
	만25-29세	평균	5.63	5.32	5.44	5.21	5.09
		표준편차	1.315	1.363	1.308	1.367	1.335
	만30-34세	평균	5.65	5.16	5.42	5.21	4.88
		표준편차	1.260	1.304	1.250	1.261	1.282
	만35-39세	평균	5.59	5.23	5.30	5.08	4.79
		표준편차	1.231	1.274	1.266	1.281	1.312

■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 전남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해서는 평균 3.27점~4.56점, 100점 환산 37.8점~59.3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의 동의를 보임
 - 전라남도의 문화/여가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통이하의 동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동의를 보이고 있어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강하나,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III-40>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3.83	47.2	1.487
나는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	4.56	59.3	1.390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시설이 많다	3.48	41.3	1.294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다	3.32	38.7	1.273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 수준은 높다	3.38	39.7	1.270
전라남도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	3.40	40.0	1.289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	3.27	37.8	1.364
전라남도 여행지는 주말여행지로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4.17	52.8	1.437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	3.51	41.8	1.279
나는 나의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3.81	46.8	1.380

■ 문화/여가활동 선호도와 만족도

- 문화/여가활동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는 영화관람(평균 5.53점, 100점 환산 75.5점), 맛집탐방(평균 5.22점, 100점 환산 70.3점), 대중공연(평균 4.96점, 100점 환산 66.0점), 자연관광지여행(평균 4.92점, 100점 환산 65.3점)의 순으로 조사됨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는 영화관람(평균 4.64점, 100점 환산 60.7점), 맛집탐방(평균 4.59점, 100점 환산 59.8점), 자연관광지여행(평균 4.44점, 100점 환산 57.3점), 지역축제관람(평균 4.03점, 100점 환산 50.5점)의 순임

-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선호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서 지역의 문화/여가 콘텐츠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III-41>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

구분	선호도			만족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4.10	51.7	1.665	3.60	43.3	1.296
박물관관람	3.93	48.8	1.607	3.57	42.8	1.225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08	51.3	1.702	3.46	41.0	1.346
연극공연 관람	4.56	59.3	1.721	3.48	41.3	1.404
전통예술공연관람	3.81	46.8	1.636	3.56	42.7	1.299
영화관람	5.53	75.5	1.430	4.64	60.7	1.538
대중공연	4.96	66.0	1.586	3.67	44.5	1.477
스포츠 경기 관람	4.57	59.5	1.694	3.74	45.7	1.488
지역축제관람	4.45	57.5	1.520	4.03	50.5	1.357
문화관련창작참여	3.80	46.7	1.545	3.52	42.0	1.264
스포츠동호회참여	3.96	49.3	1.678	3.74	45.7	1.373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69	44.8	1.530	3.56	42.7	1.279
역사유적지 방문	3.90	48.3	1.606	3.80	46.7	1.321
자연관광지여행	4.92	65.3	1.592	4.44	57.3	1.494
맛집탐방	5.22	70.3	1.613	4.59	59.8	1.578

- 시군별 문화/여가활동의 선호도는 연극관람, 영화관람, 대중공연, 자연관광지여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른 활동들은 시군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극관람, 영화관람, 대중공연, 자연관광지여행은 시지역 청년들이 군지역 청년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연극공연, 영화관람, 지역축제, 지역관광지, 맛집탐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극공연을 제외한 영화관람, 지역축제, 지역관광지, 맛집탐방은 군지역 청년

들보다 시지역 청년들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극공연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지역 청년들이 군지역 청년들보다 더 선호는 하지만 공연 부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III-42>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 : 지역별 차이

구분	선호도				만족도			
	시		군		시		군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시회 관람	4.2	53.3	4.03	50.5	3.63	43.8	3.57	42.8
박물관관람	3.97	49.5	3.91	48.5	3.55	42.5	3.58	43.0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17	52.8	4.01	50.2	3.45	40.8	3.47	41.2
연극공연 관람	4.73	62.2	4.44	57.3	3.4	40.0	3.55	42.5
전통예술공연관람	3.88	48.0	3.75	45.8	3.61	43.5	3.53	42.2
영화관람	5.62	77.0	5.46	74.3	4.94	65.7	4.42	57.0
대중공연	5.14	69.0	4.84	64.0	3.68	44.7	3.67	44.5
스포츠 경기 관람	4.67	61.2	4.5	58.3	3.78	46.3	3.71	45.2
지역축제관람	4.5	58.3	4.41	56.8	4.14	52.3	3.95	49.2
문화관련창작참여	3.89	48.2	3.73	45.5	3.54	42.3	3.5	41.7
스포츠동호회참여	4.03	50.5	3.91	48.5	3.82	47.0	3.68	44.7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63	43.8	3.73	45.5	3.57	42.8	3.56	42.7
역사유적지 방문	3.96	49.3	3.86	47.7	3.87	47.8	3.74	45.7
자연관광지여행	5.07	67.8	4.8	63.3	4.69	61.5	4.26	54.3
맛집탐방	5.29	71.5	5.17	69.5	4.79	63.2	4.44	57.3

- 문화/여가 활동 선호도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결과, 역사유적지방문, 지역축제 관람, 문화관련동호회참여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없지만, 그 밖의 다른 문화/여가 활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 스포츠경기관람과 스포츠동호회참여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그 외의 다른 문화/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화/여가 활동

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음

-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스포츠경기관람, 스포츠동호회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남녀 모두 영화관람, 지역축제, 자연관광, 맛집탐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 외에 다른 문화/여가 생활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따라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주로 선호하는 문화/여가 생활을 확인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표 III-43>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 : 성별 차이

구분	선호도				만족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시회 관람	3.81	46.9	4.42	57.0	3.62	43.7	3.57	42.8
박물관관람	3.65	44.2	4.24	54.0	3.63	43.8	3.50	41.6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3.69	44.8	4.50	58.4	3.45	40.9	3.47	41.1
연극공연 관람	4.10	51.6	5.08	67.9	3.44	40.7	3.53	42.2
전통예술공연관람	3.59	43.2	4.04	50.6	3.57	42.8	3.55	42.5
영화관람	5.40	73.3	5.68	77.9	4.66	61.0	4.62	60.3
대중공연	4.72	62.0	5.24	70.6	3.65	44.2	3.69	44.9
스포츠 경기 관람	4.85	64.1	4.27	54.5	3.88	48.0	3.59	43.1
지역축제관람	4.43	57.1	4.48	58.0	4.04	50.7	4.02	50.3
문화관련창작참여	3.69	44.8	3.92	48.7	3.58	43.1	3.44	40.7
스포츠동호회참여	4.35	55.9	3.53	42.2	3.97	49.5	3.49	41.6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70	44.9	3.68	44.7	3.63	43.8	3.50	41.7
역사유적지 방문	3.86	47.7	3.95	49.1	3.84	47.3	3.75	45.9
자연관광지여행	4.75	62.5	5.10	68.3	4.46	57.7	4.42	57.0
맛집탐방	5.05	67.5	5.40	73.3	4.59	59.9	4.58	59.7

- 문화/여가 활동 선호도에 대한 연령별차이 분석 결과, 대체로 만25-29세의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의 청년들에 비해 박물관관람, 연극관람, 전통예술, 문화관련창작참여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만30-34세와 만35-39세는 영화관람, 맛집탐방을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대체로 낮고, 만18-19세의 청년들은 연극관람, 대중공연, 맛집탐방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의 청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문화관련창작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전 연령대에서 대체로 낮지만, 만18-19세 청년들은 다른 연령대의 청년들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맛집탐방 역시 만18-19세의 청년들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44>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 : 연령별 차이

구분	선호도					만족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전시회 관람	4.15	4.16	4.27	3.95	4.01	3.80	3.45	3.63	3.68	3.56
박물관관람	3.70	3.92	4.27	3.72	3.95	3.75	3.42	3.67	3.54	3.57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08	4.09	4.37	3.89	3.98	3.66	3.38	3.54	3.50	3.34
연극공연 관람	4.65	4.58	4.90	4.46	4.32	3.80	3.41	3.54	3.44	3.42
전통예술공연관람	3.63	3.67	4.12	3.70	3.85	3.58	3.41	3.59	3.65	3.61
영화관람	5.54	5.79	5.65	5.45	5.24	4.86	4.75	4.62	4.46	4.59
대중공연	5.20	5.02	5.21	4.94	4.62	3.98	3.67	3.53	3.75	3.58
스포츠 경기 관람	4.62	4.47	4.80	4.54	4.49	3.93	3.66	3.67	3.80	3.74
지역축제관람	4.50	4.39	4.57	4.45	4.39	4.12	3.91	4.01	4.03	4.14
문화관련창작참여	3.86	3.83	4.06	3.62	3.68	3.89	3.42	3.50	3.54	3.43
스포츠동호회참여	4.15	3.84	3.92	3.92	4.07	3.98	3.62	3.61	3.72	3.88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80	3.62	3.84	3.67	3.61	3.76	3.51	3.54	3.58	3.54
역사유적지 방문	3.80	3.69	3.97	3.94	4.07	3.77	3.63	3.78	3.83	3.95
자연관광지여행	4.87	4.93	4.91	4.81	5.01	4.58	4.36	4.55	4.29	4.50
맛집탐방	5.59	5.44	5.28	5.08	4.90	4.91	4.62	4.70	4.40	4.47

■ 전라남도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 전남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 1순위는 청년문화공간마련(24.9%), 문화예술창작기금조성(17.4%), 청년문화축제 다양화(14.2%)의 순이며, 2순위는 청년문화축제 다양화(18.7%), 청년문화공간마련(17.5%), 문화관련정보공유활성화(14.1%)의 순으로 조사됨
 - 이는 전남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III-45>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적 방향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문화공간마련	249	24.9	175	17.5
청년문화예술창작기금조성	174	17.4	78	7.8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142	14.2	187	18.7
청년문화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107	10.7	141	14.1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100	10.0	122	12.2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82	8.2	106	10.6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78	7.8	71	7.1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60	6.0	100	10.0
기타	3	0.3	8	0.8
무응답	5	0.5	12	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3-5. 복지

■ 집의 소유에 대한 생각

- 내 명의의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평균 5.22점, 100점 환산 70.3점)하고 있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

하다(평균 4.15점, 100점 환산 52.5점)는 보통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지금의 집 값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30점(100점 환산 38.3점)으로 대체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6> 집의 소유에 대한 생각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내 명의의 집(자기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5.22	70.3	1.599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30	38.3	1.510
앞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15	52.5	1.636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7	49.5	1.766

- 집의 소유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군지역(평균 5.29점)이 시지역(평균 5.13점)이 더 높고, 여성(평균 5.13점) 보다는 남성(평균 5.31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 35~39세(평균 5.43점)가 가장 높고, 미혼(평균 5.10점)보다는 기혼(평균 5.55점) 응답자가 집의 소유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음
- 집값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균 3.30점으로 보통 이하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시지역(평균 3.19점), 남성보다는 여성(평균 3.19점)이, 연령대에서는 만25~29세(평균 3.14점), 기혼보다는 미혼(평균 3.27점)인 응답자가 동의의 정도가 더 낮음을 볼 수 있음
-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군 지역보다는 시지역(평균 4.18점), 여성보다는 남성(평균 4.32점), 연령대에서는 만 35~39세(평균 4.31점), 미혼보다는 기혼(평균 4.27점)인 응답자가 동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부모님의 도움 없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군지역보다는 시지역(평균 4.01점), 남성보다는 여성(평균 4.01점), 연령별로는 만25~29세(평균 4.14점), 기혼보다는 미혼(평균 4.02점)인 응답자가 동의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III-47> 집 소유에 대한 생각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혼인여부별 차이

구분	집소유의지	집값의 적정성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내집마련 가능		부모 도움 없이 내집마련 불가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별	시지역	평균	5.13	3.19	4.18	4.01	
		빈도	422	421	421	421	
		표준편차	1.535	1.472	1.607	1.733	
	군지역	평균	5.29	3.39	4.13	3.94	
		빈도	577	577	577	577	
		표준편차	1.643	1.533	1.658	1.79	
합계	평균	5.22	3.30	4.15	3.97		
	빈도	999	998	998	998		
	표준편차	1.599	1.51	1.636	1.766		
성별	남성	평균	5.31	3.41	4.32	3.93	
		빈도	520	520	519	519	
		표준편차	1.566	1.592	1.641	1.816	
	여성	평균	5.13	3.19	3.97	4.01	
		빈도	478	477	478	478	
		표준편차	1.63	1.409	1.615	1.711	
	합계	평균	5.23	3.30	4.15	3.97	
		빈도	998	997	997	997	
		표준편차	1.599	1.511	1.637	1.766	
	연령별	만18~19세	평균	5.06	3.66	4.18	3.94
			빈도	108	108	108	108
			표준편차	1.452	1.461	1.546	1.657
만20~24세		평균	5.21	3.25	4.24	3.87	
		빈도	247	247	247	247	
		표준편차	1.671	1.501	1.727	1.827	
만25~29세		평균	5.19	3.14	3.87	4.14	
		빈도	198	197	197	197	
		표준편차	1.616	1.495	1.684	1.772	
만30~34세		평균	5.12	3.25	4.10	4.04	
		빈도	204	204	204	204	
		표준편차	1.605	1.544	1.568	1.615	
만35~39세		평균	5.43	3.37	4.31	3.88	
		빈도	242	242	242	242	
		표준편차	1.561	1.506	1.578	1.864	
합계		평균	5.22	3.30	4.15	3.97	
		빈도	999	998	998	998	
		표준편차	1.599	1.510	1.636	1.766	
혼인여부	미혼	평균	5.10	3.27	4.11	4.02	
		빈도	725	724	724	724	
		표준편차	1.612	1.520	1.653	1.751	
	기혼	평균	5.55	3.37	4.27	3.83	
		빈도	269	269	269	269	
		표준편차	1.519	1.485	1.594	1.809	
	합계	평균	5.22	3.30	4.16	3.97	
		빈도	994	993	993	993	
		표준편차	1.600	1.510	1.638	1.768	

■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와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는 7점 만점에 모두 평균 5.60점(100점 환산 76.7점) 점 이상으로 전 항목에 대해 비교적 중요하다고 응답함
 - 주거지 결정 항목의 중요도는 치안과 안전(평균 5.83점, 100점 환산 80.5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절한 주거비(평균 5.81점, 100점 환산 80.2점), 실내거주환경(평균 5.69점, 100점 환산 78.2점), 편리한 교통(평균 5.67점, 100점 환산 77.8점),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평균 5.65점, 100점 환산 77.5점), 주변상업시설(평균 5.63점, 100점 환산 77.2점), 주변생활시설(평균 5.60점, 100점 환산 76.7점)의 순으로 응답함
-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14점~4.52점(100점 환산 52.3점~58.7점)으로 보통정도로 만족함
 -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치안과 안전(평균 4.52점, 100점 환산 58.7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내거주환경(평균 4.46점, 100점 환산 57.7점),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평균 4.43점, 100점 환산 57.2점), 주변상업시설(평균 4.34점, 100점 환산 55.7점), 편리한 교통(평균 4.27점, 100점 환산 54.5점), 적절한 주거비(평균 4.18점, 100점 환산 53.0점), 주변생활시설(평균 4.14점, 100점 환산 52.3점)의 순으로 응답함

<표 III-48>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구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67	77.8	1.267	4.27	54.5	1.514
적절한주거비	5.81	80.2	1.187	4.18	53.0	1.362
주변생활시설	5.60	76.7	1.257	4.14	52.3	1.373
주변상업시설	5.63	77.2	1.222	4.34	55.7	1.395
치안과 안전	5.83	80.5	1.272	4.52	58.7	1.392
실내거주환경	5.69	78.2	1.208	4.46	57.7	1.304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65	77.5	1.238	4.43	57.2	1.497

■ 현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 응답자의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는 부모소유의 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의 4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소유(17.4%), 월세(17.2%), 전세(13.8%), 기숙사(4.9%)의 순임
- 월 평균 부담 주거비용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6.4%로 가장 많고, 30만원 이상~50만원미만(18.8%), 10만원이상~20만원미만(15.4%), 20만원이상~30만원미만(14.9%)의 순으로 조사됨
 - 주거비용으로 10만원이상~50만원미만 지출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9.1%,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응답자는 8.7%임
 - 현재 부모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비용 부담도 청년이 직접 지출하기 보다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 가능함

<표 III-49> 현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구분	빈도	비율(%)
부모소유	449	44.9
자기소유	174	17.4
월세	172	17.2
전세	138	13.8
기숙사(사택포함)	49	4.9
기타	17	1.7
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표 III-50> 월평균 부담하는 주거비용

구분	빈도	비율(%)
없음	346	34.6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188	18.8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154	15.4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149	14.9
10만원 미만	73	7.3
50만원이상70만원미만	58	5.8
7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1	2.1
100만원이상	8	0.8
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

- 전남 청년 주거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44.0%),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임대기회 확대(29.3%),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 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13.0%)의 순이며, 2순위는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임대기회 확대(31.5%),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23.9%),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23.6%)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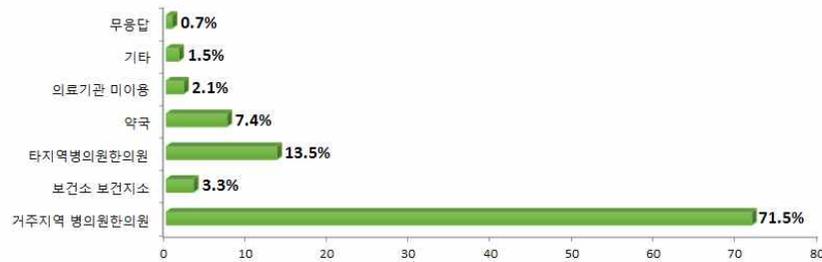
<표 III-51>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440	44.0	236	23.6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임대기회 확대	293	29.3	315	31.5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	130	13.0	239	23.9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128	12.8	172	17.2
기타	7	0.7	12	1.2
무응답	2	0.2	26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 응답자의 71.5%는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병의원 및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지역내 약국(7.4%), 보건소나 보건지소(3.3%)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82.2%가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I-5>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와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

-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38점~5.88점(100점 환산 73.0점~81.3점)으로 전 항목에 대해 비교적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의료시설의 청결성(평균 5.88점, 100점 환산 81.3점), 의료진의 능력(평균 5.83점, 100점 환산 80.5점), 의료시설의 안전성(평균 5.82점, 100점 환산 80.3점), 의료종사자의 친절함(평균 5.55점, 100점 환산 75.8점), 의료시설 접근성(평균 5.54점, 100점 환산 75.7점), 적절한 의료비(평균 5.48점, 100점 환산 74.7점), 첨단의료장비의 보유(평균 5.43점, 100점 환산 73.8점), 의료 및 건강정보 제공(평균 5.38점, 100점 환산 73.0점)의 순임
- 전라남도의 의료시설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3.89점~4.24점(100점 환산 48.2점~54.0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을 보여 중요도와 실제 만족도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라남도 의료시설의 항목별 만족도는 의료시설의 접근성(평균 4.24점, 100점 환산 54.0점), 적절한 의료비(평균 4.19점, 100점 환산 53.2점), 의료종사자의 친절함(평균 4.19점, 100점 환산 53.2점), 의료시설의 청결성(평균 4.15점, 100점 환산 52.5점), 의료시설의 안전성(평균 4.10점, 100점 환산 51.7점), 의료진의 능력(평균 3.97점, 100점 환산 49.5점), 첨단의료장비의 보유(평균 3.89점, 100점 환산 48.2점)의 순으로 응답함
 - 특히, 전라남도의 의료시설 항목 중 의료진의 능력과 첨단의료장비의 보유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만족으로 중요도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표 III-52>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및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 접근성	5.54	75.7	1.249	4.24	54.0	1.302
적절한 의료비	5.48	74.7	1.264	4.19	53.2	1.182
의료진의 능력	5.83	80.5	1.272	3.97	49.5	1.263
첨단의료장비보유	5.43	73.8	1.365	3.89	48.2	1.285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55	75.8	1.291	4.19	53.2	1.287
의료 및 건강정보 제공 정도	5.38	73.0	1.300	4.03	50.5	1.241
의료시설의 안전성	5.82	80.3	1.245	4.10	51.7	1.247
의료시설의 청결성	5.88	81.3	1.236	4.15	52.5	1.277

- 전남 의료시설 이용 항목 중 의료시설의 접근성에 대해 시지역(평균 4.04점)의 만족도가 평균 0.48점(100점 환산시 8.0점)의 차이를 보임
 - 의료진의 능력에 대해서는 시지역(평균 4.11점)이 군지역(평균 3.87점) 보다 높음
 - 첨단의료장비의 보유에 대해서는 시지역(평균 4.02점)과 군지역(평균 3.79점)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
 - 의료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지역(평균 4.29점)과 군지역(평균 3.96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연령별로도 만18~19세(평균 4.34점)와 만35~39세(평균 3.94점)으로 평균 0.40점(100점 환산시 6.7점)의 차이를 보임
 - 의료시설의 청결성에 대해서는 만18~19세(평균 4.36점)와 만35~39세(평균 3.96점)으로 연령별로 의료시설 청결성 만족도가 차이가 있음

<표 III-53> 전남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만족도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혼인여부별 차이

구분		의료 시설 접근성	적절한 의료비	의료진 능력	첨단 의료 장비 보유	의료 종사자 친절함	의료 건강 정보 제공	의료 시설 안전성	의료 시설 청결성		
지역별	시지역	평균	4.52	4.25	4.11	4.02	4.34	4.20	4.29	4.33	
		빈도	418	418	418	418	418	418	417	417	
		표준편차	1.237	1.180	1.254	1.193	1.266	1.229	1.185	1.303	
	군지역	평균	4.04	4.14	3.87	3.79	4.07	3.91	3.96	4.02	
		빈도	574	574	574	574	572	574	574	574	
		표준편차	1.312	1.181	1.262	1.341	1.290	1.236	1.273	1.243	
	합계	평균	4.24	4.19	3.97	3.89	4.19	4.03	4.10	4.15	
		빈도	992	992	992	992	990	992	991	991	
		표준편차	1.302	1.182	1.263	1.285	1.287	1.241	1.247	1.277	
	성별	남성	평균	4.22	4.16	4.00	3.97	4.27	4.07	4.15	4.24
			빈도	519	519	519	519	517	519	519	519
			표준편차	1.287	1.196	1.239	1.284	1.268	1.238	1.259	1.271
여성		평균	4.26	4.21	3.94	3.80	4.10	3.99	4.05	4.05	
		빈도	472	472	472	472	472	472	471	471	
		표준편차	1.319	1.167	1.290	1.283	1.303	1.245	1.233	1.279	
합계		평균	4.24	4.19	3.97	3.89	4.19	4.03	4.10	4.15	

연령별	만18~19세	빈도	991	991	991	991	989	991	990	990
		표준편차	1.302	1.182	1.263	1.286	1.287	1.242	1.247	1.278
	만20~24세	평균	4.43	4.29	4.07	3.94	4.35	4.24	4.34	4.36
		빈도	107	107	107	107	107	107	107	107
	만25~29세	표준편차	1.183	1.133	1.234	1.220	1.174	1.123	1.380	1.254
		평균	4.10	4.10	4.04	3.89	4.20	4.08	4.17	4.21
	만30~34세	빈도	246	246	246	246	246	246	246	246
		표준편차	1.301	1.199	1.236	1.252	1.347	1.254	1.173	1.231
	만35~39세	평균	4.30	4.21	3.98	3.98	4.24	4.08	4.13	4.13
		빈도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합계	표준편차	1.334	1.258	1.295	1.277	1.374	1.200	1.256	1.310
		평균	4.24	4.20	3.89	3.83	4.15	4.04	4.04	4.20
	미혼	빈도	203	203	203	203	202	203	202	202
		표준편차	1.329	1.203	1.258	1.333	1.168	1.279	1.255	1.298
	기혼	평균	4.26	4.20	3.90	3.83	4.09	3.84	3.94	3.96
		빈도	240	240	240	240	239	240	240	240
	합계	표준편차	1.300	1.105	1.283	1.318	1.293	1.262	1.229	1.275
		평균	4.24	4.19	3.97	3.89	4.19	4.03	4.10	4.15
미혼	빈도	992	992	992	992	990	992	991	991	
	표준편차	1.302	1.182	1.263	1.285	1.287	1.241	1.247	1.277	
기혼	평균	4.22	4.17	3.99	3.89	4.21	4.08	4.16	4.21	
	빈도	722	722	722	722	721	722	721	721	
합계	표준편차	1.295	1.193	1.239	1.256	1.311	1.231	1.242	1.265	
	평균	4.29	4.23	3.91	3.88	4.13	3.90	3.92	4.00	
미혼	빈도	266	266	266	266	265	266	266	266	
	표준편차	1.321	1.151	1.322	1.367	1.221	1.267	1.245	1.291	
기혼	평균	4.24	4.19	3.97	3.89	4.18	4.03	4.10	4.15	
	빈도	988	988	988	988	986	988	987	987	
합계	표준편차	1.301	1.181	1.261	1.286	1.287	1.243	1.247	1.275	

II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

-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4.56점(100점 환산 59.3점)과 4.47점(100점 환산 57.8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전남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평균 4.44점(100점 환산 57.3점)과 4.38점(100점 환산 56.3점)의 보통 이상의 동의를 보이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55점(100점 환산 42.5점)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전남을 떠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전남도의 결혼과 출산 지원정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34점(100점 환산 39.0점)과 3.43점(100점 환산 40.5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4>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6	59.3	1.761
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7	57.8	1.782
나는 여건이 된다면 다자녀를 키우고 싶다	3.99	49.8	1.893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3.49	41.5	1.742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3.55	42.5	1.380
전라남도의 결혼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34	39.0	1.257
전라남도의 출산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43	40.5	1.282
결혼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44	57.3	1.604
출산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38	56.3	1.579

3-6. 경제

II 주된 수입원

- 응답자의 주된 수입원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소득(67.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돈 등 부모님의 지원(18.2%), 남편 등 가족의 지원(7.0%), 사업소득 6.1%의 순으로 응답함
 - 취업 혹은 창업을 통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4%임

<표 III-55> 주된 수입원

구분	빈도	비율(%)
근로소득(아르바이트포함)	673	67.3
부모지원(용돈)	182	18.2
남편 등 가족의 지원(부모제외)	70	7.0
사업소득	61	6.1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4	0.4
금융소득(부동산 임대 소득포함)	1	0.1
기타	7	0.7
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II 현재의 소득 만족도와 희망소득 정도

- 응답자의 현재 월소득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보통정도로 만족하고 있음
- 현재 월평균 개인 지출액은 평균 100만원 전도이며,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은 평균 316만원으로 조사됨

<표 III-56> 주된 수입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현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	3.93	1.247
월평균 개인지출액 (단위:만원)	100.73	79.638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단위:만원)	316.6	231.006

■ 지출순위

- 응답자의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 1순위는 외식비 등 식비(52.9%), 주거비(9.6%), 쇼핑(5.4%), 교육비(4.7%), 교통비(4.6%)의 순이고, 2순위는 식비(13.4%), 쇼핑(12.9%), 교통비(11.5%), 통신비(10.4%), 문화/여가활동비(9.9%), 3순위는 식비(13.4%), 쇼핑(12.9%), 교통비(11.5%), 통신비(10.4%)의 순으로 조사됨
- 전남 청년들의 식비 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데에는 부모님과과의 거주가 많아 주거비 등에 대한 지출이 적고, 자녀가 없는 미혼 응답자가 많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도 적기 때문인 동시에 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출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식비 지출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표 III-57> 지출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529	52.9	197	19.7	134	13.4
주거비	96	9.6	67	6.7	45	4.5
쇼핑	54	5.4	90	9.0	129	12.9
교육비	47	4.7	70	7.0	29	2.9
교통비	46	4.6	112	11.2	115	11.5
부채상환비	44	4.4	26	2.6	14	1.4
의복비	35	3.5	98	9.8	81	8.1
문화여가활동비	34	3.4	96	9.6	99	9.9
주류비	33	3.3	66	6.6	47	4.7
통신비	23	2.3	73	7.3	104	10.4
기타잡비	20	2.0	16	1.6	58	5.8
담배 등 기호식품소비	19	1.9	50	5.0	80	8.0
보건의료비	9	0.9	14	1.4	12	1.2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8	0.8	10	1.0	21	2.1
이미용비	3	0.3	15	1.5	24	2.4
무응답	0	0	0	0	8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부채여부와 주된 부채항목

-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3.4%임
-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된 부채 항목을 물어본 결과, 1순위는 제1금융권 신용대출(25.1%),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24.3%), 부동산 담보대출(19.8%)의 순이며, 2순위는 부모 및 지인(26.9%), 마이너스통장(17.8%), 제1금융권 신용대출(14.4%)의 순으로 조사됨

<표 III-58> 부채여부

구분	빈도	비율(%)
없음	655	65.5
있음	334	33.4
무응답	11	1.1
합계	1000	100.0

<표 III-59> 주된 부채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84	25.1	30	14.4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81	24.3	14	6.7
부동산(담보대출)	66	19.8	24	11.5
부모 및 지인	25	7.5	56	26.9
제2,3 금융권대출	24	7.2	16	7.7
약관대출(보험, 증권)	23	6.9	21	10.1
마이너스통장	23	6.9	37	17.8
기타	8	2.4	10	4.8
합계	334	100.0	208	100.0

■ 주된 부채 사유와 규모, 상환계획

-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주된 부채 사유는 부동산대출(38.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자금대출(26.6%), 생활비(15.1%)의 순임
-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부채규모는 평균 3천600만원(최소 20만원, 최대 5억원)
-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부채상환계획은 평균 6년(최소 1년, 최대 30년)

<표 III-60> 주된 부채 사유

구분	빈도	비율(%)
부동산관련대출	130	38.5
학자금대출	90	26.6
생활비	51	15.1
창업자금(취업준비금 포함)	24	7.1
고가제품구매(자동차, 명품 등)	17	5.0
부모님 경제력 악화	14	4.1
의료비	2	0.6
기타	10	3.0
합계	338	100

<표 III-61>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만원)	20	50000	3634.22	5636.906
부채상환계획(년)	1	30	6	5.859

■ 전남 청년의 부채 관련 필요 정책

- 전남 청년의 부채 관련 필요 정책 1순위는 대출이자지원(45.5%), 청년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24.4%),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 지원(12.3%)의 순이고, 2순위는 청년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33.4%),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20.7%),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19.2%)의 순으로 조사됨

- 청년의 부채 상환과정에서 이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고, 향후 부채상환이나 금융설계를 위한 컨설팅,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62> 전남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학자금포함)	455	45.5	155	15.5
청년대상저금리대출상품개발	244	24.4	334	33.4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123	12.3	207	20.7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87	8.7	192	19.2
기타	6	0.6	9	0.9
무응답	85	8.5	103	1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제4절 전라남도의 청년정책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과 전남의 청년관련 사업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 전남의 대표 슬로건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인지도는 7점 만점에 평균 2.08점(100점 환산 18.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임
- 현재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12대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점 만점에 평균 2.26점~31.8점(100점 환산 21.0점~31.8점), 참여도 역시 평균 2.05점~2.28점(100점 환산 17.5점~21.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보임
 - 반면, 12개 사업 모두 향후 정책적 중요도는 평균 4.38점~64.3점(100점 환산 56.3점~64.3점)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보통이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사업별로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 운영의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3>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인지도	2.08	18.0	1.614

<표 III-64> 전남 청년관련 사업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구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과정지원	2.60	26.7	1.749	2.22	20.3	1.576	4.71	61.8	1.543
전남형청년인턴제	2.55	25.8	1.684	2.17	19.5	1.500	4.75	62.5	1.545
청년마을로프로젝트	2.33	22.2	1.605	2.05	17.5	1.425	4.55	59.2	1.520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38	23.0	1.627	2.06	17.7	1.455	4.56	59.3	1.551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47	24.5	1.682	2.22	20.3	1.553	4.70	61.7	1.533
에너지신산업SW융합클러스터조성	2.26	21.0	1.549	2.09	18.2	1.451	4.45	57.5	1.462
청년햇플레이스조성	2.47	24.5	1.659	2.21	20.2	1.557	4.60	60.0	1.533
청년관광기획자양성	2.26	21.0	1.572	2.09	18.2	1.484	4.47	57.8	1.549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29	21.5	1.561	2.08	18.0	1.459	4.38	56.3	1.515
여성농어업인행복마우치 지원	2.60	26.7	1.830	2.15	19.2	1.563	4.58	59.7	1.58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61	26.8	1.889	2.17	19.5	1.585	4.74	62.3	1.590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2.91	31.8	1.969	2.28	21.3	1.663	4.86	64.3	1.615

■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

-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지원혜택의 정도(평균 5.28점, 100점 환산 71.3점), 참여 경력 인정 및 활용 정도(평균 5.12점, 100점 환산 68.7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평균 5.01점, 100점 환산 66.8점)의 순으로 응답함

<표 III-6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지원혜택의 정도	5.28	71.3	1.425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 정도	5.12	68.7	1.449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정도	5.01	66.8	1.386
지원자격조건	4.93	65.5	1.452
정보취득의 용이성	4.90	65.0	1.448
신청방법의 용이성	4.87	64.5	1.440
주변의 지원사례	4.82	63.7	1.423

■ 전남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 전남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평균 2.45점, 100점 환산 24.2점) 있거나 참여한 경험(평균 2.40점, 100점 환산 23.3점)도 적으며, 활용도(평균 2.33점, 100점 환산 22.2점) 역시 낮지만 향후 청년지원프로그램의 확대(평균 4.37점, 100점 환산 56.2점)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동의를 보임
 - 한편, 현재 청년단체 활동 여부(평균 2.27점, 100점 환산 21.2점)와 향후 활동 의향(평균 2.92점, 100점 환산 32.0점)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66>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

구분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2.45	24.2	1.388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40	23.3	1.491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65	27.5	1.465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2.33	22.2	1.427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22	37.0	1.592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2.93	32.2	1.497
나는 전라남도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7	56.2	1.864
나는 전라남도 청년단체(청년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27	21.2	1.490
나는 향후 전라남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2.92	32.0	1.697

■ 향후 전남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앞으로 전라남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를 묻는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67>과 같음
 -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및 자격정보 제공을 전문화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아울러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도, 창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농어촌 청년 창업 지원과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내에 기술전문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인하, 등록금 지원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
 -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비롯해 청년문화공간 조성, 문화공연, 문화인력양성, 문화 동아리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복지 분야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공공주택보급 확대, 의료시설 확대, 대중교통 노선 확대, 육아지원 강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충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확대 이외에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정책, 장학금 제도 확대, 청년 소비 문화 등의 개선을 위한 경제교육 도입, 사회초년생 대상 정착 보조금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 욕구조사 확대 및 정례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정책 도입, 외부에서 전남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과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해 높은 전남이나 지방소멸과 같은 이미지는 개선하고 젊은 전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III-67> 전남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청년창업 지원 및 육성 강화 - 청년 창업 지도 및 창업환경 조성, 창업 설명회 개최 - 취업정보 및 자격정보 제공 전문화, -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취업알선 -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임금인상, 초과수당 지급 등 - 자영업자 지원 확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전문대학 등 교육시설 확충 - 교육의 질 향상 - 교육비 지원, 대학 등록금 인하 및 지원 - 교양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평생교육, 체험, 예절교육 등)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시설 확충 - 청년문화공간 확충 - 문화공연, 문화인력양성, 동아리 지원 확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의료시설 확충 - 대중교통 노선 확대 - 육아지원 강화 - 청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충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확대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방안 마련 - 청년 소비 문화 및 경제교육 - 사회초년생 대상 정착 보조금 제도 도입 -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지원정책 홍보 강화 -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지원조건 완화, 참여기회 확대 등) - 정책 욕구조사 확대 및 정례화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정책 도입 - 청년이주(외부에서 전남으로 이주하는 청년 대상) 지원금 및 프로그램 확대 - 젊은 전남에 대한 홍보로 이미지 개선

제5절 향후 전남 거주방향

■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

- 앞으로도 계속 전남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응답자(반드시 계속거주+여건만된다면 계속거주)는 전체의 48.4%이고,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 응답자(기회가 되는 떠날 것+반드시 떠날 것)는 전체의 28.4%임

<표 III-68>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417	41.7
보통이다	228	22.8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224	22.4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67	6.7
반드시 떠날 것이다	60	6.0
무응답	4	0.4
합계	1000	100.0

■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 전남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응답자 484명을 대상으로 계속 전남에서 거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주거환경만족(42.8%), 일자리만족(33.1%)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됨
 - 기타의견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삶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음, 자연환경에 만족, 일자리를 바꾸기가 힘들, 타지역에는 아는 사람들 없음 등이 있었음

<표 III-69>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주거환경 만족	207	42.8
현재의 일자리 만족	160	33.1
현재 문화여가생활 만족	30	6.2
현재의 자녀교육환경만족	18	3.7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8	1.7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0	0.0
기타	58	12.0
무응답	3	0.6
합계	484	100.0

■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

- 전남을 떠나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 284명을 대상으로 전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더 나은 일자리(46.48%),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25.35%), 더 나은 자녀교육환경(10.21%)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됨
 - 기타의견으로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전남이 답답한 이미지가 있어서 등이 있음

<표 III-70>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더 나은 일자리	132	46.5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72	25.4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	29	10.2
더 나은 주거환경	24	8.5
더 나은 복지혜택	13	4.6
더 나은 의료혜택	2	0.7
기타	7	2.5
무응답	5	1.8
합계	284	100.0

■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

-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37.8%임

<표 III-71>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다	387	37.8
없다	596	59.6
무응답	17	1.7
합계	1000	100.0

-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이주계획 시기를 물어본 결과 향후 1~3년 이내 46.4%, 5년 이내 77.4%, 10년 이내는 98.2%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I-72> 이주계획 시기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향후1년이내	62	16.0	16.0
향후2년이내	59	15.2	31.2
향후3년이내	59	15.2	46.4
향후4년이내	12	3.1	49.5
향후5년이내	108	27.9	77.4
향후6년이내	6	1.6	79.0
향후7년이내	7	1.8	80.8
향후8년이내	1	0.3	81.1
향후10년이내	66	17.1	98.2
향후12년이내	7	1.8	100.0
합계	387	100	

제6절 실태조사 시사점

■ 전남 청년의 성장과 거주

- 응답자의 대부분이 출생시, 혹은 3세 미만부터 전남에서 거주한 반면, 20세 이후부터는 응답자의 15.2%만이 전남에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고, 대학진학 등 학업으로 인해 잠깐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청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전남에 머무르거나 떠나고 싶은 이유와도 연계되어 일자리가 보장되고, 주거환경(교육, 문화/여가 여건)이 나아진다면 전남으로 돌아오는 청년 수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남 청년의 삶의 만족도

- 전남 청년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3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지만, 지역별로(시지역 평균 4.73점, 군지역 평균 4.55점),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이 느끼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차이는 향후 거주조건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전남의 군 지역의 교육환경, 문화/여가 여건 등의 개선으로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함

■ 전남 청년의 일자리 여건

- 현재 전남에서 취업 혹은 창업상태의 일하고 있는 청년은 전남의 일자리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4.64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전남의 일자리 상황을 평가하는 항목중 근로복지여건(평균 4.14점), 근로수준(평균 4.10점), 임금수준(평균 4.03점)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취창업정보, 취창업교육, 취창업기회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82점, 평균 3.79점, 평균 3.78점으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표시함
- 이는 실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지만, 취업준비생, 혹은 창업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

나 교육 등을 받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이에 대한 확대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자리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급여수준이나 신분보장 못지않게 본인의 적성, 직장의 분위기, 퇴근시간,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을 묻는 질문과도 연계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고용이 보장되고,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일에 있어 성취감이 보장된다면 청년들의 지원이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아울러 전남의 일자리 정책의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유치나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에서 30~39세 응답자가 전남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30.4%), 산업단지 등 비즈니스 공간 조성(8.5%)라고 응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남 청년의 교육환경

-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는 7점 만점에 5.37점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이지만, 실제 전남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2점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격차기 큼을 보여줌
- 특히, 만족도가 낮은 교육기회와 접근성, 교육관련 정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계서판 활용 확대 등 지역사회적 노력적 노력의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전남 청년의 문화/여가환경

- 전남 청년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실제 문화/여가생활에 지출되는 비용도 1인 평균 월 21만원정도로 적지 않음
- 그러나 군지역 청년의 경우 시지역보다 문화/여가생활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복지 보편화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

- 특히 영화관람의 경우, '2017년 전남 사회조사'결과에서도 청년의 여가활동 중 1회 이상 참여한 비율이 84.9%로 가장 높은 콘텐츠이며, 이번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에서도 선호도와 만족도가 동시에 높은 문화/여가활동이므로 군지역의 작은영화관 확대 설치 등이 청년의 문화/여가환경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전남 청년의 복지 여건

-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평균 5.22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를 하지만, 현재의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30점으로 보통 이하의 동의를 함
- 아울러 전남 청년의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거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 보급, 전세금 및 보증금의 대출기준 완화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전남의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38점~5.88점으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이지만, 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의료시설 만족도가 낮은 데에는 접근성과 의료진의 능력, 첨단장비보유, 의료시설 안전성 등 의료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전남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4.56점과 4.47점의 보통 이상의 긍정적 동의를 하고 있어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전남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평균 4.44점과 4.38점의 보통 이상의 긍정적 동의를 보여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전남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현 전남의 결혼지원정책이나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34점과 3.43점의 보통 이하의 동의를 하고 있어 현행 결혼과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전남 청년의 경제 여건

- 응답자의 주된 수입원으로는 근로소득이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월소득액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평균 3.93점의 보통 수준의 만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외식비 등 식비(52.9%)인데, 이는 30~39세 연령의 생활비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36.4%로 가장 높다는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의 결과와 유사
- 또한 부채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긴 하나,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의 부채 규모가 평균 3천 600만원정도이고, 주된 부채 사유는 부동산대출과 학자금대출이 주를 이룸
- 따라서 거주 안정성과 동시에 거주비 부담, 부동산대출에 의한 부채 절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청년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남의 청년정책

- 민선 6기 대표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대한 인지도가 7점 만점에 평균 2.0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함
- 또한 현재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 대상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향후 중요도에 대해서는 평균 4.61점으로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이 요구됨

IV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IV장.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집단심층면접조사 진행 개요

1. 집단심층면접(FGI) 조사개요

-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집단심층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은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나 인식을 토론방식을 통해 참가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이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재확인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귀농귀촌청년, 유턴청년과 주부, 창업 및 직장인 등 4개 그룹의 각 그룹별 상황에 따른 인식의 차이, 각 그룹별 토론 과정에서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해 추진함

2. 집단심층면접(FGI) 추진절차

- 본 연구에서의 집단심층면접조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귀농귀촌청년, 유턴청년 및 주부, 창업 및 직장인 등 4개로 구성된 그룹별 심층면접을 추진함
- 각 집단에서 참여자 수의 2배수를 표집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참여의사와 일정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7명을 대상으로 다음의 <표 IV-1>과 같이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표 IV-1>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위한 집단심층면접 개요

구분	대상	참석자수	일시	장소
A그룹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6명	2018.3.13.(화) 17시~20시	순천대학교 일원
B그룹	귀농귀촌청년	5명	2018.3.16.(금) 12시~13시30분	남평읍 일원
C그룹	유턴청년 및 주부	3명	2018.3.16.(금) 15시~18시	영광읍 일원
D그룹	창업 및 직장인	3명	2018.3.23.(금) 10시~1시	남악리 일원

3. 집단심층면접(FGI) 조사내용 및 방법

- 각 그룹별로 진행된 집단심층면접은 참가자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각 그룹별 특성에 맞는 질문과 공통질문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짐
- 각 그룹별 면접조사는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각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토론 순서는 자유롭게 이루어짐
- 각 그룹별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는 녹취와 전사를 통해 정리함

제2절 집단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룹

■ 참여자

구분	성명	성별	나이	고향
A-1	박00	여	22세	여수
A-2	정00	남	25세	목포
A-3	한00	남	24세	순천
A-4	고00	남	25세	순천
A-5	강00	여	24세	여수
A-6	이00	여	22세	목포

■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저는 제 삶에 65%정도 만족해요. 취업걱정 때문에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해요. (A-1)”

“저는 99%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취업이 걱정이긴하지만, 비교적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지방대학에 한계를 많이 느꼈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봐도 지방대학출신들의 취업이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영향이 크고요. (A-2)”

“저도 95%정도는 만족해요. 저는 현재에 만족하고, 오늘을 즐기자는 쪽이거든요... (A-4)”

“저도 90%정도?? 저도 마찬가지로 취직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그보다 더 취직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6)”

“저는 70%? 80%?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도 취업 문제 때문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중당하고 지금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바라시지만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A-5)”

“저같은 경우는 한 80%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삶에 있어서 목표성정과정취,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취업준비나 인턴십 준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배나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A-3)”

■ 대학생살

“학교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하구요. 학교의 창업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인턴십에 참여했는데, 창업지원단 활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이나 해티캠프 같은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려고 창업지원단 활동에 참여를 하는거죠. (A-1)”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저를 많이 물어주시는 편이에요. 대학진학을 할때도 부모님보다는 제가 원하는대로 선택한 편이구요. 경영학라를 다니고 있어서 공모전에 도전도 하고, 채용설명회도 가보고, 토익공부도 하고, 학습동아리에서는 후배들한테 멘토역할도 했어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는 학교내에 있는 취업동아리나 인력개발원, 창업지원단 같은데서 주관하는 지원하는 인턴십도 준비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턴십을 하려는 이유는 경험도 쌓고 해티캠프에도 참여하고 싶어서예요. 해티캠프 프로그램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그게 아마도 학생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A-2)”

“개인으로 프로그램 신청하는 것보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참여하면 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얻어요, 그런데 창업동아리 진입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해야 할 것들이 많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단체활동이니까 학생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A-6)”

“저희 학교는 해티지원 프로그램이 장되어 있는 편이에요.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시는건 별로 안당지 않고 주변에 친구나 선배들의 얘기가 가장 도움이 되죠. (A-6)”

“오히려 저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탈퇴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거

든요. 또 창업에 뜻을 두지 않으면 활동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5) ”
 “저도 창업 동아리,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많이 참여했는데, 적성에 맞지도 않고 커리어에도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인력개발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직업박람회 같은데서 많이 체험하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면 좋겠어요. (♯-3) ”

■ 취업과 창업

“저는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창업아이템으로 4차산업혁명과 결합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진짜 굵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육에 직업체험이나 컨설팅 같은 내용을 정규과목으로 넣어서 미리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자기 굵을 찾아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4) ”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한국의 창업지원단과 비슷하지만 실질적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찾아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매우 도움이 되어 보였어요. (♯-4) ”

“학교 내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창업한 토크들이 있어요. 카페타수제맥주상표 관련된 창업이었어요. 그런 사례를 보면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 ”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소외일까요? 저는 법조인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로스쿨과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면 근무지가 지방이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해요. 그걸려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구요. (♯-3) ”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데,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썩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 삶을 포기하는게 싫어서 공무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는 주로 학교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있고, 인턴십은 사냥인이나 양밭몬에서 찾고 있어요. 도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이나 인턴십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는 아예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요. (♯-2) ”

“그런데 학교홈페이지는 갱신이 너무 늦어요. 학교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

“저는 고향인 여수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집세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5) ”

■ 문화/여가생활

“주로 하는 문화/여가생활은 게임인 것 같아요. 영화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주로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구요. 공연에도 관심은 많은데, 지방에는 좋은 공연이 자주 없으니까 주로 광주나 여수에 가서 관람하는 편이에요. 공연장 시설을 좀 늘리고 콘텐츠의 질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4) ”

“저도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을 좋아하는데 지방보다 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서울에 가서 경험했는데 확실히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3) ”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하거나, 직접 연극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학교체육관 같은 체육시설을 공유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이가 너무 심해서 주로 서울에 가서 보게 되요. (♯-6) ”

“저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애완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가입자는 552명이에요. 전국적 커뮤니티라 정보를 하기는 어려워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때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같은 지역축제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어요. 지역축제가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보고 먹고 즐기는 축제보다는 유접의 토크축제처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

■ 청년을 위한 공간 조성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만든 시설이 아니면 좋겠어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녹음에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주변에는 연극이나 악기연주, 녹음 같은 것을 할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요. 서울은 스튜디오 사용료가 시간당 2~3만원이라서 기회가 많은데 지방은 거의 없죠. 문화시설 같은 곳에서 청년을 위해서 다양한 녹음이나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

면 좋겠어요. (A-2) ”

“저도 보컬트레이닝 같은 것을 받고 싶는데, 그럴만한 기회가 없어요. 학생이어서 강사초빙은 비용 때문에 꺾고 못꾸요. 문화센터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한 공간에서 강사를 초빙해주는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강사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3) ”

“저는 청년들이 운동할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크요. 헬스, 베드민턴, 탁구, 농구, 스쿼시, 트렉 등이 갖춰진 운동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내 체육관 시설, 학교 강당 등을 개방하여 공동으로 이용할다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어요. (A-1) ”

“근처의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공유하면서, 1회에 5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4) ”

■ 결혼과 자녀출산

“저희 가족은 굉장히 한목한 편이에요. 부모님을 보면서 한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A-5) ”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출산을 꺼리지도 않고요. 노상문제 때문에 결혼을 빨리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서 결혼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준비를 연두에 두고 있어요. (A-6) ”

“저는 비혼주의예요. 이유는 경제적 문제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출산후에 보육시설도 불안하고요. (A-2) ”

“저도 결혼을 희망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에 대한 부담때문이에요. 주변에 취업이나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선배들을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에 부담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A-3) ”

“저는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족에게서 받는 행복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육아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갓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구요. (A-4) ”

“성인이 되기 전에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긍정적이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 실제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대해 부담이 있어서 결혼을 늦추고 싶은 생각

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한 친척이 있는데 독박육아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A-1) ”

■ 청년단체 활동

“저는 다양한 단체 활동에 관심 있어요. 기회가 되면 참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청년단체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몰라요. (A-3) ”

“저는 그냥 취미활동을 하는 동아리 활동은 좋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청년단체 활동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후배들한테 멘토가 되는 사회참여활동이면 좋을 것 같아요. (A-2) ”

“저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은 하고 싶어요. 푸트뱅크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A-4) ”

■ 전남 청년 정책

“전남 청년을 위한 행사나 정책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안하는 게 문제죠. (A-6) ”

“맞아요.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장려를 하려고 현금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인 현금 지원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A-1) ”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는 출산을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일자리 확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A-2) ”

“서울시에서 청년통장 지원하잖아요. 그런 지원이 많아지면 청년들이 목돈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베이비시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육아에 대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출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5) ”

“교육의 질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그 차이를 좁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여가생활을 다양하게 누리고 싶은데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을 높여서 정보적인 교류가 많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4) ”

■ 향후 희망 거주지

“저는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예요. 집값이나 거주환경이 가장 큰 이유예요. (A-6)”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대체로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충청도 정도에 거주하면 좋겠어요. 서울하교의 접근성도 좋고, 고향에 내려오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A-2)”

“저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문화/여가 시설이 많지 않으면 고향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예요. (A-1)”

2. 귀농귀촌 청년 그룹(B그룹)

■ 참여자

구분	성명	성별	나이	혼인여부	자녀유무
B-1	조00	남	35세	기혼	2명(4세, 5세)
B-2	김00	남	37세	기혼	2명(2세, 4세)
B-3	김00	남	35세	기혼	1명(3세)
B-4	김00	남	34세	미혼	-
B-5	박00	남	35세	기혼	1명(3세)

■ 귀농·귀촌 계기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남평에서 통학했어요. 부모님 농사를 돕고 싶어서 20대 중반에 수원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다시 진학했어요.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잠시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시 남평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B-1)”

“저도 고향이 남평인데, 20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다니는 3년 동안 잠시 고향을 떠났다가 졸업후 돌아와 10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B-2)”

“오히려 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계속 남평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님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B-4)”

■ 현재 삶의 만족도

“60%정도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만족하는 데 장기간 쉬 수가 없어서 쉼이 듭니다. 농사일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가기가 어렵죠. 작물이 있든 없든 매일 관리를 해야하고, 가까운 이웃들도 바쁘고, 조작하는 방법도 다 달라서 남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어려워서요. (B-2)”

“저는 40%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업체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문화/여가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B-4)”

■ 현재 소득 만족도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여유롭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B-1)”

“지금 하고 있는 농사일은 생활비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아내가 은행을 다니면서 딸벌이를 하고 있어서 사정이 좋은 편이죠. (B-3)”

“저는 부모님께 매달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더 벌면 좋겠지만 부모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B-5)”

■ 자녀양육과 교육의 만족도

“저희 아이들은 현재 남평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 집이라 시설이나 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B-1)”

“저같은 경우에는 2살, 4살 아이가 있는데 현재는 괜찮은데, 이후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광주쪽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B-2)”

“지금 현재 나주혁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기가 없어서 현재는 가정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광주에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5)”

■ 문화/여가생활 측면의 만족도

“여가시간은 거의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데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업체류 농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아이들이랑 가까운 마트를 가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B-1) ”

“저는 그나마 과수농사를 짓고 있어서 시간이 나면 헬스나 축구같은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 있는 동물원이나 가까운 학순에 고인돌 공원을 가기도 하고, 뽕에는 벚꽃구경도 가요. (B-3) ”

“저도 업체휴 농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빼기 어려운데, 시간이 나면 에듀이양 집앞 놀이터나 마트를 주로 가고요, 가끔 여수 아쿠아리움이나 부산으로 놀러가기도 해요. (B-2) ”

“사실 일하고 나면 몸이 쉼 있어서 다른 여가생활은 따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여가생활보다는 가끔 모인하면서 수다떠는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B-5) ”

■ 의료시설 이용 측면의 만족도

“아이들이 아플 때는 가까운 혁신도시나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만, 제가 아플 때는 그냥 남평읍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는 것이 다예요. 아프더라도 농사일이 바빠서 쉴 수도 없고, 입원도 못해요. (B-2) ”

■ 귀농귀촌 정책 방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귀농하기가 수월했죠. 영농후계지원금이 최대 3억까지 지원되는데 대부분 땅을 사는데 쓰게 되요. 그런데 최근에 인근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규모 있게 농사를 지을만한 땅을 사는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B-3) ”

“저는 최근에 후계농자금을 신청했는데 되지 않겠지 모르겠어요. 나주시 전체에서 1년에 2명만 지원하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지원을 좀 더 확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값이 비싸졌는데도 여전히 지원자금은 동일해요. 대부분 지원금은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데 많이 쓰죠. 지역마다 땅값이 다른데도 낮고요. (B-5) ”

“사실 귀농귀촌 정책이 다른 지역 사람들을 시골로 이주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 이미 정착한 사람한테는 지원이 좀 덜해요. (B-2) ”

“시골에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5년 뒤엔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예요. 사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일 못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를 해주면 한국 청년들이 일하려 욕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할머니들 일당이 55000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높이면 농산물 출하가격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B-4) ”

“차라리 농촌에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근로자들을 육성해서 취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도 해결되고, 도시사람들이 농업관련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인력 사무소에서 근로자를 모집해서 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나서서 일할사람도 구해주고 하면 좋겠어요. (B-2) ”

“농업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협에서 교육이 자주 있긴 해요. 그런데 실제 일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기도 하고, 교육의 질도 그저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워낙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고 해서 청년 대상의 눈높이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요. 저같은 경우는 전대 농대에서 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육을 받아 봤는데 그건 좀 도움이 됐어요. (B-1) ”

■ 전남 청년 정책 방향

“시골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남평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대기자가 엄청나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늘리면 좋겠어요. (B-2) ”

“저는 근처에 애들이랑 갈 수 있는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키즈카페는 주변에 없고 가려면 광주로 가야하기도 하지만, 키즈카페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애들이 키즈카페에서 갇거나 장연 같은 병에 전염되서 온다고 하니 까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5) ”

3. 유턴청년 및 주부 그룹(C그룹)

■ 참여자

구분	성명	성별	나이	혼인여부	자녀유무
C-1	이00	여	36세	미혼	-
C-2	박00	남	37세	기혼	1명(1세)
C-3	김00	여	35세	기혼	1명(1세)

■ 유턴 계기

“ 대학은 대전에서 다녔고, 졸업 후에 서울에서 4년간 직장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집값 값당이 안터더라구요.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B-2) ”

“ 저도 대학진학 때문에 워지르 나갔고, 졸업후 가구회사에서 10년동안 일했어요. 일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틈틈이 돕다보니 농촌에서 희망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돕는 정도였는데, 여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청바등이 아니어서 결혼이나 출산, 보육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평생 직장을 찾았는데, 농업은 청년 여성에게 나쁘지 않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2년 전에 언니, 남동생까지 삼형제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B-1) ”

■ 유턴 준비와 정착

“ 부모님께서 국비상전을 하고 계셨고, 그 옆에서 송편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서울에서 미리 떡 만드는 것을 배워서 내려왔어요. 2011년에 내려와서 창업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창업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창업을 했어요. 저처럼 부모님 지원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착할 수 있지 않 부모지원이 없이 돌아오게 되면 주로 건설직이나 영랑 원전 협력업체 같은데 취직하게 되는데 직장선택의 폭이 좁아서 다시 떠나기도 해요. (B-2) ”

“ 저는 그전부터 이미 부모님 일을 돕다보니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내려와서는 식품가공이나 마케팅, 귀농귀촌청년 교육 같은 것을 받았

고, 지금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6차산업인증도 받았구요. 저희집은 3남매가 모두 같이 귀농했어요. 농업과 연계한 사업을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저는 주로 외부활동 등을 하면서 팜리를 넓히는 일을 하고, 언니는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남동생은 생산을 맡고 있어요. (B-1) ”

“ 저는 구체적인 계획 없는 귀농은 사실 반대해요. 지역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 일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후에 귀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B-2) ”

■ 현재 삶의 만족도

“ 65점 정도 만족해요, 주거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고, 시골이다보니 아무래도 공동체의 식이 강해서 이런저런 간섭에 대해서는 불만족이에요. (B-3) ”

“ 저는 도시생활보다 지금이 200%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문화생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에서의 삶을 후회할 정도예요. (B-1) ”

■ 문화/여가생활

“ 창업한 유턴청년들끼리의 모임이 있긴한데, 저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저랑은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수영동호회나 인문학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B-2) ”

“ 사실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 문화/여가생활을 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기 전에 서울에서 문화/여가 생활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은 문화/여가생활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B-1) ”

“ 최근에는 문화생활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작년에는 인문학강사 초빙 강연을 들을 기회도 있어서 좋았어요. 영랑군에서 청년문화지원사업으로 3개월간 300~400만원의 지원금을 주니까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3) ”

■ 자녀출산과 교육

“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결혼한 언니가 광주에

서 살다가 영광으로 돌아와 같이 살고 있는데 조카가 영광읍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조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 시간을 많이 뺏기는 편이에요. 출산과 양육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B-1) ”

“저는 직업에 따라서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양전 부분에서 애들을 키우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서 더 이상 출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B-3) ”

“막약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란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여기서 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촌에서 애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편이에요. (B-1) ”

■ 전남 청년 정책

“영광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살리기사업으로 창업지원금 2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 취업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 창업지원이 유식업이나 예술창작 분야에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 창업은 거의 힘들죠. (B-3) ”

“청년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창업을 한 사장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창업을 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할때말해도 위생시설을 갖추는 것만해도 상관없었는데, 최근에 HACCP 인증을 받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비용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공장을 짓고,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커서 불가능해요. 정책일관성이 부족한거죠. (B-2) ”

“전남은 농업정책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판로개척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까운 광주시장을 보고 있어서 구매율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빅히트 판로를 개척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광주에 있는 백화전에서 판매행사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매출이 좋지 않은데, 전남 농업에 대한 이리지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부산이나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호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이 많은데도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데에는 본인의 의욕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면 성취감이 더 클 것 같아요. (B-1) ”

4. 창업 및 직장인 그룹(D그룹)

■ 참여자

구분	성명	성별	나이	혼인여부	자녀유무
D-1	박00	남	39	미혼	-
D-2	정00	남	28	미혼	-
D-3	정00	남	36	기혼	-

■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의 삶에 80%정도 만족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스포츠용품점도 운영하고, 주식으로 수익금도 좀 내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학업이나 문화/여가생활도 누리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D-1) ”

“저도 80%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해서 5년 이상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졸업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편이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D-2) ”

“저는 70전정도?? 목포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이다 보니 뭐든 시작이 쉽다고 해야 할까요? 경쟁도 덜하고, 어느정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니까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도태되기도 쉽지만 지역 청년이라서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D-2) ”

■ 현재의 일과 창업지원교육

“원래 고향이 나주인데, 사업은 영암에서 시작했어요. 영암에 연고가 없다보니 처음에는 좀 어렵긴 했어요. 기존의 학원원장들이 견제도 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관련 교육도 받고 싶었는데, 업종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서울에서 학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일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창업자금도 그동안 모았던 것으로 스스로 해결했구요. (D-2) ”

“ 지금 쓰디짚을 하고 있는데, 전공과 관련해서 일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창업교육을 받고 싶기도 한데, 시간을 빼서 교육 받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120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지원금으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원금도 크지 않고요. (D-1) ”

“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창업교육을 받았고, 교육 수료후에 창업지원금을 받아서 주로 시설비에 투자했죠.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만족도는 더 높아요. 그런데 취업교육이 현장중심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저 줌 북이었어요. (D-3) ”

■ 경제적 상황

“ 저는 부모님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어요. 수입의 10%는 부모님 부채에, 7~8%는 제 부채를 갚고 있어요. 앞으로는 학자금대출은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 그 밖에 제가 가진 부채는 5년정도, 부모님 부채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환해야죠.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다보니 다양한 수익구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D-1) ”

“ 저도 학자금대출, 창업대출, 자동차 할부로 수입의 20~25%를 상환하고 있어요. 부채 자체가 부담이죠. (D-2) ”

“ 저도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보니 수입의 20%정도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상환해야 할 것 같아요. 학자금대출은 작년까지 모두 갚았어요. (D-3) ”

■ 청년단체 활동

“ 저는 전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청년정책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용진 SNS를 보고 취업이 된 사례도 있고요. (D-1) ”

“ 저도 자발적으로 청년단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원래 관심도 있었고, 도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알려줘서 신청했어요.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배우기도 하고, 관련 정보 등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알게 된 정보를 sns에 올려서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저는 청년의 목소리 2기부터 활동했는데, 1기에는 상호 대화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저희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게 눈에 보여서 보람을 느낍니다. (D-2) ”

“ 저는 사실 청년단체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청년의 목소리 1, 2기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1기에 비해서 2기는 확실히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났어요. 자발적인 참여 비율이 1기에는 10%였다면 2기에는 20%정도?? 이제는 청년단체 활동의 대표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D-3) ”

■ 결혼과 출산

“ 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하고 싶어요. (D-1) ”

“ 저는 결혼은 긍정인데, 출산은 부정적이에요. 최근에 누나가 출산을 해서 조카를 보육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더라구요. 육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둘째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누나는 프리랜서로 일을 서서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집에서 직장인만 종일밖에 맡길 수 있고, 프리랜서나 전업주부는 종일밖에 불가능해서 3시에는 무조건 데리러 가야하는 상황이에요. 종일밖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D-2) ”

“ 저는 결혼과 출산에 모두 긍정적이에요. 결혼 1년차인데, 아직 자녀는 없지만 다자녀를 희망하고 있어요. 타이프도 부정적이지 않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긴해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D-3) ”

■ 전남 청년 정책

“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청년기금조성이라고 생각해요.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4차산업 관련 기업 유치나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까지도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D-1) ”

“ 학자금대출은 취업을 하면 무조건 갚아나가는 것이 조건인데, 실제로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초년생이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자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 1:1 매칭통장을 확대해서 학자금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

고 청년문화공간은 사실 컨셉이나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다면 운영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들어가는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하고 싶어요. (D-3) ”

“ 희망통장을 청년사업가에게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소득이 높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많거든요. 소득분위를 조정해서 희망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2) ”

제3절 시사점

■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면접대상자들은 지역의 분위기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면접대상자들은 취업,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함
- 그리고 시간적 여유, 노동의 강도에도 영향을 받아서 문화/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는 면접자는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부모님, 선배, 지인 등과의 관계맺기와 그들의 지원과 믿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현재의 일과 관련 교육

- 대학생의 경우,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업을 위한 스펙과 경험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
 - 또한 취업과 창업준비를 하면서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며, 인턴십을 확대하고, 직업체험과 컨설팅을 정규 교과목화 하여 사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함
- 귀농귀촌 청년의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있긴 하지만, 실제 농사일을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임
- 창업교육 역시 다양하게 제공되고는 있지만, 실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실무와는 동떨어진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 교육후 지원금의 규모가 적어서 창업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즉, 교육의 양적확대는 물론 커리큘럼 등 질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경제적 여건과 부채

- 귀농귀촌청년의 경우, 수입이 넉넉하진 않아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고, 유

턴청년 역시 도시에서보다 수입과 현재의 일에 크게 만족하고 있음

- 이는 귀농귀촌이나 유턴을 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나 가족을 돕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고, 농촌에서의 생활이 도시보다 생활비 등 지출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켰기 때문임
- 그러나 학자금대출이나 지원금 등으로 인한 부채와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서 대출금 이자지원 및 경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특히,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대출금상환 유예기간을 주어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함
- 아울러 청년통장 지원의 대상 소득분위를 완화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함
 - 청년통장 지원 범위 역시 취업자만이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 청년에게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함

■ 문화/여가생활

- 대학생을 포함해 20대 청년은 대부분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관심이 있는 콘텐츠 역시 다양하나,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질 모두 불만족하고 있음
 - 그러나 취업, 창업, 귀농귀촌청년 등 일에 대한 피로감이 큰 경우에는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본인의 문화/여가생활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게 됨
- 이러한 결과는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데, 연령별, 지역별로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설이나 콘텐츠 역시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대부분의 심층면접 청년들은 체육시설과 이용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주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기본적인 문화, 체육시설은 제공하되, 지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청년을 위한 공간 조성

- 청년을 위한 공간은 단순히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꿈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원함
 - 또한 청년공간 조성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필요하고, 청년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거기에 단순한 취미활동 공간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 등을 통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이는 일반적인 관 주도 정책 실행이 아니라, 대상자의 참여와 니즈가 반영되어야만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 결혼과 출산 있어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실제 출산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함
 - 특히,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과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출산장려금보다는 육아와 보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함
 -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 청년단체 활동과 공동체 의식

-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는 싶지만, 어떤 경로로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실제 청년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면접자들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의 목적과 범위 등이 모호하다고 느낌
 - 따라서 청년단체 운영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의 방법도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단체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 청년자원봉사 활동 정보와 기관을 전남도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남 거주 여건과 향후 희망 거주지

-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집세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앞으로도 전남에서 거주를 희망함
 - 전남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턴청년의 경우에도 집값부담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집값이나 거주환경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집값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나 문화/여가 시설이 나아지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조건부 거주 의견도 있음
 - 자녀가 있는 면접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문제로 전남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함
- 유턴청년의 경우에도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일자리에 대한 선택이 폭이 좁아서 다시 떠나기도 함
- 따라서 전남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생활,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외부 청년의 전남 유입 방안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을 전남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농사기술을 제공하여 전문 농업근로자들로 육성하고, 농촌에 취농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실제 귀농해서 지역의 분위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떠나거나 지역과 융합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취농을 확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함
- 시군 자체적으로도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청년 유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나 이미 창업을 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때문에 기존 창업 청년에게는 확장의 기회를, 귀농귀촌 청년에게는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남의 청년 정책 방향

- 전남도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홍보가 부족해 기존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새로운 정책 개발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적극 홍보하여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전남 청년들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 창업 등 각종 정보를 얻는 것 자체에 소외감을 느낀다고 함
 - 청년들은 주로 개인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함
 - 도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취창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는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따라서 전남도와 지자체는 SNS,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나 창구가 다양화 하는 한편, 도와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 전용 앱을 개발·활용한다거나, 자료의 업데이트, 홈페이지 접속과 이용의 편리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지원금 형태의 지원보다는 달성도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함
 - 1회성,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단순히 지원금만을 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음
 - 초기 지원금액을 낮추는 대신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취감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제언

제 V 장. 정책제언

정책제언 1 전남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삶의 질 평가시 일자리의 중요도가 가장 높으나, (재)취창업의 기회와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재)취창업정보를 얻는 방법이 주로 인터넷, 학교, 취업알선기관에 그치고 있음
 - 반면, 취업박람회에서 취창업정보를 얻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음
 - 이는 지역에서 취업박람회 자체를 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박람회 참여 기업의 규모, 취업연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아울러 전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90점(100점 환산시 31.7점)의 매우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임
 - 집단심층면접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정보 역시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함
- 따라서 전남 일자리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취업컨설팅,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등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례

- 고양시 ‘청년드림 JOB페스티벌’
 - 고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 총10회에 걸쳐 청년계층에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인 ‘청년드림 JOB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 채용면접과 진로탐색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청년특화 통합 일자리박람회로 고양시, 서울, 수도권의 중견, 외투, 우수강소 기업의 현장면접(현장면접존), 고양시 소재 국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채팁 제공(대기업공채상담존), 구직서류, NCS, 인적성 등 컨설팅 지원 및 모의면접(취업서포터존) 등을 운영함
 - 10회에 걸쳐 누적 참여인원 6만명으로 참여인원, 참여기업의 규모와 질적 측

면의 성장과 인지도가 제고됨

- 연중 구인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블로그(blog.naver.com/goyang_jobs)와 페이스북(facebook.com/goyanajob)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정책제언 2 전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 필요성

- 실태조사의 응답자들과 집단심층면접조사에서 전남 청년들은 전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유용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각각 평점 2.89점(100점 환산시 31.5점)과 3.29점(100점 환산시 38.2점)의 매우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임
 -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 중 참여경력의 인정과 활용성도에 대해 평균 5.12점(100점 환산시 68.7점)의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의 활용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 따라서 전남 청년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동시에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른바 전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발굴이 필요함
 -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을 포함하는 전남형 뉴딜일자리 발굴 및 추진
 - 특히,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공공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구직자에게는 업무경험과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유사 사례

-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란 청년구직자에게 일경험과 민간취업을 위한 전문기술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임
 - 2018년 서울시의 뉴딜일자리사업은 문화, 복지, 환경, 교육분야에서 250종류 일자리에 4700명을 선발할 계획임
 - 한편, 지난 2018.2.7.~2.9까지 3일간 개된 '2018년 뉴딜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시민일자리 설계사,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실내공간정보구조요원 등 221개 사업, 3100명에 대한 채용정보 안내와 현장접수가 진행되었고, 취업 전문 컨설팅(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처 등에 대한 1:1 상담), 기업공채 및 공공기관 취업전략에 대한 맞춤형 취업특강, 채용설명회 등을 제공함

• 익산시 '뉴딜일자리사업'

-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부터 익산에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을 시작함
- 2018년 익산시의 뉴딜일자리사업은 다음의 23개 사업이며,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5명을 선발할 계획임
 - * 익산시 뉴딜일자리사업 모집분야 : 뉴딜일자리 도우미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청년 SNS 마케터 양성,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인력양성, 보석박물관 학예전문인력 양성, 전국체전홍보인력 양성, 문화관광홍보 및 기획자 인력 양성,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도서관 자료 DB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인력양성, 유적전시관 학예전문인력 양성, 공연장 전문인력 및 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양성, 맞춤형 복지인력 양성, 어린이집 대체인력 교사 양성, 맞춤형 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농촌현장 활동가 육성, 청년농기계기술자 양성,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양성 등



모집분야	사업명	모집인원	모집기간	모집장소	연락처
문화	1.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2.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3.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4.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5.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6.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7.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8.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9.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0.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1.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2.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3.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4.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5.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6.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7.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8.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19.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20.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21.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22.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23. 문화유산	1명	2018. 2. 19	문화유산	061-5714

정책제언 3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창업 지원 확대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업유치,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이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일자리 선택시 급여수준 못지않게 본인의 적성, 안정적 신분보장, 직장의 분위기, 퇴근보장, 발전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실제로 유턴한 청년중에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면접자의 경우, 3형제 모두 만족하며 일하고 있고, 소득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회적경제는 ‘협력적이며,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기업이나 조직’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상품,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청년실업 해소의 돌파구로 접근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관련 교육제공 확대, 청년창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제반시설 지원 등을 통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유사 사례

- 구례군 ‘자연드림파크’
 -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우리나라 대표적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이 구례군과 손잡고 4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2014년 완공함
 - 현재 아이쿱 생협의 15개 협력회사가 친환경 재료로 만든 라면, 만두, 우유, 김치, 과자 등 식품 가공공장 17곳을 운영중이고, 유통란 선별시설, 전국 유통망과 연계되는 물류센터, 영화관, 숙박시설 등을 갖춰 운영중임
 - 521명의 정규직 직원 평균 연령 38세로 일자리 대부분을 20~30대 청년들이 채우고 있고, 직원 10명 중 8명은 지역출신으로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

아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음

- 자연드림파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젊은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았던 산부인과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아이쿱에서 구례군에 매년 의료비 2억원을 지원하여 2017년 군내에서 80명이 출산했고, 1200명이 넘는 지역 여성들이 진료, 검진, 건강교실을 이용함
- 괜찮은 일자리가 늘고, 문화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이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을뿐더러, 남원, 순천 등 인근 지역의 젊은이들까지 구례로 유입됨
 - * 구례군의 20대 인구가 2013년 2260명에서 2017년 2386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인구 역시 2013년 27,115명에서 2017년 27,525명으로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만든 일자리와 구례군 인구수 (단위: 명, 누적)



정책제언 4 진로교육의 정규교과목화 및 기업의 직업학교 설립 지원

■ 필요성

- 집단심층면접 조사를 위해 만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대학이나 중고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에 진로교육 관련 과목을 정규교과목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학력을 중시하고 있어 대학 졸업후에도 직업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직업체험이나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중학교 단계에서 일회적 이벤트성으로 진행던 진로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로교육의 수요자를 확장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는 미흡한 단계임
-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기 위해 직업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에너지관련 기업, 화학관련 기업 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지원

■ 유사 사례

- 송실대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과목 운영’
 - 송실대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어 진로관련 정규교과목을 개선, 운영하고, 이수자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대학생활과 진로탐색(1학년), 리더십과 진로계획(2학년), 진로와 직업선택(3학년), 취업과 경력개발(4학년)을 운영하고 있음

정책제언 5 아이돌봄 정책 확대를 위한 돌봄도우미 양성 확대

■ 필요성

-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은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무상으로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그러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사업을 돕는 등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증빙할 방법이 없는 경우,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거나 아픈 조부모를 돌보는 주부, 학교에 재학중인 학부모 등 전업주부이지만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등은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 집단심층면접을 위해 만났던 전남 청년의 누나 역시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없다보니 둘째 아이 출산마저 꺼리고 있다고 말함
-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보육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을 위한 자기기술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학부모의 사생활 침해 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확대를 통해 보육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돌봄도우미 양성 교육비 지원,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정책제언 6 아동 문화시설 확충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항목에 평균 3.93점(100점 환산 48.8점)의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교육여건이 아니라 아동의 문화/여가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
 - 집단심층면접 조사시 자녀가 있는 귀농귀촌청년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에 아이를 돌보지만, 주변에 키즈카페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도 부족해서 가까운 마트나 놀이터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등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동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의 어린이 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

■ 유사 사례

- 서울시
 - 서울상상나라는 교육과 전시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아동 문화시설임
 - * 교육프로그램 : 영유아요리학교, 영유아놀이학교, 가족요리교실, 예술교육, 표현놀이, 오감놀이, 창의과학,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구성됨
 - * 전시프로그램 : 특별전시, 기획전시, 상설전시(자연놀이, 예술놀이, 공간놀이, 신체놀이, 상상놀이, 문화놀이, 과학놀이, 감성놀이, 아기놀이터 등)를 운영중임
 - 서울시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 4195㎡ 규모의 대지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조성중에 있음. 2019년 완공 예정임

 <p>상설전시 감성놀이</p> <p>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시각을 기르고, 나와 다른 입장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p> <p>📍 지하 1층 감성놀이</p>	 <p>상설전시 아기놀이터</p> <p>커다란 정원으로 연출된 공간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또래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 활동을 즐기는 전시입니다.</p> <p>📍 2층 아기놀이터</p>	 <p>특별전시 생각변신놀이</p> <p>창의성에 어린이 인성 교육의 가치를 접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전시입니다.</p> <p>📍 순화전시</p>
 <p>심화교육 20~40개월 📍</p> <p>제9기 영유아요리학교</p> <p>엄마와 함께하는 감성터치 오감요리</p> <p>📍 지하 1층 요리놀이실</p> <p>🕒 오전 10시 20분 - 11시 10분(50분)</p> <p>💰 160,000원</p> <p>자세히 보기 → 신청마감</p>	 <p>심화교육 20개월~36개월 📍</p> <p>제10기 영유아놀이학교</p> <p>부모와 함께 놀이하며 성장해요</p> <p>📍 지하 1층 영유아놀이실</p> <p>🕒 (12회) 오전 10시20분~11시10분 (12회) 오전 11시30분~12시20분</p> <p>💰 240,000원</p> <p>자세히 보기 → 참가신청</p>	 <p>가족요리 4세 이상 📍</p> <p>도토리 전병</p> <p>술 속 다량주에 대해 알아보고 다량취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이용한 도토리 전병을 만들어 보세요.</p> <p>📍 지하 1층 요리놀이실</p> <p>🕒 3월 주말, 오후 2시</p> <p>💰 10,000원</p> <p>신청마감</p>
 <p>상설전시 예술놀이</p> <p>예술꽃목에서 예술의 매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놀이와 물玩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p> <p>📍 1층 예술놀이</p>	 <p>상설전시 공간놀이</p> <p>나와 세상, 빛과 그림자를 탐색하며 꿈꾸고 상상하는 모습을 눈 앞에 펼쳐보는 전시입니다.</p> <p>📍 1층 공간놀이</p>	 <p>상설전시 신체놀이</p> <p>우주탐험을 테마로 참가해 경기에 도전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규칙을 이해하며 협력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전시입니다</p> <p>📍 2층 신체놀이</p>

정책제언 7 청년문화공간조성 및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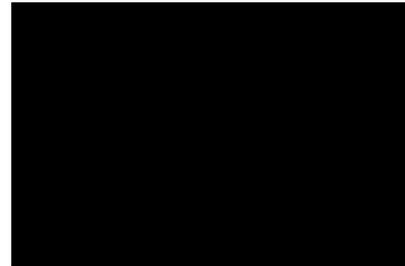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청년문화공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함께 지역사회의 각종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함
 - 그리고 집단심층면접 조사에서는 청년문화공간이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문화를 주체적으로 형성하고, 청년문화의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청년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공간조성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최소한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작은도서관과 작은영화관을 융복합한 문화공간 조성 등

■ 유사 사례

- 서울시 ‘무중력지대’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금천구, 2015년 4월 대방동에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를 개관함(2018년 하반기 개관예정인 성북을 포함해 2020년까지 8개소로 늘릴 계획)
 -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공유 공간사업을 하는 민간 청년기업이 위탁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루평균 213명의 청년들이 무중력지대를 찾고 있으며(2015년 하반기 기준), 기획초기부터 청년들이 직접 TF팀을 꾸려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직접 참여함
 - 공간의 개념은 카페, 공유사무실, 휴게실 등의 기능을 더한 청년 맞춤형 ‘다목적 공유 공간’으로, 공간 이용료가 무료이고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어서 대학생들의 조별과제나 취업준비를 진행할 수 있는 작업공간, 직장인들이 쪽잠을 잘 수 있는 온돌방,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유 부엌 등도 마련됨

어 있음



<무중력지대 공유부엌>
누구나 요리하고 나눌 수 있는 부엌



<무중력지대 커뮤니티존>
각종 행사와 공간 소식 제공



<무중력지대 상상시대>
만화카페처럼 웹툰, 만화책, 아트북 등 구비



<무중력지대 휴식시대>
휴식과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온돌방

- 광주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 2016년 11월 3일 개관한 광주 청소년 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이 삶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옛 학생회관(지하1층, 지상6층)을 리모델링한 공간임
 - 광주시가 지원하고 전남대학교와 광주YMCA가 하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인을 포함 총 1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삶디자인센터의 주요 공간은 청소년이 롤 모델을 만나 창의적 길찾기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교류 공간’, 자신이 만드는 물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작업 공간’, 미래일거리, 대안적 일거리, 틈새 일거리를 찾는 실험 공간, 청소년의 생활자립, 정신자립, 경제자립을 돕는 ‘지원 공간’ 등을 지향함
 - 이에 녹음스튜디오, 춤/무용 등의 연습공간, 다목적 강당, 밴드 연습공간, 디

자인 교육공간, 체험 등을 위한 워크룸, 활동지원실, 열린책방, 휴식을 위한 지혜로운방, 조별과제나 학습을 위한 공유책상, 25석 규모의 미니극장, 회의실, 살림공방, 모두의 부엌, 생활목곡방, 텃밭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공간을 운영중에 있음

- 공간에 따라 저렴한 대관료나 공간사용료, 엔지니어 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함



<녹음스튜디오>
악기연주, 보컬 등 녹음, 믹싱, 편집 공간



<몸짓작업장>
무용연습, 춤연습 공간



<합주실>
청소년 동아리, 밴드 연습공간



<열린책방>



<미니극장>



<모두의 부엌>

정책제언 8 전남 청년 재무 컨설팅 지원

■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내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것에는 매우 긍정(평균 5.22점, 100점 환산 70.3점)하고 있지만 지금의 집값수준은 적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주거지 결정항목 중 적절한 주거비의 중요도는 5.81점(100점 환산 80.2점)으로 매우 높지만, 적절한 주거비의 만족도는 평균 4.18점(100점 환산 53.0점)으로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함
 - 현재 부채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3.4%에 불과하나, 부채가 있는 응답자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대출(38.5%)이고, 부채 규모 역시 평균 3634천만원(최대 5억원)으로 내집마련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청년들은 부채와 관련한 정책으로 대출이자지원과 청년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 개발 외에도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남 청년들에게 내집마련, 학자금대출 등을 위한 재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제교육 등을 통해 전문적인 부채상환계획, 부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목돈마련이나 내집마련 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9 청년 거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남 이미지 개선

■ 필요성

- 실태조사시 전남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방형으로 묻는 질문에 높은 전남, 지방소멸과 같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는 청년들이 향후 전남에 거주할 것인지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침
 - 일본에서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폐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지방소멸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와 각종 매체 보도로 인해 지방에 계속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과 미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외부 청년들의 지역 유입을 위한 전남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한쪽에서는 지방소멸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지방을 위해 청년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인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부정적인 이미지는 쇠신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전남 이미지 메이킹 사업 도입·추진 필요

정책제언 10 전남 청년정책 전용 모바일 APP 개발

■ 필요성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이 전남의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정보획득의 용이성 등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임
 - 또한 민선 6기 대표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대한 인지도 역시 7점 만점에 평균 2.08점(100점 환산 18.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임
 - 집단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취창업 등 각종 정보를 얻는 것 자체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므로 관련 정책과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그리고 이미 청년을 위한 행사나 정책은 많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를 안하게 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
 - 즉, 청년정책의 인지와 활용, 참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 아울러 홍보수단 역시 많은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화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청년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보다는 SNS, 블로그 등의 방법이 더 편리하다는 의견임
 - 이는 전남 도정정보 습득 수단으로 전 연령 평균이 가장 높은 수단은 TV방송이지만, 청년연령이 포함된 15세~39세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습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2017년 전남 사회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따라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가장 적응과 활용이 빠른 청년들에게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남 청년정책 전용 APP 개발 및 SNS 홍보 강화 전략이 필요함

VI

실태조사 분석결과표

제1절 시군별 분석

<표 VI-1> 전남 거주 시작 연령*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3세	300	71.1	420	72.7
4~7세	12	2.8	16	2.8
8~11세	18	4.3	20	3.5
12~15세	9	2.1	16	2.8
16~19세	12	2.8	8	1.4
20~23세	35	8.3	28	4.8
24~27세	13	3.1	33	5.7
28~31세	7	1.7	25	4.3
32~36세	15	3.6	12	2.1
무응답	1	0.2	0	0.0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2> 전남 거주 시작 계기*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생	292	69.2	394	68.2
취업(발령)	47	11.1	83	14.4
창업	3	0.7	5	0.9
진학	38	9.0	32	5.5
결혼	10	2.4	28	4.8
부모이사	31	7.3	33	5.7
기타	1	0.2	3	0.5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3> 전남을 떠났던 연령*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1	2	2	1.92
4-7세	2	4	5	4.81
8-11세	3	7	7	6.73
12-15세	5	11	5	4.81
16-19세	2	4	11	10.58
20-23세	23	50	65	62.50
24-27세	9	20	5	4.81
28-31세	1	2	1	0.96
32-35세		0	2	1.92
36-39세		0	1	0.96
합계	46	100.0	104	100.0

<표 VI-4> 재거주연령*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	-	-	-
4-7세	-	-	-	-
8-11세	-	-	1	1.0
12-15세	2	4.8	2	1.9
16-19세	3	7.1	3	2.9
20-23세	8	19.0	17	16.5
24-27세	13	31.0	29	28.2
28-31세	10	23.8	28	27.2
32-35세	5	11.9	18	17.5
36-39세	1	2.4	5	4.9
합계	42	100.0	103	100.0

<표 VI-5> 계속거주 이유 및 재거주 이유*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발령)	42	40.8	70	47.6
창업	6	5.8	8	5.4
진학	37	35.9	25	17.0
결혼	15	14.6	34	23.1
부모이사	2	1.9	10	6.8
기타	1	1.0	0	0
합계	103	100.0	147	100.0

<표 VI-6> 전반적 삶의 만족도*시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군	시군평균	4.63
	시지역	4.73
	군지역	4.55
		1.181
		1.145
		1.202

<표 VI-7>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시군

구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자리	시지역	5.72	1.201
	군지역	5.59	1.282
	합계	5.65	1.249
경제	시지역	5.61	1.214
	군지역	5.49	1.276
	합계	5.54	1.251
문화/여가	시지역	5.59	1.223
	군지역	5.49	1.214
	합계	5.53	1.218
복지	시지역	5.52	1.245
	군지역	5.50	1.226
	합계	5.51	1.233
교육	시지역	5.30	1.231
	군지역	5.26	1.243
	합계	5.28	1.238

<표 VI-8> 삶의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시군

구분	시지역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비교
일자리	시지역	4.43	1.427	0.070	
	군지역	4.42	1.424	0.059	
	합계	4.42	1.425	0.045	
교육	시지역	4.45	1.239	0.061	F=10.679, p=.001
	군지역	4.19	1.216	0.051	
	합계	4.30	1.232	0.039	
복지	시지역	4.22	1.246	0.061	
	군지역	4.17	1.295	0.054	
	합계	4.19	1.274	0.041	
문화/여가	시지역	4.27	1.431	0.070	F=3.993, p=.046
	군지역	4.09	1.413	0.059	
	합계	4.16	1.423	0.045	
경제	시지역	4.17	1.374	0.068	
	군지역	4.09	1.321	0.055	
	합계	4.12	1.343	0.043	

<표 VI-10>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시	평균	표준편차
시군	시	4.58	1.343
	군	4.35	1.240
	합계	4.45	1.289

<표 VI-11> 경제활동 상태*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생	120	28.4	106	18.3
취업준비중	58	13.7	50	8.7
창업준비중	5	1.2	17	2.9
취업상태	192	45.5	293	50.7
창업상태	20	4.7	47	8.1
실업상태	3	0.7	7	1.2
무직	18	4.3	30	5.2
기타	4	0.9	21	3.6
무응답	2	0.5	7	1.2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12> 취업/창업 상태의 직장 만족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태	4.65	1.208	4.47	1.279
창업상태	5.10	.968	4.57	1.156
취/창업상태	4.67	1.178	4.41	1.279

<표 VI-13>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근로복지여건	5.85	1.125	2	5.71	1.216	2
근로수준	5.71	1.175	3	5.61	1.228	3
임금수준	5.91	1.134	1	5.82	1.255	1
(재)취업창업정보	4.92	1.344	5	5.01	1.368	5
(재)취업창업교육	4.85	1.356	6	5.00	1.370	6
(재)취업창업기회	4.98	1.374	4	5.11	1.404	4

<표 VI-14>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근로복지여건	4.23	1.266	1	4.08	1.305	1
근로수준	4.16	1.322	2	4.05	1.301	2
임금수준	4.09	1.355	3	3.98	1.316	3
(재)취업창업정보	3.87	1.210	4	3.78	1.138	4
(재)취업창업교육	3.82	1.260	5	3.77	1.127	5
(재)취업창업기회	3.81	1.292	6	3.77	1.166	5

<표 VI-15>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3.41	1.294	3.37	1.343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가 쉽다	3.40	1.319	3.29	1.351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3.22	1.328	3.16	1.292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3.52	1.297	3.38	1.279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3.45	1.342	3.34	1.334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0	1.497	4.12	1.492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3.40	1.324	3.36	1.349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다	2.84	1.382	2.95	1.356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2.82	1.569	2.94	1.503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27	1.407	3.31	1.468

<표 VI-16>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분위기 좋은 일자리	86	20.4	82	14.2
퇴근이 빠른 일자리	33	7.8	70	12.1
급여가 높은 일자리	79	18.7	126	21.8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39	9.2	63	10.9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4	.9	8	1.4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88	20.9	116	20.1
안정적 신분보장 일자리	89	21.1	105	18.2
기타	4	0.9	5	0.9
무응답	-	-	3	0.5
Total	422	100.0	578	100.0

<표 VI-17>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요건*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공	87	20.6	134	23.2
학벌	83	19.7	90	15.6
어학점수	11	2.6	20	3.5
수상경력	10	2.4	7	1.2
자격증	48	11.4	87	15.1
인성	91	21.6	125	21.6
외모	5	1.2	8	1.4
인턴등 사회경험	67	15.9	81	14.0
가족배경	5	1.2	10	1.7
기타	15	3.6	13	2.2
무응답	-	-	3	0.5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18>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90	21.3	39	9.2	90	15.6	34	5.9
부모 또는 지인	52	12.3	91	21.6	105	18.2	101	17.5
신문,TV등 언론매체	44	10.4	48	11.4	79	13.7	73	12.6
취업알선기관	70	16.6	55	13.0	95	16.4	109	18.9
인터넷	135	32.0	107	25.4	133	23.0	116	20.1
취업박람회	6	1.4	23	5.5	22	3.8	33	5.7
학원	1	0.2	4	0.9	3	0.5	7	1.2
현장실습/인턴십	11	2.6	20	4.7	19	3.3	33	5.7
헤드헌터	2	.5	4	0.9	1	0.2	1	0.2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10	2.4	25	5.9	28	4.8	52	9.0
기타	1	0.2					3	0.5
무응답			6	1.4	3	0.5	16	2.8
Total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19> 중소기업 취업의향*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70	64.0	352	60.9
아니오	151	35.8	222	38.4
무응답	1	0.2	4	0.7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2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11	7.3	25	11.3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18	11.9	33	14.9
고용 불안정	50	33.1	62	27.9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10	6.6	13	5.9
낮은 급여 수준	34	22.5	40	18.0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려움	0	0	6	2.7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음	15	9.9	30	13.5
기타	13	8.6	13	5.9
합계	151	100.0	222	100.0

<표 VI-21>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180	42.7	59	14.0	196	33.9	81	14.0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103	24.4	96	22.7	152	26.3	115	19.9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	39	9.2	66	15.6	57	9.9	90	15.6
귀농,귀촌,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13	3.1	28	6.6	57	9.9	89	15.4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확대	27	6.4	67	15.9	39	6.7	70	12.1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27	6.4	51	12.1	20	3.5	55	9.5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22	5.2	42	10.0	51	8.8	60	10.4
기타	6	1.4	0	0	1	0.2	8	1.4
무응답	5	1.2	13	3.1	5	0.9	10	1.7
합계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22> 자녀유무*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350	82.9	440	76.1
1명	35	8.3	54	9.3
2명	28	6.6	62	10.7
3명이상	8	1.9	18	3.1
무응답	1	0.2	4	0.7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23> 자녀의 취학상태*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정돌봄	9	9.9	32	16.8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19	20.9	55	28.8
유치원	22	24.2	40	20.9
초등학교	25	27.5	39	20.4
중학교	9	9.9	12	6.3
고등학교	5	5.5	6	3.1
기타	2	2.2	7	3.7
합계	91	100.0	191	100.0

<표 VI-24>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교육시설	5.36	1.235	3	5.58	1.274	3
교육비	5.29	1.267	4	5.44	1.277	5
교육의질	5.52	1.302	2	5.74	1.291	1
교육관련정보	5.23	1.302	5	5.48	1.313	4
교육기회와 접근성	5.55	1.333	1	5.68	1.275	2

<표 VI-25> 전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교육시설	4.13	1.080	2	3.96	1.177	2
교육비	4.15	1.208	1	3.99	1.200	1
교육의질	3.99	1.145	3	3.86	1.139	3
교육관련정보	3.94	1.148	4	3.75	1.165	4
교육기회와 접근성	3.88	1.265	5	3.73	1.239	5

<표 VI-26>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충분하다	4.21	1.191	4.03	1.177
전라남도는 교육시설(유치원 이상)이 충분하다	4.22	1.216	3.92	1.167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4.11	1.243	3.80	1.202
전라남도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58	1.261	4.37	1.269
전라남도의 교육비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4.20	1.248	4.15	1.218
전라남도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83	1.171	3.66	1.141
전라남도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85	1.169	3.68	1.109
나는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4.64	1.487	4.66	1.505

<표 VI-27>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육·교육기관	99	23.5	46	10.9	109	18.9	70	12.1
학부모 혹은 지인	83	19.7	120	28.4	150	26.0	142	24.6
신문, TV 등 언론매체	68	16.1	85	20.1	104	18.0	117	20.2
인터넷(포털, SNS 등)	145	34.4	103	24.4	173	29.9	145	25.1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13	3.1	26	6.2	18	3.1	21	3.6
학원	-	-	13	3.1	9	1.6	23	4.0
지자체 및 공공기관(교육청 등)	10	2.4	21	5.0	14	2.4	43	7.4
기타	2	0.5	-	-	1	0.2	11	1.9
무응답	2	0.5	8	1.9	-	-	6	1.0
합계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28> 문화/여가활동 빈도*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일	18	4.3	18	3.1
일주일에 2-3번	116	27.5	114	19.7
한달에 2-3번	162	38.4	243	42.0
한달에 1번	83	19.7	125	21.6
1년에 2-3번	34	8.1	58	10.0
기타	9	2.1	19	3.3
무응답	0	0	1	0.2
Total	422	100.0	578	100.0

<표 VI-29>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화/여가활동 본인지출비용(만원)	22.55	29.779	20.84	29.100
문화/여가활동 가족지출비용(만원)	50.46	69.185	45.65	70.463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율(%)	20.16	19.992	17.04	17.410

<표 VI-30>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시간의 여유	5.68	1.175	5.69	1.315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	5.26	1.319	5.32	1.329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5.39	1.262	5.41	1.262
문화콘텐츠의 수준	5.18	1.269	5.21	1.317
정보이용 가능성	4.84	1.304	5.02	1.287

<표 VI-31>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3.79	1.498	3.85	1.480
나는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	4.63	1.410	4.51	1.374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시설이 많다	3.58	1.353	3.41	1.245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다	3.32	1.345	3.32	1.218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 수준은 높다	3.36	1.287	3.40	1.259
전라남도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	3.43	1.329	3.39	1.261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	3.30	1.404	3.25	1.334
전라남도 여행지는 주말여행지로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4.33	1.489	4.05	1.387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	3.45	1.340	3.56	1.231
나는 나의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3.86	1.426	3.78	1.345

<표 VI-32>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시군

구분	시				군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4.20	1.614	3.63	1.386	4.03	1.699	3.57	1.227
박물관관람	3.97	1.616	3.55	1.289	3.91	1.601	3.58	1.177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17	1.721	3.45	1.375	4.01	1.686	3.47	1.325
연극공연 관람	4.73	1.713	3.40	1.456	4.44	1.717	3.55	1.363
전통예술공연관람	3.88	1.634	3.61	1.274	3.75	1.637	3.53	1.317
영화관람	5.62	1.325	4.94	1.398	5.46	1.500	4.42	1.599
대중공연	5.14	1.513	3.68	1.494	4.84	1.627	3.67	1.466
스포츠 경기 관람	4.67	1.657	3.78	1.506	4.50	1.719	3.71	1.475
지역축제관람	4.50	1.457	4.14	1.339	4.41	1.565	3.95	1.366
문화관련창작참여	3.89	1.538	3.54	1.252	3.73	1.547	3.50	1.274
스포츠동호회참여	4.03	1.675	3.82	1.356	3.91	1.680	3.68	1.384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63	1.498	3.57	1.293	3.73	1.553	3.56	1.271
역사유적지 방문	3.96	1.607	3.87	1.291	3.86	1.606	3.74	1.341
자연관광지여행	5.07	1.487	4.69	1.432	4.80	1.656	4.26	1.513
맛집탐방	5.29	1.576	4.79	1.611	5.17	1.638	4.44	1.538

<표 VI-33>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적 방향*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92	21.8	28	6.6	82	14.2	50	8.7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35	8.3	30	7.1	43	7.4	41	7.1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41	9.7	63	14.9	59	10.2	59	10.2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40	9.5	45	10.7	67	11.6	96	16.6
청년문화공간마련	95	22.5	68	16.1	154	26.6	107	18.5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24	5.7	36	8.5	36	6.2	64	11.1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41	9.7	56	13.3	41	7.1	50	8.7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50	11.8	88	20.9	92	15.9	99	17.1
기타	2	0.5	1	0.2	1	0.2	7	1.2
무응답	2	0.5	7	1.7	3	0.5	5	0.9
합계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34> 집 소유에 대한 생각*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 명의의 집(자기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5.13	1.537	5.29	1.641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18	1.476	3.39	1.529
앞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17	1.615	4.14	1.652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02	1.739	3.93	1.785

<표 VI-35>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시군

구분	시				군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62	1.184	4.47	1.453	5.71	1.325	4.13	1.544
적절한주거비	5.90	1.115	4.23	1.343	5.75	1.234	4.14	1.376
주변생활시설	5.50	1.231	4.36	1.287	5.68	1.272	3.97	1.411
주변상업시설	5.64	1.164	4.63	1.302	5.63	1.264	4.12	1.423
치안과 안전	5.89	1.204	4.77	1.348	5.78	1.318	4.33	1.396
실내거주환경	5.69	1.175	4.65	1.230	5.69	1.233	4.33	1.340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66	1.170	4.70	1.416	5.65	1.286	4.24	1.525

<표 VI-36> 현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도소유	187	44.3	262	45.3
자기소유	54	12.8	120	20.8
전세	65	15.4	73	12.6
월세	83	19.7	89	15.4
기숙사(사택포함)	24	5.7	25	4.3
기타	8	1.9	9	1.6
무응답	1	0.2	0	0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37> 월평균 부담하는 주거비용*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46	34.6	200	34.6
10만원 미만	30	7.1	43	7.4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56	13.3	98	17.0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59	14.0	90	15.6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91	21.6	97	16.8
50만원이상 70만원미만	29	6.9	29	5.0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8	1.9	13	2.2
100만원이상	1	0.2	7	1.2
무응답	2	0.5	1	0.2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38>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191	45.3	91	21.6	249	43.1	145	25.1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	62	14.7	103	24.4	68	11.8	136	23.5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50	11.8	77	18.2	78	13.5	95	16.4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 기회 확대	114	27.0	141	33.4	179	31.0	174	30.1
기타	4	0.9			3	0.5	12	2.1
무응답	1	0.2	10	2.4	1	0.2	16	2.8
합계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39>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주지역병·의원한의원	334	79.1	381	65.9
보건소, 보건지소	12	2.8	21	3.6
타지역병·의원, 한의원	23	5.5	112	19.4
약국	30	7.1	44	7.6
의료기관 미이용	13	3.1	8	1.4
기타	5	1.2	10	1.7
Total	5	1.2	2	0.3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40>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및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

구분	시				군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45	1.206	4.51	1.244	5.60	1.276	4.05	1.309
적절한의료비	5.42	1.234	4.26	1.177	5.52	1.284	4.13	1.183
의료진의 능력	5.81	1.265	4.10	1.263	5.85	1.278	3.87	1.256
첨단의료장비보유	5.32	1.348	4.03	1.194	5.50	1.373	3.79	1.340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53	1.286	4.35	1.271	5.57	1.296	4.07	1.287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32	1.262	4.20	1.230	5.43	1.326	3.91	1.235
의료시설의 안전성	5.79	1.225	4.29	1.184	5.83	1.261	3.96	1.273
의료시설의 청결성	5.88	1.219	4.32	1.313	5.88	1.249	4.02	1.237

<표 VI-41>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68	1.744	4.47	1.771
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8	1.800	4.46	1.770
나는 여건이 된다면 다자녀를 키우고 싶다	4.00	1.941	3.98	1.858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3.39	1.751	3.56	1.733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3.71	1.365	3.43	1.380
전라남도의 결혼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38	1.259	3.30	1.255
전라남도의 출산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44	1.272	3.41	1.291
결혼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51	1.519	4.39	1.662
출산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45	1.514	4.33	1.625

<표 VI-42> 주된 수입원*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소득 (아르바이트포함)	275	65.2	398	68.9
부모지원(용돈)	95	22.5	87	15.1
남편 등 가족의 지원 (부모제외)	25	5.9	45	7.8
사업소득	23	5.5	38	6.6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2	.5	2	.3
금융소득(부동산 임대 소득포함)	0	-	1	.2
기타	1	.2	6	1.0
무응답	1	.2	1	.2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43> 현재의 소득 만족도, 월평균 개인지출액 및 희망소득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	4.05	1.235	3.84	1.249
월평균 개인지출액 (단위:만원)	100.19	83.499	101.13	76.730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 (단위:만원)	305.75	187.956	324.59	258.040

<표 VI-44> 지출순위*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226	53.6	88	20.9	65	15.4	303	52.4	109	18.9	69	11.9
교육비	23	5.5	31	7.3	13	3.1	24	4.2	39	6.7	16	2.8
주류비	14	3.3	23	5.5	16	3.8	19	3.3	43	7.4	31	5.4
의복비	19	4.5	45	10.7	40	9.5	16	2.8	53	9.2	41	7.1
담배, 기호등 기호식품소비	6	1.4	15	3.6	32	7.6	13	2.2	35	6.1	48	8.3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6	1.4	6	1.4	12	2.8	2	0.3	4	0.7	9	1.6
교통비	19	4.5	50	11.8	52	12.3	27	4.7	62	10.7	63	10.9
이·미용비	1	.2	8	1.9	12	2.8	2	.3	7	1.2	12	2.1
주거비	46	10.9	28	6.6	19	4.5	50	8.7	39	6.7	26	4.5
쇼핑	18	4.3	31	7.3	50	11.8	36	6.2	59	10.2	79	13.7
보건의료비	4	.9	4	.9	4	.9	5	.9	10	1.7	8	1.4
부채상환비	16	3.8	18	4.3	5	1.2	28	4.8	8	1.4	9	1.6
통신비	6	1.4	26	6.2	39	9.2	17	2.9	47	8.1	65	11.2
문화/여가활동 비	11	2.6	41	9.7	40	9.5	23	4.0	55	9.5	59	10.2
기타 잡비	7	1.7	8	1.9	19	4.5	13	2.2	8	1.4	39	6.7
무응답					4	0.9					4	0.7
합계	422	100.0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45> 부채여부*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274	64.9	381	65.9
있음	144	34	190	33
무응답	4	.9	7	1.2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46> 주된 부채 항목*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31	21.53	9	10.34	53	27.89	21	17.36
제2, 3금융권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11	7.64	7	8.05	13	6.84	9	7.4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8	33.33	7	8.05	33	17.37	7	5.79
약관대출 (보험증권)	9	6.25	11	12.64	14	7.37	10	8.26
부동산(담보대출)	24	16.67	6	6.90	42	22.11	18	14.88
마이너스통장	8	5.56	17	19.54	15	7.89	20	16.53
부모 및 지인	10	6.94	26	29.89	15	7.89	30	24.79
기타	3	2.08	4	4.60	5	2.63	6	4.96
합계	144	100.00	87	100	190	100.00	121	100

<표 VI-47> 주된 부채 사유*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자금대출	48	33.3	42	22.1
부동산관련대출	55	38.2	67	35.3
창업자금 (취업준비금 포함)	10	6.9	16	8.4
생활비	16	11.1	37	19.5
의료비	1	.7	1	.5
부모님 경제력 악화	7	4.9	7	3.7
고가제품구매 (자동차, 명품 등)	5	3.5	12	6.3
기타	2	1.4	8	4.2
Total	144	100.0	190	100.0

<표 VI-48>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시군

(단위: 만원, 년)

구분	시				군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100	17000	2743.15	3053.690	20	50000	4258.47	6833.242
부채상환계획	1	30	5.10	4.979	1	30	6.61	6.331

<표 VI-49> 전남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시군

구분	시				군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 (학자금포함)	200	47.4	69	16.4	255	44.1	86	14.9
청년대상저금리대출 상품개발	107	25.4	144	34.1	137	23.7	190	32.9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54	12.8	99	23.5	69	11.9	108	18.7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5	5.9	70	16.6	62	10.7	122	21.1
기타	3	.7	2	.5	3	.5	7	1.2
무응답	33	7.8	38	9.0	52	9.0	65	11.2
합계	422	100.0	422	100.0	578	100.0	578	100.0

<표 VI-50>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1.86	1.479	2.25	1.689

<표 VI-51> 전남 청년관련 사업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시군

구분	시						군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산학협력창업매거지 과정지원	2.63	1.841	2.12	1.618	4.83	1.481	2.57	1.679	2.30	1.541	4.62	1.583
전남형청년인턴제	2.50	1.758	1.98	1.518	4.83	1.504	2.58	1.628	2.30	1.475	4.69	1.573
창조기술로프로젝트	2.13	1.567	1.82	1.349	4.51	1.492	2.47	1.618	2.22	1.456	4.57	1.541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19	1.584	1.82	1.379	4.58	1.495	2.51	1.645	2.23	1.487	4.54	1.593
대학장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2.35	1.743	2.01	1.538	4.80	1.466	2.55	1.632	2.38	1.547	4.62	1.577
에너지산업SW융합클러스터조성	2.08	1.584	1.92	1.446	4.61	1.417	2.39	1.512	2.22	1.442	4.33	1.485
창조플랫폼조성	2.31	1.653	1.98	1.508	4.62	1.533	2.59	1.655	2.37	1.572	4.59	1.533
창조관광기획자양성	2.05	1.508	1.87	1.426	4.47	1.555	2.42	1.600	2.26	1.506	4.46	1.547
2017문화기있는날	2.10	1.537	1.86	1.398	4.38	1.521	2.43	1.566	2.24	1.483	4.38	1.512
청년아이디어운영	2.11	1.606	1.86	1.413	4.49	1.519	2.95	1.900	2.36	1.634	4.64	1.624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11	1.606	1.86	1.413	4.49	1.519	2.95	1.900	2.36	1.634	4.64	1.624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24	1.764	1.95	1.540	4.71	1.527	2.87	1.934	2.33	1.599	4.76	1.635
청년향교마을통장 개설운영	2.77	2.033	2.04	1.599	4.94	1.542	3.01	1.917	2.45	1.688	4.80	1.666

<표 VI-52>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보취득의 용이성	5.05	1.423	4.79	1.457
신청방법의 용이성	5.02	1.400	4.75	1.459
지원자격조건	5.07	1.428	4.83	1.464
주변의지원사례	4.97	1.407	4.71	1.425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	5.21	1.359	4.87	1.389
지원혜택의 정도	5.49	1.372	5.13	1.445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정도	5.34	1.440	4.97	1.437

<표 VI-53>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2.28	1.392	2.58	1.373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21	1.508	2.54	1.46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56	1.550	2.70	1.398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2.08	1.394	2.52	1.425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13	1.617	3.28	1.572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2.84	1.504	3.00	1.489
나는 전라남도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60	1.848	4.19	1.858
나는 전라남도 청년단체(청년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	1.448	2.46	1.492
나는 향후 전라남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2.66	1.723	3.11	1.653

<표 VI-54>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23	5.5	44	7.6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173	41.0	244	42.2
보통이다	107	25.4	121	20.9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92	21.8	132	22.8
반드시 떠날 것이다	24	5.7	36	6.2
무응답	3	0.7	1	0.2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55>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의 일자리 만족	99	23.5	149	25.8
현재의 자녀교육환경만족	13	3.1	16	2.8
현재 문화여가생활 만족	29	6.9	22	3.8
현재 주거환경 만족	155	36.7	215	37.2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2	.5	5	.9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9	2.1	7	1.2
기타	63	14.9	61	10.6
무응답	52	12.3	103	17.8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56>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나은 일자리	177	41.9	194	33.6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	45	10.7	72	12.5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82	19.4	104	18.0
더 나은 주거환경	46	10.9	59	10.2
더 나은 의료혜택	3	.7	9	1.6
더 나은 복지혜택	16	3.8	31	5.4
기타	11	2.6	20	3.5
무응답	42	10.0	89	15.4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57>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시군

구분	시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54	36.5	224	38.8
없다	254	60.2	342	59.2
무응답	14	3.3	12	2.1
합계	422	100.0	578	100.0

<표 VI-58> 이주계획 시기*시군

구분	시		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상 이주 시기 (뺀년 이내)	4.41	3.229	4.98	3.868

제2절 권역별 분석

■ 전남 권역

- 광주근교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 서남권: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 중남부권: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표 VI-59> 전남 거주 시작 연령*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3세	183	70.9	238	69.8	208	75.6	91	72.2
4~7세	6	2.3	12	3.5	7	2.5	3	2.4
8~11세	13	5.0	16	4.7	3	1.1	6	4.8
12~15세	14	5.4	5	1.5	5	1.8	1	0.8
16~19세	6	2.3	5	1.5	7	2.5	2	1.6
20~23세	14	5.4	34	10.0	11	4.0	4	3.2
24~27세	11	4.3	16	4.7	12	4.4	7	5.6
28~31세	1	0.4	4	1.2	14	5.1	8	6.3
32~36세	5	1.9	10	2.9	8	2.9	4	3.2
무응답		0.0	1	0.3		0.0		0.0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60> 전남 거주 시작 계기*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생	171	66.3	228	66.9	199	72.4	88	69.8
취업(발령)	37	14.3	51	15.0	30	10.9	12	9.5
창업	5	1.9	2	.6	1	.4		
진학	16	6.2	30	8.8	16	5.8	8	6.3
결혼	8	3.1	4	1.2	17	6.2	9	7.1
부모이사	20	7.8	24	7.0	11	4.0	9	7.1
기타	1	.4	2	.6	1	.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61> 전남을 떠났던 연령*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2	4.5	1	1.9	0	0	0	0
4-7세	3	6.8	2	3.8	1	2.6	1	7.1
8-11세	3	6.8	4	7.5	2	5.1	1	7.1
12-15세	2	4.5	5	9.4	3	7.7	0	0
16-19세	2	4.5	6	11.3	5	12.8	0	0
20-23세	29	65.9	25	47.2	24	61.5	10	71.4
24-27세	2	4.5	8	15.1	4	10.3	0	0
28-31세	0	0	1	1.9	0	0	1	7.1
32-35세	0	0	1	1.9	0	0	1	7.1
36-39세	1	2.3	0	0	0	0	0	0
합계	44	100.0	53	100.0	39	100.0	14	100.0

<표 VI-62> 재거주연령*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0	0	0	0	0	0	0	0
4-7세	0	0	0	0	0	0	0	0
8-11세	1	2.4	0	0	0	0	0	0
12-15세	1	2.4	2	4.0	0	0	1	7.1
16-19세	1	2.4	3	6.0	2	5.1	0	0
20-23세	5	11.9	13	26.0	6	15.4	1	7.1
24-27세	12	28.6	15	30.0	15	38.5	0	0
28-31세	15	35.7	12	24.0	6	15.4	5	35.7
32-35세	6	14.3	3	6.0	10	25.6	4	28.6
36-39세	1	2.4	2	4.0	0	0	3	21.4
합계	42	100.0	50	100.0	39	100.0	14	100.0

<표 VI-63> 계속거주 이유 및 재거주 이유*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발령)	25	46.3	32	49.2	47	44.3	8	32.0
창업	1	1.9	2	3.1	9	8.5	2	8.0
진학	9	16.7	22	33.8	25	23.6	6	24.0
결혼	17	31.5	6	9.2	18	17.0	8	32.0
부모이사	2	3.7	2	3.1	7	6.6	1	4.0
기타	0	0	1	1.5	0	0	0	0
합계	54	100	65	100	106	100	25	100

<표 VI-64> 전반적 삶의 만족도*권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권역별	광주근교권	4.52
	동부권	4.78
	서남권	4.50
	중남부권	4.72

<표 VI-65>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권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광주근교권	5.60
	동부권	5.76
	서남권	5.43
	중남부권	5.93
경제	광주근교권	5.37
	동부권	5.32
	서남권	5.05
	중남부권	5.49
문화/여가	광주근교권	5.60
	동부권	5.65
	서남권	5.25
	중남부권	5.69
복지	광주근교권	5.56
	동부권	5.48
	서남권	5.39
	중남부권	5.74
교육	광주근교권	5.52
	동부권	5.56
	서남권	5.49
	중남부권	5.65

<표 VI-66> 삶의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권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광주근교권	4.34
	동부권	4.50
	서남권	4.31
	중남부권	4.61
경제	광주근교권	4.19
	동부권	4.50
	서남권	4.05
	중남부권	4.53
문화/여가	광주근교권	4.07
	동부권	4.25
	서남권	4.04
	중남부권	4.40
복지	광주근교권	4.16
	동부권	4.27
	서남권	4.05
	중남부권	4.38
교육	광주근교권	4.06
	동부권	4.16
	서남권	4.05
	중남부권	4.28

<표 VI-67> 행복한 삶의 중요 요건*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중요순위	빈도	비율(%)	중요순위	빈도	비율(%)	중요순위	빈도	비율(%)	중요순위
재산,경제력	67	26.0	2	77	22.6	2	72	26.2	2	24	19.0	2
화목한 가정	75	29.1	1	97	28.4	1	80	29.1	1	42	33.3	1
자아성취	30	11.6	4	29	8.5	5	24	8.7	5	12	9.5	4
건강	35	13.6	3	49	14.4	3	25	9.1	4	23	18.3	3
직업, 직장	12	4.7	7	22	6.5	6	30	10.9	3	8	6.3	5
대인관계	17	6.6	6	22	6.5	6	21	7.6	6	7	5.6	7
꿈,목표의식	21	8.1	5	41	12.0	4	20	7.3	7	8	6.3	5
기타	1	.4		2	0.6		2	0.7		2	1.6	
무응답				2	0.6		1	0.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68>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정도*권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광주근교권	4.31	1.402
동부권	4.63	1.266
서남권	4.28	1.198
중남부권	4.63	1.230
합계	4.45	1.289

<표 VI-69> 경제활동 상태*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생	42	16.3	92	27.0	64	23.3	28	22.2
취업준비중	33	12.8	33	9.7	35	12.7	7	5.6
창업준비중	6	2.3	4	1.2	6	2.2	6	4.8
취업상태	132	51.2	174	51.0	112	40.7	67	53.2
창업상태	18	7.0	17	5.0	27	9.8	5	4.0
실업상태	4	1.6	2	.6	2	.7	2	1.6
무직	14	5.4	12	3.5	18	6.5	4	3.2
기타	6	2.3	4	1.2	8	2.9	7	5.6
무응답	3	1.2	3	0.9	3	1.1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70> 취업/창업 상태의 직장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태	4.53	1.332	4.60	1.205	4.37	1.272	4.70	1.181
창업상태	4.61	1.378	5.18	1.131	4.37	.742	5.60	1.140

<표 VI-71>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로복지여건	5.80	1.192	5.95	1.087	5.43	1.249	5.99	1.084
근로수준	5.64	1.211	5.80	1.159	5.39	1.252	5.83	1.132
임금수준	5.91	1.194	5.98	1.126	5.56	1.309	6.09	1.088
(재)취업창업정보	5.02	1.365	4.97	1.362	4.80	1.325	5.25	1.366
(재)취업창업교육	5.04	1.304	4.94	1.405	4.73	1.350	5.17	1.369
(재)취업창업기회	5.15	1.364	5.09	1.375	4.82	1.407	5.27	1.411

<표 VI-72>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근로복지여건	4.04	1.398	4.26	1.219	3.97	1.223	4.42	1.329
근로수준	3.96	1.423	4.18	1.283	3.97	1.255	4.42	1.196
임금수준	3.85	1.427	4.14	1.300	3.96	1.314	4.23	1.214
(재)취업창업정보	3.75	1.239	3.83	1.139	3.86	1.153	3.83	1.144
(재)취업창업교육	3.74	1.231	3.81	1.178	3.81	1.173	3.79	1.141
(재)취업창업기회	3.74	1.239	3.83	1.172	3.80	1.276	3.74	1.188

<표 VI-72>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3.25	1.309	3.37	1.360	3.36	1.157	3.77	1.514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 쉽다	3.10	1.335	3.42	1.319	3.29	1.251	3.70	1.488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2.97	1.257	3.29	1.325	3.19	1.248	3.36	1.433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3.21	1.296	3.57	1.225	3.41	1.219	3.63	1.506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3.22	1.322	3.41	1.337	3.45	1.291	3.51	1.457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4	1.464	4.27	1.555	4.10	1.336	4.18	1.695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3.35	1.310	3.32	1.346	3.42	1.310	3.48	1.440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다	2.92	1.348	2.66	1.388	3.15	1.314	3.00	1.37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2.91	1.483	2.67	1.604	3.18	1.449	2.80	1.519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26	1.423	3.27	1.488	3.37	1.382	3.26	1.493

<표 VI-73>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분위기 좋은 일자리	33	12.8	69	20.2	47	17.1	19	15.1
퇴근이 빠른 일자리	43	16.7	24	7.0	29	10.5	7	5.6
급여가 높은 일자리	56	21.7	69	20.2	57	20.7	23	18.3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29	11.2	29	8.5	31	11.3	13	10.3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4	1.6	1	.3	6	2.2	1	0.8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41	15.9	78	22.9	51	18.5	34	27.0
안정적 신분보장 일자리	50	19.4	67	19.6	49	17.8	28	22.2
기타	2	0.8	4	1.2	3	1.1		
무응답					2	0.7	1	0.8
Total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74>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요건*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공	59	22.9	60	17.6	73	26.5	29	23.0
학벌	46	17.8	64	18.8	43	15.6	20	15.9
어학점수	7	2.7	10	2.9	8	2.9	6	4.8
수상경력	2	.8	6	1.8	5	1.8	4	3.2
자격증	27	10.5	41	12.0	43	15.6	24	19.0
인성	73	28.3	82	24.0	46	16.7	15	11.9
외모	3	1.2	2	.6	6	2.2	2	1.6
인턴등 사회경험	28	10.9	63	18.5	37	13.5	20	15.9
가족배경	6	2.3	2	.6	6	2.2	1	.8
기타	7	2.7	11	3.2	6	2.2	4	3.2
무응답					2	.7	1	.8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75>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34	13.2	9	3.5	72	21.1	33	9.7
부모 또는 지인	46	17.8	46	17.8	39	11.4	76	22.3
신문,TV등 언론매체	22	8.5	33	12.8	45	13.2	37	10.9
취업알선기관	51	19.8	56	21.7	55	16.1	44	12.9
인터넷	69	26.7	53	20.5	100	29.3	85	24.9
취업박람회	11	4.3	15	5.8	7	2.1	17	5.0
학원	1	.4	2	.8	2	.6	4	1.2
현장실습/인턴십	9	3.5	13	5.0	12	3.5	18	5.3
헤드헌터	2	.8	2	.8	8	2.3	2	.6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12	4.7	23	8.9	1	.3	17	5.0
기타								
무응답	1	.4	6	2.3			8	2.3
Total	258	100.0	258	100.0	341	100.0	341	100.0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51	18.5	21	7.6	23	18.3	10	7.9
부모 또는 지인	48	17.5	48	17.5	24	19.0	22	17.5
신문,TV등 언론매체	43	15.6	38	13.8	13	10.3	13	10.3
취업알선기관	43	15.6	42	15.3	16	12.7	22	17.5
인터넷	60	21.8	59	21.5	39	31.0	26	20.6
취업박람회	7	2.5	17	6.2	3	2.4	7	5.6
학원			4	1.5	1	.8	1	.8
현장실습/인턴십	9	3.3	14	5.1			8	6.3
헤드헌터			1	.4	1	.8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13	4.7	24	8.7	5	4.0	13	10.3
기타			3	1.1				
무응답	1	.4	4	1.5	1	.8	4	3.2
Total	275	100.0	275	100.0	126	100.0	126	100.0

<표 VI-76> 중소기업 취업의향*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47	57.0	216	63.3	183	66.5	76	60.3
아니오	109	42.2	125	36.7	91	33.1	48	38.1
무응답	2	.8			1	.4	2	1.6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77>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11	9.3	13	9.4	14	13.9	1	1.9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16	13.6	13	9.4	15	14.9	10	18.9
고용 불안정	30	25.4	47	33.8	38	37.6	11	20.8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8	6.8	5	3.6	6	5.9	4	7.5
낮은 급여 수준	28	23.7	41	29.5	9	8.9	14	26.4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려움	1	.8		.0	4	4.0	1	1.9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음	17	14.4	10	7.2	10	9.9	8	15.1
기타	7	5.9	10	7.2	5	5.0	4	7.5
합계	118	100.0	139	100.0	101	100.0	53	100.0

<표 VI-78>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98	38.0	32	12.4	148	43.4	47	13.8	95	34.5	32	11.6	35	27.8	29	23.0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포함 맞춤형 인력양성	68	26.4	64	24.8	91	26.7	72	21.1	64	23.3	52	18.9	32	25.4	23	18.3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틈새일자리 창출	24	9.3	43	16.7	29	8.5	56	16.4	30	10.9	42	15.3	13	10.3	15	11.9
귀농귀촌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17	6.6	29	11.2	10	2.9	34	10.0	29	10.5	35	12.7	14	11.1	19	15.1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확대	24	9.3	27	10.5	17	5.0	55	16.1	15	5.5	40	14.5	10	7.9	15	11.9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8	3.1	30	11.6	17	5.0	38	11.1	16	5.8	26	9.5	6	4.8	12	9.5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17	6.6	26	10.1	19	5.6	26	7.6	24	8.7	41	14.9	13	10.3	9	7.1
기타			3	1.2	6	1.8	1	.3	1	.4	3	1.1			1	.8
무응답	2	.8	4	1.6	4	1.2	12	3.5	1	.4	4	1.5	3	2.4	3	2.4
합계	258	100	258	100	341	100	341	100	275	100	275	100	126	100	126	100

<표 VI-79> 자녀유무*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211	81.8	283	83.0	207	75.3	89	70.6
1명	29	11.2	22	6.5	27	9.8	11	8.7
2명	15	5.8	24	7.0	32	11.6	19	15.1
3명 이상	3	1.2	11	3.2	8	2.9	4	3.2
무응답			1	.3	1	.4	3	2.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80> 자녀의 취학상태*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장돌봄	12	19.7	9	11.7	15	15	5	15.2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20	32.8	18	23.4	22	22	14	42.4
유치원	14	23.0	14	18.2	25	25	9	27.3
초등학교	12	19.7	22	28.6	23	23	7	21.2
중학교	1	1.6	7	9.1	9	9	4	12.1
고등학교	0	0.0	5	6.5	2	2	4	12.1
기타	2	3.3	2	2.6	4	4	12	36.4
합계	61	100	77	100	100	100	33	100

<표 VI-81>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설	5.63	1.237	5.47	1.303	5.47	1.303	5.69	1.223
교육비	5.43	1.307	5.36	1.304	5.36	1.304	5.53	1.224
교육의질	5.81	1.268	5.68	1.347	5.68	1.347	5.85	1.253
교육관련정보	5.51	1.312	5.32	1.337	5.32	1.337	5.47	1.325
교육기회와 접근성	5.75	1.294	5.60	1.350	5.60	1.350	5.71	1.326

<표 VI-82> 전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설	3.84	1.168	4.14	1.099	4.14	1.099	4.27	1.323
교육비	3.88	1.168	4.14	1.232	4.14	1.232	4.32	1.318
교육의질	3.80	1.194	3.96	1.117	3.96	1.117	4.16	1.148
교육관련정보	3.69	1.192	3.87	1.130	3.87	1.130	3.92	1.250
교육기회와 접근성	3.70	1.211	3.80	1.200	3.80	1.200	3.89	1.393

<표 VI-83>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충분하다	3.89	1.267	4.19	1.208	4.11	1.039	4.32	1.202
전라남도는 교육시설(유치원 이상)이 충분하다	3.91	1.221	4.14	1.203	4.02	1.157	4.14	1.196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3.83	1.237	4.07	1.245	3.81	1.175	3.98	1.251
전라남도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30	1.286	4.60	1.270	4.34	1.161	4.68	1.395
전라남도의 교육비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4.04	1.154	4.18	1.318	4.10	1.142	4.58	1.253
전라남도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64	1.078	3.69	1.114	3.84	1.221	3.82	1.264
전라남도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67	1.077	3.74	1.138	3.80	1.156	3.86	1.214
나는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4.51	1.469	4.66	1.559	4.66	1.388	4.90	1.590

<표 VI-84>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육·교육기관	48	18.6	27	10.5	80	23.5	36	10.6	57	20.7	36	13.1	23	18.3	17	13.5
학부모 혹은 지인	75	29.1	77	29.8	68	19.9	96	28.2	55	20.0	60	21.8	35	27.8	29	23.0
신문 TV 등 언론매체	38	14.7	43	16.7	67	19.6	72	21.1	48	17.5	60	21.8	19	15.1	27	21.4
인터넷(포털 SNS 등)	74	28.7	64	24.8	108	31.7	98	28.7	96	34.9	56	20.4	40	31.7	30	23.8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8	3.1	11	4.3	9	2.6	12	3.5	9	3.3	19	6.9	5	4.0	5	4.0
학원	4	1.6	12	4.7	1	.3	12	3.5	2	.7	6	2.2	2	1.6	6	4.8
지자체 및 공공기관(교육청 등)	9	3.5	18	7.0	6	1.8	9	2.6	7	2.5	27	9.8	2	1.6	10	7.9
기타	1	.4	1	.4	1	.3					10	3.6				
무응답	1	.4	5	1.9	1	.3	6	1.8	1	.4	1	.4			2	1.6
합계	258	100.0	258	100.0	341	100.0	341	100.0	275	100.0	275	100.0	126	100.0	126	100.0

<표 VI-85> 문화/여가활동 빈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일	9	3.5	14	4.1	11	4.0	2	1.6
일주일에 2-3번	58	22.5	92	27.0	53	19.3	27	21.4
한달에 2-3번	114	44.2	136	39.9	93	33.8	62	49.2
한달에 1번	55	21.3	68	19.9	60	21.8	25	19.8
1년에 2-3번	16	6.2	24	7.0	43	15.6	9	7.1
기타	6	2.3	7	2.1	14	5.1	1	.8
무응답					1	.4		
Total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86>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화/여가활동 본인지출비용(만원)	18.27	25.263	21.30	30.270	27.23	34.337	17.06	20.213
문화/여가활동 가족지출비용(만원)	37.89	42.840	43.12	65.241	67.91	92.717	38.56	68.156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율(%)	16.37	16.256	18.43	18.221	22.23	22.296	14.73	14.785

(단위: 만원, %)

<표 VI-87>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시간의 여유	5.81	1.222	5.84	1.180	5.18	1.338	6.12	.997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	5.36	1.290	5.39	1.358	4.96	1.311	5.63	1.193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5.52	1.226	5.48	1.263	4.95	1.258	5.93	1.014
문화콘텐츠의 수준	5.39	1.317	5.22	1.258	4.82	1.344	5.58	1.029
정보이용 가능성	5.14	1.263	4.84	1.272	4.71	1.345	5.31	1.197

<표 VI-88>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3.68	1.580	3.90	1.511	3.71	1.347	4.18	1.461
나는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	4.61	1.507	4.79	1.347	4.08	1.275	4.90	1.225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시설이 많다	3.41	1.254	3.59	1.322	3.44	1.272	3.41	1.340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다	3.21	1.250	3.34	1.312	3.41	1.277	3.30	1.195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 수준은 높다	3.34	1.248	3.36	1.274	3.41	1.319	3.48	1.205
전라남도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	3.31	1.280	3.37	1.257	3.47	1.332	3.56	1.293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	3.20	1.360	3.29	1.391	3.34	1.343	3.18	1.347
전라남도 여행지는 주말여행지로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3.97	1.432	4.54	1.480	3.81	1.246	4.36	1.467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	3.39	1.205	3.49	1.327	3.57	1.306	3.70	1.215
나는 나의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3.72	1.424	3.90	1.296	3.75	1.426	3.88	1.401

<표 VI-89>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4.31	1.740	3.49	1.335	4.12	1.618	3.50	1.337
박물관 관람	4.13	1.602	3.40	1.249	3.90	1.605	3.46	1.240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20	1.660	3.39	1.335	4.11	1.730	3.31	1.392
연극공연 관람	4.74	1.647	3.37	1.336	4.66	1.819	3.32	1.414
전통예술공연관람	3.87	1.662	3.39	1.293	3.67	1.644	3.52	1.300
영화관람	5.72	1.400	4.16	1.764	5.68	1.378	5.13	1.401
대중공연	5.08	1.518	3.45	1.410	5.16	1.546	3.66	1.538
스포츠 경기 관람	4.63	1.628	3.60	1.513	4.76	1.728	3.82	1.626
지역축제관람	4.38	1.587	3.82	1.387	4.55	1.529	4.13	1.438
문화관련창작참여	3.83	1.613	3.35	1.342	3.83	1.534	3.52	1.283
스포츠동호회참여	3.81	1.744	3.46	1.428	4.04	1.724	3.83	1.421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81	1.543	3.42	1.322	3.58	1.496	3.49	1.262
역사유적지 방문	4.03	1.646	3.65	1.426	3.99	1.620	3.90	1.286
자연관광지여행	4.88	1.648	4.06	1.556	5.23	1.551	4.93	1.434
맛집탐방	5.27	1.662	4.41	1.656	5.48	1.468	4.90	1.574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3.84	1.640	3.73	1.231	4.19	1.633	3.78	1.211
박물관 관람	3.68	1.557	3.70	1.162	4.17	1.663	3.88	1.195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3.87	1.673	3.65	1.275	4.18	1.750	3.56	1.346
연극공연 관람	4.19	1.653	3.66	1.406	4.76	1.632	3.77	1.438
전통예술공연관람	3.83	1.607	3.70	1.288	3.98	1.617	3.70	1.302
영화관람	5.07	1.444	4.39	1.304	5.74	1.387	4.80	1.476
대중공연	4.52	1.681	3.80	1.419	5.17	1.437	3.86	1.521
스포츠 경기 관람	4.25	1.630	3.75	1.264	4.63	1.792	3.75	1.495
지역축제관람	4.34	1.442	3.97	1.241	4.56	1.516	4.30	1.252
문화관련창작참여	3.76	1.478	3.58	1.169	3.74	1.586	3.69	1.234
스포츠동호회참여	3.95	1.519	3.78	1.193	4.07	1.744	3.97	1.431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67	1.529	3.73	1.250	3.78	1.589	3.68	1.267
역사유적지 방문	3.62	1.517	3.66	1.215	4.03	1.620	4.11	1.351
자연관광지여행	4.37	1.554	3.99	1.292	5.35	1.310	4.85	1.443
맛집탐방	4.70	1.740	4.23	1.462	5.54	1.306	4.88	1.473

<표 VI-90>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적 방향*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37	14.3	24	9.3	65	19.1	22	6.5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20	7.8	22	8.5	33	9.7	27	7.9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28	10.9	26	10.1	25	7.3	52	15.2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30	11.6	41	15.9	34	10.0	44	12.9
청년문화공간마련	72	27.9	53	20.5	83	24.3	56	16.4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20	7.8	26	10.1	21	6.2	27	7.9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13	5.0	18	7.0	28	8.2	43	12.6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34	13.2	44	17.1	49	14.4	64	18.8
기타	1	.4	1	.4	1	.3	335	98.2
무응답	3	1.2	3	1.2	2	.6	6	1.8
합계	258	100.0	258	100.0	341	100.0	341	100.0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60	21.8	20	7.3	12	9.5	12	9.5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18	6.5	16	5.8	7	5.6	6	4.8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33	12.0	28	10.2	14	11.1	16	12.7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31	11.3	36	13.1	12	9.5	20	15.9
청년문화공간마련	49	17.8	48	17.5	45	35.7	18	14.3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14	5.1	34	12.4	5	4.0	13	10.3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33	12.0	33	12.0	8	6.3	12	9.5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37	13.5	52	18.9	22	17.5	27	21.4
기타			7	2.5	1	.8		
무응답			1	.4			2	1.6
합계	275	100.0	275	100.0	126	100.0	126	100.0

<표 VI-91> 집 소유에 대한 생각*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 명의의 집(자기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5.38	1.574	5.12	1.657	5.12	1.555	5.42	1.561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16	1.523	3.21	1.491	3.45	1.378	3.53	1.751
앞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95	1.748	4.14	1.660	4.29	1.427	4.31	1.732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10	1.907	3.85	1.830	3.98	1.493	4.00	1.837

<표 VI-92>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71	1.249	4.08	1.537	5.77	1.258	4.54	1.523
적절한주거비	5.89	1.123	4.02	1.383	6.03	1.118	4.32	1.370
주변생활시설	5.73	1.164	3.90	1.425	5.69	1.238	4.34	1.339
주변상업시설	5.65	1.163	4.01	1.427	5.84	1.154	4.69	1.351
치안과 안전	5.91	1.248	4.19	1.343	6.06	1.161	4.88	1.404
실내거주환경	5.78	1.196	4.28	1.381	5.89	1.119	4.66	1.266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72	1.223	4.10	1.510	5.77	1.158	4.84	1.407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41	1.311	4.02	1.402	5.87	1.157	4.47	1.548
적절한주거비	5.40	1.273	4.02	1.261	5.98	1.081	4.46	1.440
주변생활시설	5.26	1.336	4.09	1.268	5.87	1.173	4.14	1.506
주변상업시설	5.28	1.315	4.23	1.269	5.81	1.150	4.29	1.518
치안과 안전	5.34	1.351	4.23	1.257	6.11	1.140	4.79	1.450
실내거주환경	5.24	1.285	4.29	1.177	5.97	1.027	4.69	1.405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33	1.338	4.10	1.374	5.90	1.120	4.72	1.638

<표 VI-93> 현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소유	110	42.6	142	41.6	143	52.0	54	42.9
자기소유	47	18.2	50	14.7	47	17.1	30	23.8
전세	43	16.7	46	13.5	32	11.6	17	13.5
월세	43	16.7	75	22.0	39	14.2	15	11.9
기숙사(사택포함)	10	3.9	22	6.5	9	3.3	8	6.3
기타	4	1.6	6	1.8	5	1.8	2	1.6
무응답	1	.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94> 월평균 부담하는 주거비용*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95	36.8	111	32.6	96	34.9	44	34.9
10만원 미만	16	6.2	25	7.3	21	7.6	11	8.7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48	18.6	40	11.7	43	15.6	23	18.3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41	15.9	45	13.2	50	18.2	13	10.3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36	14.0	86	25.2	43	15.6	23	18.3
50만원이상 70만원미만	16	6.2	20	5.9	18	6.5	4	3.2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3	1.2	12	3.5	3	1.1	3	2.4
100만원이상	1	.4	1	.3	1	.4	5	4.0
무응답	2	.8	1	.3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95>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99	38.4	71	27.5	156	45.7	72	21.1	139	50.5	51	18.5	46	36.5	42	33.3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	42	16.3	61	23.6	47	13.8	89	26.1	25	9.1	61	22.2	16	12.7	28	22.2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29	11.2	37	14.3	40	11.7	54	15.8	35	12.7	64	23.3	24	19.0	17	13.5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기회 확대	86	33.3	82	31.8	94	27.6	118	34.6	73	26.5	81	29.5	40	31.7	34	27.0
기타	1	.4			4	1.2			2	.7	12	4.4				
무응답	1	.4	7	2.7			8	2.3	1	.4	6	2.2			5	4.0
합계	258	100	258	100	341	100	341	100	275	100	275	100	126	100	126	100

<표 VI-96>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주지역병·의원한의원	167	64.7	268	78.6	192	69.8	88	69.8
보건소, 보건지소	9	3.5	11	3.2	11	4.0	2	1.6
타지역병·의원, 한의원	40	15.5	24	7.0	49	17.8	22	17.5
약국	24	9.3	23	6.7	17	6.2	10	7.9
의료기관 미이용	7	2.7	9	2.6	4	1.5	1	.8
기타	7	2.7	4	1.2	1	.4	3	2.4
무응답	4	1.6	2	.6	1	.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97>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및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66	1.259	4.14	1.359	5.50	1.243	4.48	1.247
적절한의료비	5.65	1.226	4.15	1.181	5.52	1.276	4.34	1.158
의료진의 능력	5.90	1.185	4.06	1.152	5.89	1.270	4.08	1.224
첨단의료장비보유	5.47	1.311	3.93	1.203	5.33	1.425	4.01	1.220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54	1.246	4.21	1.249	5.62	1.320	4.25	1.267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48	1.263	3.99	1.128	5.33	1.323	4.13	1.183
의료시설의 안전성	5.89	1.168	4.11	1.170	5.84	1.256	4.28	1.126
의료시설의 청결성	5.91	1.222	4.11	1.164	5.97	1.216	4.23	1.171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30	1.256	4.05	1.276	5.90	1.123	4.22	1.301
적절한의료비	5.14	1.257	3.92	1.160	5.77	1.174	4.43	1.187
의료진의 능력	5.61	1.337	3.78	1.336	6.02	1.258	3.90	1.376
첨단의료장비보유	5.37	1.372	3.70	1.325	5.75	1.245	3.86	1.485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39	1.289	4.04	1.270	5.74	1.284	4.30	1.431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25	1.324	3.93	1.344	5.62	1.225	4.07	1.369
의료시설의 안전성	5.61	1.311	3.84	1.354	6.03	1.173	4.14	1.376
의료시설의 청결성	5.63	1.299	4.07	1.457	6.13	1.091	4.22	1.348

<표 VI-98>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3	1.884	4.50	1.825	4.56	1.531	4.98	1.757
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4	1.826	4.37	1.886	4.44	1.557	5.03	1.780
나는 여건이 된다면 다자녀를 키우고 싶다	3.92	1.844	3.93	1.973	3.94	1.764	4.40	2.012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3.61	1.776	3.47	1.835	3.54	1.637	3.18	1.613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3.48	1.361	3.65	1.432	3.42	1.216	3.67	1.584
전라남도의 결혼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19	1.207	3.38	1.312	3.37	1.131	3.45	1.440
전라남도의 출산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24	1.162	3.43	1.307	3.53	1.253	3.56	1.467
결혼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27	1.638	4.46	1.651	4.48	1.481	4.63	1.647
출산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29	1.614	4.39	1.612	4.41	1.497	4.50	1.599

<표 VI-99> 주된 수입원*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소득 (아르바이트포함)	179	69.4	234	68.6	172	62.5	88	69.8
부모지원(용돈)	37	14.3	71	20.8	50	18.2	24	19.0
남편 등 가족의 지원 (부모제외)	19	7.4	17	5.0	27	9.8	7	5.6
사업소득	20	7.8	16	4.7	19	6.9	6	4.8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2	.6	2	.7	1	.8
금융소득(부동산 소득포함)	1	.4			4	1.5		
기타	2	.8						
무응답			1	.3	1	.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00> 현재의 소득 만족도, 월평균 개인지출액 및 희망소득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	3.74	1.282	4.08	1.274	3.84	1.181	4.10	1.179
월평균 개인지출액 (단위:만원)	101.65	81.427	103.06	85.065	96.18	78.139	102.63	63.047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단위:만원)	312.06	279.030	323.78	191.370	297.62	188.210	348.50	295.835

<표 VI-101> 지출순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140	54.3	47	18.2	28	10.9	184	54.0	72	21.1	52	15.2
교육비	8	3.1	21	8.1	6	2.3	20	5.9	22	6.5	17	5.0
주류비	8	3.1	17	6.6	9	3.5	12	3.5	20	5.9	15	4.4
의복비	3	1.2	27	10.5	20	7.8	15	4.4	34	10.0	28	8.2
담배, 기호등 기호식품소비	3	1.2	12	4.7	20	7.8	4	1.2	15	4.4	27	7.9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6	2.3	5	1.9	8	3.1	2	.6	3	.9	5	1.5
교통비	15	5.8	37	14.3	30	11.6	14	4.1	32	9.4	32	9.4
이·미용비			1	.4	5	1.9	1	.3	4	1.2	9	2.6
주거비	27	10.5	20	7.8	6	2.3	42	12.3	21	6.2	18	5.3
쇼핑	18	7.0	21	8.1	46	17.8	14	4.1	30	8.8	42	12.3
보건의료비	2	.8	2	.8	3	1.2	3	.9	5	1.5	4	1.2
부채상환비	6	2.3	5	1.9	3	1.2	8	2.3	16	4.7	5	1.5
통신비	7	2.7	12	4.7	27	10.5	9	2.6	25	7.3	23	6.7
문화/여가활동비	11	4.3	29	11.2	25	9.7	7	2.1	37	10.9	44	12.9
기타 잡비	4	1.6	2	.8	20	7.8	6	1.8	5	1.5	16	4.7
무응답					2	.8					4	1.2
합계	258	100.0	258	100.0	258	100.0	341	100.0	341	100.0	341	100.0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137	49.8	55	20.0	40	14.5	68	54.0	23	18.3	14	11.1
교육비	15	5.5	15	5.5	5	1.8	4	3.2	12	9.5	1	.8
주류비	8	2.9	20	7.3	12	4.4	5	4.0	9	7.1	11	8.7
의복비	14	5.1	23	8.4	20	7.3	3	2.4	14	11.1	13	10.3
담배, 기호등 기호식품소비	5	1.8	18	6.5	24	8.7	7	5.6	5	4.0	9	7.1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7	2.5			2	1.6	1	.8
교통비	11	4.0	30	10.9	37	13.5	6	4.8	13	10.3	16	12.7
이·미용비	1	.4	9	3.3	9	3.3	1	.8	1	.8	1	.8
주거비	17	6.2	19	6.9	14	5.1	10	7.9	7	5.6	7	5.6
쇼핑	14	5.1	23	8.4	33	12.0	8	6.3	16	12.7	8	6.3
보건의료비	3	1.1	5	1.8	2	.7	1	.8	2	1.6	3	2.4
부채상환비	25	9.1	5	1.8	3	1.1	5	4.0			3	2.4
통신비	6	2.2	27	9.8	40	14.5	1	.8	9	7.1	14	11.1
문화/여가활동비	13	4.7	17	6.2	15	5.5	3	2.4	13	10.3	15	11.9
기타 잡비	6	2.2	9	3.3	13	4.7	4	3.2			9	7.1
무응답					1	.4					1	.8
합계	275	100.0	275	100.0	275	100.0	126	100.0	126	100.0	126	100.0

<표 VI-102> 부채여부*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72	66.7	227	66.6	173	62.9	83	65.9
있음	80	31.0	110	32.3	102	37.1	42	33.3
무응답	6	2.3	4	1.2			1	0.8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03> 주된 부채 항목*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21	26.3	12	22.2	28	25.5	4	6.9	25	24.5	10	14.1	10	23.8	4	16.0
제2, 3금융권대출 (저축은행대부업체)	9	11.3	3	5.6	6	5.5	5	8.6	7	6.9	6	8.5	2	4.8	2	8.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5	31.3	5	9.3	28	25.5	4	6.9	19	18.6	3	4.2	9	21.4	2	8.0
약관대출 (보험증권)	2	2.5	1	1.9	8	7.3	9	15.5	13	12.7	8	11.3	14	33.3	3	12.0
부동산(담보대출)	14	17.5	10	18.5	18	16.4	8	13.8	20	19.6	5	7.0	1	2.4	1	4.0
마이너스통장	4	5.0	4	7.4	7	6.4	13	22.4	11	10.8	13	18.3	5	11.9	7	28.0
부모 및 지인	1	1.3	15	27.8	14	12.7	12	20.7	5	4.9	24	33.8	1	2.4	5	20.0
기타	4	5.0	4	7.4	1	.9	3	5.2	2	2.0	2	2.8	.0	1	4.0	
합계	80	100	54	100	110	100	58	100	102	100	71	100	42	100	25	100

<표 VI-104> 주된 부채 사유*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자금대출	25	29.4	28	26.9	25	23.8	12	27.3
부동산관련대출	29	34.1	47	45.2	33	31.4	21	47.7
창업자금 (취업준비금 포함)	10	11.8	4	3.8	10	9.5		
생활비	11	12.9	13	12.5	20	19.0	7	15.9
의료비	1	1.2	1	1.0	7	6.7	2	4.5
부모님 경제력 약화	2	2.4	3	2.9	5	4.8	2	4.5
고가제품구매 (자동차, 명품 등)	5	5.9	5	4.8	5	4.8		
기타	2	2.4	3	2.9				
Total	85	100.0	104	100.0	105	100.0	44	100.0

<표 VI-105>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권역

(단위: 만원, 년)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100	50000	3572.71	6904.083	100	30000	3317.61	4376.453
부채상환계획	1	30	7.14	7.130	1	30	5.24	5.433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100	50000	3271.41	5640.627	20	20000	5368.00	5637.986
부채상환계획	1	20	5.23	3.848	1	30	7.45	7.599

<표 VI-106> 전남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 (학자금포함)	122	47.3	31	12.0	157	46.0	54	15.8	123	44.7	45	16.4	53	42.1	25	19.8
청년대상저금리대출 출상품개발	60	23.3	93	36.0	87	25.5	115	33.7	66	24.0	88	32.0	31	24.6	38	30.2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24	9.3	55	21.3	46	13.5	83	24.3	37	13.5	48	17.5	16	12.7	21	16.7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0	7.8	43	16.7	24	7.0	59	17.3	26	9.5	62	22.5	17	13.5	28	22.2
기타	1	.4	2	.8	3	.9	1	.3	2	.7	6	2.2	117	92.9	112	88.9
무응답	31	12.0	34	13.2	24	7.0	29	8.5	21	7.6	26	9.5	9	7.1	14	11.1
합계	258	100	258	100	341	100	341	100	275	100	275	100	126	100	126	100

<표 VI-107>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2.27	1.796	1.88	1.542	2.00	1.385	2.44	1.782

<표 VI-108> 전남 청년관련 사업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와 정지원	2.59	1.733	2.31	1.601	4.65	1.581	2.67	1.898	2.25	1.690	4.83	1.544
전남형청년인턴제	2.55	1.586	2.29	1.515	4.68	1.542	2.49	1.777	2.07	1.548	4.86	1.552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43	1.552	2.16	1.463	4.60	1.560	2.19	1.586	1.95	1.419	4.52	1.526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42	1.557	2.15	1.417	4.55	1.610	2.32	1.635	1.99	1.481	4.56	1.497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49	1.612	2.27	1.539	4.62	1.550	2.44	1.796	2.20	1.641	4.85	1.489
에너지신산업SW융합클러스터조성	2.40	1.523	2.17	1.445	4.45	1.416	2.12	1.573	2.02	1.470	4.57	1.494
청년햇플레이트조성	2.60	1.620	2.32	1.552	4.66	1.607	2.32	1.679	2.10	1.570	4.65	1.524
청년관광기획자양성	2.41	1.564	2.19	1.489	4.50	1.567	2.11	1.532	2.00	1.471	4.53	1.531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39	1.583	2.11	1.450	4.43	1.573	2.19	1.550	1.93	1.411	4.43	1.516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76	1.860	2.18	1.544	4.54	1.612	2.19	1.610	1.98	1.449	4.50	1.549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62	1.808	2.20	1.542	4.73	1.608	2.31	1.754	2.02	1.512	4.76	1.539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3.10	1.929	2.36	1.659	4.82	1.597	2.84	2.065	2.20	1.669	4.92	1.562
구분	서남권						중남부권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와 정지원	2.52	1.645	2.20	1.522	4.54	1.432	2.56	1.582	2.03	1.296	4.86	1.667
전남형청년인턴제	2.55	1.682	2.19	1.486	4.60	1.469	2.67	1.629	2.11	1.364	4.90	1.668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30	1.633	2.07	1.452	4.42	1.393	2.58	1.675	2.03	1.296	4.80	1.664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37	1.691	2.04	1.480	4.49	1.508	2.48	1.614	2.09	1.414	4.73	1.672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43	1.645	2.22	1.515	4.49	1.534	2.56	1.592	2.21	1.433	4.89	1.561
에너지신산업SW융합클러스터조성	2.26	1.581	2.12	1.491	4.23	1.385	2.34	1.449	2.06	1.322	4.60	1.586
청년햇플레이트조성	2.51	1.660	2.25	1.554	4.45	1.462	2.53	1.672	2.17	1.539	4.68	1.547
청년관광기획자양성	2.26	1.609	2.12	1.531	4.26	1.523	2.38	1.594	2.09	1.409	4.68	1.588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27	1.568	2.22	1.563	4.22	1.481	2.42	1.525	2.10	1.353	4.52	1.452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91	1.979	2.34	1.735	4.63	1.524	2.69	1.813	2.12	1.468	4.75	1.72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81	2.030	2.38	1.776	4.56	1.566	2.93	1.993	2.06	1.376	5.10	1.687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2.87	1.932	2.38	1.743	4.77	1.673	2.78	1.863	2.13	1.459	4.98	1.668

<표 VI-109>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보취득의 용이성	4.86	1.420	5.03	1.451	4.64	1.448	5.15	1.420
신청방법의 용이성	4.75	1.433	4.97	1.418	4.74	1.462	5.11	1.427
지원자격조건	4.85	1.430	4.97	1.431	4.80	1.515	5.30	1.368
주변의지원사례	4.71	1.418	4.89	1.419	4.73	1.473	5.05	1.307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	4.90	1.344	5.17	1.340	4.79	1.446	5.29	1.373
지원혜택의 정도	5.16	1.408	5.44	1.401	5.04	1.492	5.61	1.263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정도	4.97	1.404	5.30	1.441	5.01	1.485	5.21	1.439

<표 VI-110>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2.52	1.389	2.32	1.497	2.50	1.279	2.54	1.299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47	1.471	2.19	1.539	2.65	1.456	2.29	1.390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69	1.396	2.59	1.576	2.69	1.408	2.61	1.425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2.45	1.410	2.14	1.461	2.50	1.407	2.26	1.361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26	1.640	3.23	1.644	3.06	1.387	3.47	1.74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2.97	1.519	2.93	1.494	2.82	1.431	3.13	1.591
나는 전라남도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7	1.902	4.47	1.887	4.47	1.706	4.46	2.002
나는 전라남도 청년단체(청년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41	1.477	2.10	1.516	2.39	1.496	2.16	1.394
나는 향후 전라남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3.09	1.673	2.79	1.738	2.88	1.640	3.02	1.743

<표 VI-111>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11	4.3	24	7.0	18	6.5	14	11.1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111	43.0	157	46.0	100	36.4	49	38.9
보통이다	55	21.3	78	22.9	65	23.6	30	23.8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57	22.1	69	20.2	70	25.5	28	22.2
반드시 떠날 것이다	22	8.5	12	3.5	21	7.6	5	4.0
무응답	2	.8	1	.3	1	.4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12>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의 일자리 만족	72	27.9	78	22.9	73	26.5	25	19.8
현재의 자녀교육환경만족	4	1.6	12	3.5	8	2.9	5	4.0
현재 문화여가생활 만족	9	3.5	22	6.5	16	5.8	4	3.2
현재 주거환경 만족	95	36.8	131	38.4	87	31.6	57	45.2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3	1.2	1	.3	1	.4	2	1.6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5	1.9	7	2.1	3	1.1	1	.8
기타	34	13.2	43	12.6	35	12.7	12	9.5
무응답	36	14.0	47	13.8	52	18.9	20	15.9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13>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나은 일자리	96	37.2	133	39.0	107	38.9	35	27.8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	34	13.2	36	10.6	25	9.1	22	17.5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56	21.7	58	17.0	44	16.0	28	22.2
더 나은 주거환경	21	8.1	47	13.8	15	5.5	22	17.5
더 나은 의료혜택	14	5.4	2	.6	9	3.3	1	.8
더 나은 복지혜택	8	3.1	9	2.6	22	8.0	2	1.6
기타			8	2.3	10	3.6	5	4.0
무응답	29	11.2	48	14.1	43	15.6	11	8.7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14>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11	43.0	128	37.5	94	34.2	45	35.7
없다	138	53.5	204	59.8	177	64.4	77	61.1
무응답	9	3.5	9	2.6	4	1.5	4	3.2
합계	258	100.0	341	100.0	275	100.0	126	100.0

<표 VI-115> 이주계획 시기*권역

구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상 이주 시기 (몇년 이내)	4.62	3.967	4.91	3.395	4.00	3.097	6.18	4.058

제3절 성별 분석

<표 VI-116> 전남 거주 시작 연령*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3세	391	74.90	329	68.97
4~7세	10	1.92	18	3.77
8~11세	16	3.07	22	4.61
12~15세	12	2.30	13	2.73
16~19세	12	2.30	8	1.68
20~23세	38	7.28	25	5.24
24~27세	16	3.07	30	6.29
28~31세	16	3.07	16	3.35
32~36세	11	2.11	16	3.35
무응답	0	0	0	0
합계	522	100.0	477	100.0

<표 VI-116> 전남 거주 시작 계기*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생	372	71.3	314	65.7
취업(발령)	75	14.4	55	11.5
창업	5	1.0	3	.6
진학	34	6.5	36	7.5
결혼	1	.2	37	7.7
부모이사	34	6.5	30	6.3
기타	1	.2	3	0.6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17> 전남을 떠났던 연령*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3	6.52	0	0
4-7세	3	6.52	4	3.85
8-11세	5	10.87	5	4.81
12-15세	7	15.22	3	2.88
16-19세	8	17.39	5	4.81
20-23세	39	84.78	49	47.12
24-27세	9	19.57	5	4.81
28-31세	0	0.00	2	1.92
32-35세	1	2.17	1	0.96
36-39세	1	2.17	0	0
합계	46	100	104	100

<표 VI-118> 재거주연령*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3세	-	-	-	-
4-7세	-	-	-	-
8-11세	-	-	1	1.41
12-15세	4	5.41	-	-
16-19세	5	6.76	1	1.41
20-23세	13	17.57	12	16.90
24-27세	17	22.97	25	35.21
28-31세	20	27.03	18	25.35
32-35세	14	18.92	9	12.68
36-39세	1	1.35	5	7.04
합계	74	100.0	71	100.0

<표 VI-119> 계속거주 이유 및 재거주 이유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발령)	68	50.7	44	37.9
창업	12	9.0	2	1.7
진학	33	24.6	29	25.0
결혼	16	11.9	33	28.4
부모이사	4	3.0	8	6.9
기타	1	0.7	0	0
합계	134	100.0	116	100.0

<표 VI-120> 전반적 삶의 만족도*성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성별	전체	성별
성별	4.63	4.61	1.181	1.211
		4.64		1.149

<표 VI-121>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성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남성	5.65	1.255
	여성	5.65	1.244
	합계	5.65	1.249
경제	남성	5.28	1.223
	여성	5.27	1.255
	합계	5.54	1.251
문화/여가	남성	5.51	1.227
	여성	5.56	1.209
	합계	5.53	1.218
복지	남성	5.49	1.247
	여성	5.53	1.219
	합계	5.51	1.233
교육	남성	5.51	1.307
	여성	5.58	1.187
	합계	5.28	1.238

<표 VI-122> 삶의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성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남성	4.53	1.426
	여성	4.30	1.415
	합계	4.42	1.425
교육	남성	4.29	1.236
	여성	4.31	1.229
	합계	4.3	1.232
복지	남성	4.22	1.432
	여성	4.10	1.411
	합계	4.19	1.274
문화/여가	남성	4.22	1.291
	여성	4.16	1.257
	합계	4.16	1.423
경제	남성	4.10	1.370
	여성	4.14	1.314
	합계	4.12	1.343

<표 VI-124>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성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4.49	1.282
	여성	4.41	1.297
	합계	4.45	1.289

<표 VI-125> 경제활동 상태*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생	127	24.3	99	20.7
취업준비중	54	10.3	54	11.3
창업준비중	14	2.7	8	1.7
취업상태	250	47.9	235	49.2
창업상태	49	9.4	18	3.8
실업상태	2	.4	8	1.7
무직	7	1.3	41	8.6
기타	16	3.1	9	1.9
무응답	3	.6	6	1.3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26> 취업/창업 상태의 직장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태	4.64	1.272	3.92	1.311
창업상태	4.88	1.201	4.25	.500
취/창업상태	4.76	1.263	4.08	1.218

<표 VI-127>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근로복지여건	5.68	1.199	2	5.87	1.154	2
근로수준	5.55	1.234	3	5.76	1.167	3
임금수준	5.79	1.223	1	5.94	1.184	1
(재)취업창업정보	4.95	1.379	5	5.00	1.335	5
(재)취업창업교육	4.90	1.382	6	4.97	1.348	6
(재)취업창업기회	5.02	1.392	4	5.09	1.393	4

<표 VI-128>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근로복지여건	4.27	1.252	1	4.01	1.318	1
근로수준	4.22	1.303	2	3.96	1.305	2
임금수준	4.14	1.365	3	3.90	1.286	3
(재)취업창업정보	3.93	1.196	4	3.71	1.129	4
(재)취업창업교육	3.88	1.228	6	3.69	1.129	5
(재)취업창업기회	3.89	1.275	5	3.68	1.149	6

<표 VI-129>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3.44	1.303	3.33	1.340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 쉽다	3.42	1.317	3.24	1.356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3.26	1.278	3.10	1.333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3.58	1.265	3.29	1.295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3.48	1.300	3.29	1.373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02	1.536	4.30	1.434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3.42	1.320	3.33	1.358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다	2.96	1.361	2.84	1.37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2.91	1.502	2.87	1.56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33	1.425	3.25	1.461

<표 VI-130>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분위기 좋은 일자리	95	18.2	73	15.3
퇴근이 빠른 일자리	49	9.4	54	11.3
급여가 높은 일자리	96	18.4	109	22.8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58	11.1	44	9.2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7	1.3	5	1.0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102	19.5	102	21.3
안정적 신분보장 일자리	110	21.1	84	17.6
기타	3	.6	6	1.3
무응답	2	.4	1	.2
Total	522	100.0	478	100.0

<표 VI-131>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요건*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공	112	21.5	109	22.8
학벌	103	19.7	70	14.6
어학점수	16	3.1	15	3.1
수상경력	8	1.5	9	1.9
자격증	66	12.6	69	14.4
인성	119	22.8	97	20.3
외모	9	1.7	4	.8
인턴등 사회경험	68	13.0	80	16.7
가족배경	10	1.9	5	1.0
기타	9	1.7	19	4.0
무응답	2	.4	1	.2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32>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98	18.8	45	8.6	82	17.2	28	5.9
부모 또는 지인	83	15.9	109	20.9	74	15.5	83	17.4
신문,TV등 언론매체	66	12.6	65	12.5	57	11.9	56	11.7
취업알선기관	75	14.4	77	14.8	90	18.8	87	18.2
인터넷	144	27.6	105	20.1	124	25.9	118	24.7
취업박람회	18	3.4	31	5.9	10	2.1	25	5.2
학원	1	.2	8	1.5	3	.6	3	.6
현장실습/인턴십	13	2.5	31	5.9	17	3.6	22	4.6
헤드헌터	1	.2	4	.8	2	.4	1	.2
자재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20	3.8	37	7.1	18	3.8	40	8.4
기타	1	.2	2	.4			1	.2
무응답	2	.4	8	1.5	1	.2	14	2.9
Total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33> 중소기업 취업의향*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322	61.7	300	62.8
아니오	197	37.7	176	36.8
무응답	3	.6	2	.4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34>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20	10.15	12	6.82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18	9.14	30	17.05
고용 불안정	60	30.46	55	31.25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11	5.58	12	6.82
낮은 급여 수준	45	22.84	38	21.59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려움	3	1.52	3	1.70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음	26	13.20	16	9.09
기타	14	7.11	10	5.68
합계	197	100	176	100

<표 VI-135>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212	40.6	68	13.0	164	34.3	72	15.1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포함 맞춤형 인력양성	117	22.4	108	20.7	138	28.9	103	21.5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	46	8.8	68	13.0	50	10.5	88	18.4
귀농, 귀촌, 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37	7.1	73	14.0	33	6.9	44	9.2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확대	38	7.3	66	12.6	28	5.9	71	14.9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27	5.2	59	11.3	20	4.2	47	9.8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34	6.5	61	11.7	39	8.2	41	8.6
기타	4	.8	6	1.1	3	.6	2	.4
무응답	7	1.3	13	2.5	3	.6	10	2.1
합계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36> 자녀유무*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424	81.2	366	76.6
1명	42	8.0	47	9.8
2명	44	8.4	46	9.6
3명이상	9	1.7	17	3.6
무응답	3	.6	2	.4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37> 자녀의 취학상태*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정돌봄	20	15.50	21	13.73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32	24.81	42	27.45
유치원	32	24.81	30	19.61
초등학교	30	23.26	34	22.22
중학교	9	6.98	12	7.84
고등학교	2	1.55	9	5.88
기타	4	3.10	5	3.27
합계	129	100.00	153	100.00

<표 VI-138>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순위
교육시설	5.49	1.262	3	5.49	1.262	3
교육비	5.31	1.301	4	5.45	1.241	5
교육의질	5.53	1.333	2	5.78	1.249	1
교육관련정보	5.27	1.362	5	5.49	1.250	3
교육기회와 접근성	5.55	1.292	1	5.71	1.307	2

<표 VI-139> 전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순위
교육시설	4.09	1.186	1	3.96	1.084	2
교육비	4.09	1.213	1	4.02	1.197	1
교육의질	4.01	1.152	3	3.81	1.125	3
교육관련정보	3.89	1.179	4	3.76	1.138	4
교육기회와 접근성	3.87	1.276	5	3.71	1.220	5

<표 VI-140>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충분하다	4.15	1.243	4.06	1.120
전라남도는 교육시설(유치원 이상)이 충분하다	4.11	1.255	3.97	1.126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4.01	1.234	3.84	1.217
전라남도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42	1.265	4.50	1.274
전라남도의 교육비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4.17	1.235	4.18	1.227
전라남도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78	1.138	3.68	1.174
전라남도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78	1.151	3.73	1.122
나는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4.52	1.479	4.79	1.504

<표 VI-141>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육·교육기관	102	19.5	59	11.3	106	22.2	57	11.9
학부모 혹은 지인	113	21.6	144	27.6	120	25.1	118	24.7
신문, TV 등 언론매체	108	20.7	112	21.5	64	13.4	90	18.8
인터넷(포털, SNS 등)	162	31.0	131	25.1	156	32.6	117	24.5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19	3.6	20	3.8	12	2.5	27	5.6
학원	2	.4	16	3.1	7	1.5	20	4.2
지자체 및 공공기관(교육청 등)	12	2.3	27	5.2	12	2.5	37	7.7
기타	1	.2	4	.8	1	.2	7	1.5
무응답	3	.6	9	1.7			5	1.0
합계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42> 문화/여가활동 빈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일	18	3.4	18	3.8
일주일에 2-3번	129	24.7	101	21.1
한달에 2-3번	210	40.2	195	40.8
한달에 1번	110	21.1	98	20.5
1년에 2-3번	42	8.0	50	10.5
기타	12	2.3	16	3.3
무응답	1	.2	-	-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43>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화/여가활동 본인지출비용(만원)	22.91	31.272	20.10	27.087
문화/여가활동 가족지출비용(만원)	45.86	56.746	49.41	81.299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율(%)	18.24	18.004	18.48	19.290

<표 VI-144>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시간의 여유	5.64	1.275	5.74	1.237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	5.13	1.336	5.47	1.291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5.29	1.244	5.53	1.269
문화콘텐츠의 수준	5.08	1.318	5.33	1.261
정보이용 가능성	4.84	1.326	5.05	1.256

<표 VI-145>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3.89	1.474	3.76	1.499
나는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	4.60	1.396	4.51	1.384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시설이 많다	3.59	1.301	3.36	1.277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다	3.46	1.296	3.17	1.231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 수준은 높다	3.48	1.286	3.28	1.247
전라남도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	3.50	1.250	3.30	1.325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	3.39	1.330	3.14	1.390
전라남도 여행지는 주말여행지로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4.13	1.433	4.22	1.441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	3.60	1.269	3.42	1.284
나는 나의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3.92	1.373	3.70	1.379

<표 VI-146>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3.81	1.622	3.62	1.258	4.42	1.654	3.57	1.336
박물관관람	3.65	1.558	3.63	1.207	4.24	1.604	3.50	1.242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3.69	1.627	3.45	1.306	4.50	1.682	3.47	1.388
연극공연 관람	4.09	1.714	3.44	1.353	5.08	1.577	3.53	1.457
전통예술공연관람	3.59	1.623	3.57	1.270	4.04	1.620	3.55	1.331
영화관람	5.40	1.444	4.66	1.506	5.68	1.401	4.62	1.573
대중공연	4.72	1.610	3.65	1.442	5.24	1.515	3.69	1.516
스포츠 경기 관람	4.84	1.643	3.88	1.512	4.27	1.700	3.59	1.447
지역축제관람	4.42	1.512	4.04	1.360	4.48	1.529	4.02	1.355
문화관련창작참여	3.69	1.539	3.58	1.259	3.92	1.543	3.44	1.268
스포츠동호회참여	4.35	1.701	3.97	1.431	3.53	1.545	3.49	1.265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70	1.560	3.62	1.285	3.68	1.499	3.50	1.272
역사유적지 방문	3.86	1.553	3.84	1.317	3.95	1.663	3.75	1.325
자연관광지여행	4.75	1.629	4.46	1.453	5.10	1.531	4.42	1.538
맛집탐방	5.05	1.619	4.59	1.575	5.40	1.588	4.58	1.583

<표 VI-147>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적 방향*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96	18.4	43	8.2	78	16.3	35	7.3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43	8.2	36	6.9	35	7.3	35	7.3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57	10.9	65	12.5	43	9.0	57	11.9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58	11.1	82	15.7	49	10.3	59	12.3
청년문화공간마련	126	24.1	87	16.7	123	25.7	88	18.4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20	3.8	46	8.8	40	8.4	54	11.3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40	7.7	63	12.1	42	8.8	43	9.0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75	14.4	89	17.0	67	14.0	98	20.5
기타	3	.6	2	.4			6	1.3
무응답	4	.8	9	1.7	1	.2	3	.6
합계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48> 집 소유에 대한 생각*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 명의의 집(자기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5.31	1.568	5.13	1.630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40	1.591	3.19	1.409
앞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32	1.639	3.97	1.615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3	1.815	4.01	1.711

<표 VI-149>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60	1.229	4.32	1.462	5.74	1.305	4.22	1.570
적절한주거비	5.79	1.153	4.17	1.378	5.84	1.223	4.19	1.345
주변생활시설	5.50	1.271	4.21	1.343	5.71	1.234	4.05	1.403
주변상업시설	5.57	1.210	4.43	1.356	5.71	1.232	4.24	1.432
치안과 안전	5.66	1.276	4.60	1.395	6.01	1.241	4.42	1.385
실내거주환경	5.58	1.252	4.50	1.318	5.82	1.147	4.43	1.288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57	1.222	4.47	1.500	5.74	1.250	4.40	1.494

<표 VI-150> 현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소유	236	45.2	213	44.6
자기소유	83	15.9	91	19.0
전세	70	13.4	68	14.2
월세	95	18.2	77	16.1
기숙사(사택포함)	31	5.9	18	3.8
기타	6	1.1	11	2.3
무응답	1	.2	-	-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51> 월평균 부담하는 주거비용*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180	34.5	166	34.7
10만원 미만	49	9.4	24	5.0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71	13.6	83	17.4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77	14.8	72	15.1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105	20.1	83	17.4
50만원이상 70만원미만	26	5.0	32	6.7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8	1.5	13	2.7
100만원이상	4	.8	4	.8
무응답	2	.4	1	.2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52>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234	44.8	120	23.0	206	43.1	116	24.3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도 마련	51	9.8	138	26.4	79	16.5	101	21.1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68	13.0	93	17.8	60	12.6	79	16.5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기회 확대	163	31.2	154	29.5	130	27.2	161	33.7
기타	4	.8	7	1.3	3	.6	5	1.0
무응답	2	.4	10	1.9			16	3.3
합계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53>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주지역병·의원한의원	365	69.9	350	73.2
보건소, 보건지소	23	4.4	10	2.1
타지역병·의원, 한의원	70	13.4	65	13.6
약국	39	7.5	35	7.3
의료기관 미이용	12	2.3	9	1.9
기타	9	1.7	6	1.3
Total	4	.8	3	0.6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54>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및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48	1.252	4.22	1.287	5.60	1.244	4.26	1.319
적절한의료비	5.39	1.302	4.16	1.195	5.57	1.215	4.21	1.167
의료진의 능력	5.69	1.314	4.00	1.238	5.99	1.207	3.94	1.290
첨단의료장비보유	5.26	1.399	3.97	1.284	5.61	1.304	3.80	1.283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44	1.349	4.27	1.267	5.67	1.214	4.10	1.303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30	1.309	4.07	1.237	5.48	1.284	3.99	1.245
의료시설의 안전성	5.66	1.314	4.15	1.258	5.99	1.143	4.05	1.233
의료시설의 청결성	5.73	1.287	4.24	1.270	6.04	1.157	4.05	1.279

<표 VI-155>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9	1.700	4.31	1.794
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70	1.698	4.21	1.838
나는 여건이 된다면 다자녀를 키우고 싶다	4.27	1.812	3.68	1.932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3.30	1.717	3.69	1.747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3.68	1.355	3.40	1.394
전라남도의 결혼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49	1.228	3.17	1.269
전라남도의 출산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53	1.230	3.32	1.329
결혼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40	1.579	4.49	1.630
출산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40	1.531	4.37	1.632

<표 VI-156> 주된 수입원*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소득 (아르바이트포함)	377	72.2	296	61.9
부모지원(용돈)	87	16.7	95	19.9
남편 등 가족의 지원 (부모제외)	6	1.1	64	13.4
사업소득	45	8.6	16	3.3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1	.2	3	.6
금융소득(부동산 임대 소득포함)	-	-	1	.2
기타	4	.8	3	.6
무응답	2	.4	-	-
합계	522	100.0	478	100.0

<표 VI-157> 현재의 소득 만족도, 월평균 개인지출액 및 희망소득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	4.02	1.273	3.82	1.210
월평균 개인지출액 (단위:만원)	99.66	79.231	101.87	80.145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단위:만원)	332.05	256.882	299.78	197.970

<표 VI-158> 지출순위*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279	53.4	101	19.3	71	13.6	250	52.3	96	20.1	63	13.2
교육비	23	4.4	39	7.5	16	3.1	24	5.0	31	6.5	13	2.7
주류비	24	4.6	48	9.2	28	5.4	9	1.9	18	3.8	19	4.0
의복비	14	2.7	38	7.3	41	7.9	21	4.4	60	12.6	40	8.4
담배, 기호등 기호식품소비	17	3.3	35	6.7	52	10.0	2	.4	15	3.1	28	5.9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4	.8	7	1.3	9	1.7	4	.8	3	.6	12	2.5
교통비	25	4.8	58	11.1	69	13.2	21	4.4	54	11.3	46	9.6
이·미용비	1	.2	3	.6	5	1.0	2	.4	12	2.5	19	4.0
주거비	46	8.8	34	6.5	27	5.2	50	10.5	33	6.9	18	3.8
쇼핑	19	3.6	38	7.3	52	10.0	35	7.3	52	10.9	77	16.1
보건의료비	4	.8	3	.6	6	1.1	5	1.0	11	2.3	6	1.3
부채상환비	26	5.0	15	2.9	7	1.3	18	3.8	11	2.3	7	1.5
통신비	15	2.9	39	7.5	52	10.0	8	1.7	34	7.1	52	10.9
문화/여가활동 비	17	3.3	56	10.7	50	9.6	17	3.6	40	8.4	49	10.3
기타 잡비	8	1.5	8	1.5	33	6.3	12	2.5	8	1.7	25	5.2
무응답	-	-	-	-	4	.8	-	-	-	-	4	.8
합계	522	100.0	522	100.0	522	100.0	478	100.0	478	100.0	478	100.0

<표 VI-159> 부채여부*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음	340	65	315	65.90
있음	176	34	158	33.05
무응답	6	1	5	1.05
합계	522	100	478	100.00

<표 VI-160> 주된 부채 항목*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52	29.5	13	11.1	32	20.3	17	18.7
제2, 3금융권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15	8.5	12	10.3	9	5.7	4	4.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47	26.7	6	5.1	34	21.5	8	8.8
약관대출 (보험증권)	7	4.0	10	8.5	16	10.1	11	12.1
부동산(담보대출)	31	17.6	16	13.7	35	22.2	8	8.8
마이뉴스통장	10	5.7	20	17.1	13	8.2	17	18.7
부모 및 지인	9	5.1	35	29.9	16	10.1	21	23.1
기타	5	2.8	5	4.3	3	1.9	5	5.5
합계	176	100.0	117	100.0	158	100.0	91	100.0

<표 VI-161> 주된 부채 사유*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자금대출	51	29.0	39	24.7
부동산관련대출	73	41.5	57	36.1
창업자금 (취업준비금 포함)	15	8.5	9	5.7
생활비	24	13.6	27	17.1
의료비	1	.6	1	.6
부모님 경제력 악화	5	2.8	9	5.7
고가제품구매 (자동차, 명품 등)	7	4.0	8	5.1
기타	-	-	8	5.1
Total	176	100.0	158	100.0

<표 VI-162>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성별

구분	남성				여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20	50000	4074.57	6572.552	100	30000	3107.08
부채상환계획	1	30	5.99	5.507	1	30	6.01	6.272

(단위: 만원, 년)

<표 VI-163> 전남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성별

구분	남성				여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 (학자금포함)	234	44.8	81	15.5	221	46.2	74	15.5
청년대상저금리대출 상품개발	144	27.6	166	31.8	100	20.9	168	35.1
금융(재무)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65	12.5	120	23.0	58	12.1	87	18.2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41	7.9	108	20.7	46	9.6	84	17.6
기타	4	.8	3	.6	2	.4	6	1.3
무응답	34	6.5	44	8.4	51	10.7	59	12.3
합계	522	100.0	522	100.0	478	100.00	478	100.00

<표 VI-164>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2.13	1.611	2.03	1.618

<표 VI-165> 전남 청년관련 사업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지원	2.55	1.758	2.24	1.557	4.72	1.588	2.64	1.740	2.20	1.597	4.70	1.495
전남청년인턴제	2.52	1.687	2.21	1.488	4.73	1.586	2.58	1.681	2.12	1.514	4.77	1.500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39	1.671	2.09	1.447	4.54	1.583	2.26	1.529	2.00	1.401	4.56	1.450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35	1.625	2.09	1.450	4.52	1.610	2.41	1.629	2.02	1.462	4.61	1.48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2.47	1.699	2.29	1.591	4.67	1.570	2.46	1.665	2.14	1.508	4.73	1.492
에너지신산업SW융 합클러스터조성	2.29	1.565	2.15	1.486	4.45	1.533	2.22	1.533	2.02	1.410	4.45	1.384
청년햇플라이스조성	2.49	1.698	2.28	1.615	4.56	1.602	2.45	1.618	2.13	1.489	4.65	1.454
청년관광기획자양성	2.24	1.525	2.16	1.535	4.39	1.602	2.29	1.623	2.02	1.425	4.56	1.486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27	1.564	2.11	1.465	4.33	1.607	2.31	1.559	2.04	1.453	4.44	1.407
여성농어업인행복파 우체 지원	2.37	1.673	2.13	1.525	4.41	1.651	2.85	1.957	2.16	1.606	4.76	1.48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42	1.740	2.20	1.608	4.62	1.658	2.81	2.022	2.14	1.561	4.87	1.502
청년희망다담돌봄장 개설운영	2.75	1.891	2.28	1.671	4.78	1.670	3.08	2.040	2.28	1.655	4.95	1.550

<표 VI-166>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보취득의 용이성	4.91	1.420	4.88	1.478
신청방법의 용이성	4.86	1.431	4.87	1.451
지원자격조건	4.91	1.448	4.96	1.459
주변의지원사례	4.85	1.441	4.78	1.404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	4.99	1.398	5.03	1.373
지원혜택의 정도	5.25	1.430	5.31	1.419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정도	5.09	1.453	5.17	1.445

<표 VI-167>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2.43	1.379	2.47	1.399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40	1.489	2.40	1.49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65	1.437	2.64	1.497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2.34	1.420	2.33	1.437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19	1.549	3.25	1.639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2.89	1.447	2.97	1.549
나는 전라남도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7	1.889	4.47	1.831
나는 전라남도 청년단체(청년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30	1.511	2.23	1.467
나는 향후 전라남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2.92	1.681	2.92	1.716

<표 VI-168>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44	8.4	23	4.8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227	43.5	190	39.7
보통이다	111	21.3	117	24.5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101	19.3	123	25.7
반드시 떠날 것이다	35	6.7	25	5.2
무응답	4	0.8	0	0
합계	522	100.0	478	100.00

<표 VI-169>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의 일자리 만족	153	29.3	95	19.9
현재의 자녀교육환경만족	11	2.1	18	3.8
현재 문화여가생활 만족	29	5.6	22	4.6
현재 주거환경 만족	184	35.2	186	38.9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3	.6	4	.8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7	1.3	9	1.9
기타	64	12.3	60	12.6
무응답	71	13.6	84	17.6
합계	522	100.0	478	100.00

<표 VI-170>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나은 일자리	200	38.3	171	35.8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	56	10.7	61	12.8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82	15.7	104	21.8
더 나은 주거환경	58	11.1	47	9.8
더 나은 의료혜택	5	1.0	7	1.5
더 나은 복지혜택	26	5.0	21	4.4
기타	22	4.2	9	1.9
무응답	73	14.0	58	12.1
합계	522	100.0	478	100.00

<표 VI-171>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성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90	36.4	188	39.3
없다	318	60.9	278	58.2
무응답	14	2.7	12	2.5
합계	522	100.0	478	100.00

<표 VI-172> 이주계획 시기*성별

구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상 이주 시기 (몇년 이내)	4.61	3.243	4.87	3.969

제4절 연령별 분석

<표 VI-173> 전남 거주 시작 연령*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0~3세	84	77.78	176	70.97	142	71.72	148	72.55	170	70.25
4~7세	6.0	5.56	12.0	4.84	5.0	2.53	4.0	1.96	1.0	0.41
8~11세	5.0	4.63	10.0	4.03	11.0	5.56	8.0	3.92	4.0	1.65
12~15세	3.0	2.78	9.0	3.63	4.0	2.02	4.0	1.96	5.0	2.07
16~19세	9.0	8.33	5.0	2.02	2.0	1.01	4.0	1.96	1.0	0.41
20~23세	-	0.00	29.0	11.69	15.0	7.58	13.0	6.37	7.0	2.89
24~27세	-	0.00	-	0.00	13.0	6.57	8.0	3.92	18.0	7.44
28~31세	-	0.00	-	0.00	6.0	3.03	9.0	4.41	15.0	6.20
32~36세	-	0.00	-	0.00	-	0.00	5.0	2.45	21.0	8.68
무응답	1	0.93	-	0.00	-	0.00	-	0.00	-	0.00
합계	108	100	248	100	198	100	204	100	242	100

<표 VI-174> 전남 거주 시작 계기*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출생	86	79.6	169	68.1	134	67.7	137	67.2	160	66.1
취업 (발령)	4	3.7	20	8.1	25	12.6	35	17.2	46	19.0
창업	-	-	-	-	1	.5	4	2.0	3	1.2
진학	8	7.4	31	12.5	16	8.1	10	4.9	5	2.1
결혼	-	-	2	.8	4	2.0	8	3.9	24	9.9
부모이사	9	8.3	24	9.7	18	9.1	9	4.4	-	-
기타	1	.9	2	.8	-	-	1	.5	4	1.7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75> 전남을 떠났던 연령*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1-3세	-	-	-	-	1	3.23	1	2.38	1	2
4-7세	-	-	1	4	1	3.23	2	4.76	3	6
8-11세	-	-	1	4	4	12.90	2	4.76	3	6
12-15세	-	-	3	12	3	9.68	1	2.38	3	6
16-19세	2	100.0	5.0	20	5.0	16.13	1.0	2.38	2.0	4
20-23세	-	-	15	60	16	51.61	29	69.05	27	54
24-27세	-	-	-	-	1	3.23	5	11.90	7	14
28-31세	-	-	-	-	-	-	1	2.38	1	2
32-35세	-	-	-	-	-	-	-	-	2	4
36-39세	-	-	-	-	-	-	-	-	1	2
합계	2	100	25	100	31	100	42	100	50	100

<표 VI-176> 재거주연령*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1-3세	-	-	-	-	-	-	-	-	-	-
4-7세	-	-	-	-	-	-	-	-	-	-
8-11세	-	-	-	-	-	-	-	-	1	2.04
12-15세	-	-	1	4.35	2	6.67	-	-	1	2.04
16-19세	1	100.0	2	8.70	2	6.67	2	4.76	-	-
20-23세	-	-	10	43.48	11	36.67	2	4.76	2	4.08
24-27세	-	-	10	43.48	14	46.67	9	21.43	9	18.37
28-31세	-	-	-	-	1	3.33	21	50.00	15	30.61
32-35세	-	-	-	-	-	-	8	19.05	16	32.65
36-39세	-	-	-	-	-	-	-	-	5	10.20
합계	1	100	23	100	30	100	42	100	49	100

<표 VI-177> 계속거주 이유 및 재거주 이유*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취업(발령)	1	10	12	32.43	29	59.18	30	48.39	41	44.57
창업			3	8.11	2	4.08	3	4.84	5	5.43
진학	9	90	17	45.95	15	30.61	10	16.13	11	11.96
결혼			2	5.41	3	6.12	14	22.58	30	32.61
부모이사			3	8.11		0.00	4	6.45	5	5.43
기타				0.00		0.00	1	1.61		0.00
합계	10	100.0	37	100.0	49	100.0	62	100.0	92	100.0

<표 VI-178> 전반적 삶의 만족도*연령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별		
만18~19세	4.79	1.094
만20~24세	4.51	1.189
만25~29세	4.64	1.265
만30~34세	4.59	1.182
만35~39세	4.70	1.135

<표 VI-179> 삶의 질 평가시 분야별 중요도*연령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만18~19세	5.66	1.205
	만20~24세	5.70	1.251
	만25~29세	5.52	1.275
	만30~34세	5.57	1.279
	만35~39세	5.76	1.218
경제	만18~19세	5.42	1.141
	만20~24세	5.18	1.288
	만25~29세	5.22	1.305
	만30~34세	5.12	1.204
	만35~39세	5.50	1.168
문화/여가	만18~19세	5.77	1.233
	만20~24세	5.56	1.242
	만25~29세	5.64	1.255
	만30~34세	5.49	1.132
	만35~39세	5.34	1.207
복지	만18~19세	5.46	1.231
	만20~24세	5.51	1.211
	만25~29세	5.49	1.322
	만30~34세	5.40	1.215
	만35~39세	5.63	1.197
교육	만18~19세	5.62	1.155
	만20~24세	5.55	1.251
	만25~29세	5.49	1.311
	만30~34세	5.41	1.279
	만35~39세	5.66	1.215

<표 VI-180> 삶의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연령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자리	만18~19세	4.36	1.336
	만20~24세	4.11	1.465
	만25~29세	4.34	1.604
	만30~34세	4.60	1.387
	만35~39세	4.69	1.217
경제	만18~19세	4.32	1.267
	만20~24세	4.21	1.298
	만25~29세	4.31	1.289
	만30~34세	4.33	1.169
	만35~39세	4.33	1.153
문화/여가	만18~19세	4.43	1.435
	만20~24세	4.02	1.544
	만25~29세	4.13	1.547
	만30~34세	4.18	1.346
	만35~39세	4.19	1.221
복지	만18~19세	4.42	1.216
	만20~24세	4.17	1.298
	만25~29세	4.26	1.331
	만30~34세	4.04	1.253
	만35~39세	4.19	1.238
교육	만18~19세	4.24	1.373
	만20~24세	4.06	1.432
	만25~29세	4.06	1.323
	만30~34세	4.11	1.365
	만35~39세	4.19	1.234

<표 VI-181> 행복한 삶의 중요 요건*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빈도	비율(%)	중요 순위	빈도	비율(%)	중요 순위	빈도	비율(%)	중요 순위
재산,경제력	29	26.9	2	68	27.4	1	44	22.2	2
화목한 가정	31	28.7	1	54	21.8	2	62	31.3	1
자아성취	8	7.4	6	22	8.9	6	19	9.6	5
건강	11	10.2	3	30	12.1	3	28	14.1	3
직업, 직장	7	6.5	7	20	8.1	7	11	5.6	6
대인관계	11	10.2	3	25	10.1	4	10	5.1	7
꿈,목표의식	10	9.3	5	25	10.1	4	21	10.6	4
기타	1	.9	기타	3	1.2		1	.5	기타
무응답				1	.4		2	1.0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중요요건 순위	빈도	비율(%)	중요요건 순위
재산,경제력	48	23.5	2	51	21.1	2
화목한 가정	63	30.9	1	84	34.7	1
자아성취	25	12.3	4	21	8.7	4
건강	28	13.7	3	35	14.5	3
대인관계 (친구,연인 등)	15	7.4	5	19	7.9	5
대인관계	10	4.9	7	11	4.5	7
꿈,목표의식	15	7.4	5	19	7.9	5
기타				2	.8	기타
무응답						
합계	204	100.0		242	100.0	

<표 VI-182>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연령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별	만18~19세	4.68
	만20~24세	4.24
	만25~29세	4.38
	만30~34세	4.48
	만35~39세	4.60
	합계	4.45

<표 VI-183> 경제활동 상태*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학생	85	78.7	105	42.3	26	13.1	7	3.4	3	1.2
취업준비중	9	8.3	42	16.9	34	17.2	19	9.3	4	1.7
창업준비중	3	2.8	5	2.0	7	3.5	4	2.0	3	1.2
취업상태	6	5.6	77	31.0	108	54.5	131	64.2	163	67.4
창업상태			3	1.2	10	5.1	20	9.8	34	14.0
실업상태			1	.4	2	1.0	3	1.5	4	1.7
무직	3	2.8	7	2.8	6	3.0	12	5.9	20	8.3
기타	1	.9	5	2.0	2	1.0	6	2.9	11	4.5
무응답	1	.9	3	1.2	3	1.5	2	1.0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84> 취업/창업 상태의 직장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 편차								
취업상태	5.17	1.169	4.38	1.254	4.65	1.321	4.51	1.199	4.54	1.255
창업상태			4.33	1.528	4.50	1.354	4.70	1.031	4.85	1.105

<표 VI-185> 일자리 수준 평가 항목별 중요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근로복지여건	5.68	1.183	5.77	1.136	5.76	1.228	5.81	1.193	5.79	1.180
근로수준	5.59	1.275	5.69	1.142	5.61	1.234	5.74	1.181	5.59	1.241
임금수준	5.88	1.205	5.87	1.275	5.84	1.187	5.91	1.141	5.82	1.210
(재)취업창업정보	5.11	1.284	5.09	1.450	4.90	1.407	4.86	1.293	4.93	1.301
(재)취업창업교육	5.17	1.342	5.06	1.436	4.86	1.376	4.86	1.332	4.83	1.311
(재)취업창업기회	5.25	1.311	5.17	1.414	5.02	1.491	4.95	1.336	4.97	1.363

<표 VI-186> 전남 일자리 상황의 항목별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근로복지여건	4.16	.919	3.90	1.373	4.26	1.388	4.22	1.279	4.23	1.251
근로수준	4.09	1.010	3.81	1.399	4.24	1.379	4.17	1.339	4.21	1.217
임금수준	4.07	1.108	3.87	1.488	4.08	1.316	4.07	1.378	4.08	1.224
(재)취업창업정보	4.05	1.067	3.80	1.254	3.84	1.193	3.76	1.160	3.78	1.105
(재)취업창업교육	3.98	.931	3.75	1.235	3.87	1.181	3.75	1.276	3.72	1.151
(재)취업창업기회	4.03	1.086	3.77	1.288	3.77	1.230	3.73	1.253	3.76	1.164

<표 VI-187> 전남 일자리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3.66	1.153	3.35	1.283	3.46	1.423	3.25	1.378	3.36	1.284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 쉽다	3.48	1.211	3.31	1.334	3.45	1.500	3.33	1.354	3.20	1.233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3.36	1.188	3.11	1.333	3.30	1.350	3.13	1.304	3.14	1.293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3.67	1.152	3.56	1.233	3.49	1.369	3.31	1.223	3.28	1.363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3.61	1.229	3.46	1.278	3.56	1.412	3.27	1.367	3.16	1.326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5	1.488	4.38	1.540	4.22	1.511	3.96	1.457	3.89	1.409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3.62	1.228	3.54	1.319	3.47	1.399	3.24	1.318	3.13	1.330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정책을 잘 알고 있다	3.02	1.228	2.99	1.403	3.04	1.410	2.74	1.409	2.79	1.30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3.02	1.510	2.97	1.479	3.17	1.580	2.74	1.521	2.66	1.526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38	1.213	3.38	1.460	3.49	1.524	3.16	1.490	3.11	1.384

<표 VI-188>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분위기 좋은 일자리	24	22.2	49	19.8	37	18.7	31	15.2	27	11.2
퇴근이 빠른 일자리	9	8.3	31	12.5	21	10.6	21	10.3	21	8.7
급여가 높은 일자리	32	29.6	52	21.0	35	17.7	48	23.5	38	15.7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7	6.5	24	9.7	22	11.1	22	10.8	27	11.2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5	2.0					7	2.9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22	20.4	49	19.8	39	19.7	37	18.1	57	23.6
안정적 신분보장 일자리	14	13.0	37	14.9	42	21.2	41	20.1	60	24.8
기타			1	.4	2	1.0	3	1.5	3	1.2
무응답							1	.5	2	.8
Total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89>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요건*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전공	23	21.3	58	23.4	42	21.2	49	24.0	49	20.2
학벌	27	25.0	41	16.5	28	14.1	32	15.7	45	18.6
어학점수	4	3.7	9	3.6	5	2.5	8	3.9	5	2.1
수상경력	4	3.7	3	1.2	3	1.5	3	1.5	4	1.7
자격증	4	3.7	39	15.7	29	14.6	31	15.2	32	13.2
인성	23	21.3	46	18.5	51	25.8	40	19.6	56	23.1
외모	2	1.9	4	1.6	2	1.0	3	1.5	2	.8
인턴등 사회경험	19	17.6	33	13.3	31	15.7	30	14.7	35	14.5
가족배경	-	-	5	2.0	1	.5	4	2.0	5	2.1
기타	2	1.9	10	4.0	6	3.0	3	1.5	7	2.9
무응답	-	-	-	-	-	-	1	.5	2	.8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90>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42	38.9	10	9.3	70	28.2	26	10.5	27	13.6	11	5.6
부모 또는 지인	14	13.0	27	25.0	37	14.9	62	25.0	30	15.2	26	13.1
신문,TV등 언론매체	7	6.5	14	13.0	23	9.3	21	8.5	18	9.1	23	11.6
취업알선기관	7	6.5	14	13.0	30	12.1	40	16.1	51	25.8	31	15.7
인터넷	30	27.8	23	21.3	64	25.8	56	22.6	51	25.8	47	23.7
취업박람회	2	1.9	6	5.6	9	3.6	16	6.5	7	3.5	13	6.6
학원			2	1.9	3	1.2	3	1.2	1	.5	2	1.0
현장실습/인턴십	3	2.8	4	3.7	10	4.0	12	4.8	3	1.5	19	9.6
헤드헌터									1	.5	3	1.5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3	2.8	7	6.5	2	.8	1	.4	8	4.0	15	7.6
기타			1	.9			11	4.4				
무응답			1	.9					1	.5	8	4.0
Total	108	100.0	108	100.0	248	100.0	248	100.0	19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교	22	10.8	11	5.4	19	7.9	15	6.2
부모 또는 지인	23	11.3	36	17.6	53	21.9	41	16.9
신문, TV 등 언론매체	27	13.2	28	13.7	48	19.8	35	14.5
취업알선기관	42	20.6	35	17.2	35	14.5	44	18.2
인터넷	67	32.8	53	26.0	56	23.1	44	18.2
취업박람회	3	1.5	10	4.9	7	2.9	11	4.5
학원			2	1.0			2	.8
현장실습/인턴십	6	2.9	5	2.5	8	3.3	13	5.4
헤드헌터	2	1.0					1	.4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12	5.9	22	10.8	13	5.4	22	9.1
기타					1	.4	3	1.2
무응답			2	1.0	2	.8	11	4.5
Total	204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191> 중소기업 취업의향*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예	75	69.4	157	63.3	115	58.1	129	63.2	146	60.3
아니오	33	30.6	91	36.7	82	41.4	75	36.8	92	38.0
무응답					1	.5			4	1.7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92>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5	16.7	7	7.3	8	8.9	9	10.1	10	9.4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 부재	4	13.3	10	10.4	10	11.1	13	14.6	17	16.0
고용 불안정	5	16.7	25	26.0	27	30.0	31	34.8	38	35.8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3	10.0	7	7.3	5	5.6	3	3.4	5	4.7
낮은 급여 수준	6	20.0	19	19.8	25	27.8	22	24.7	20	18.9
대기업으로의 이직 어려움	6	20.0		.0	3	3.3	2	2.2	1	.9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낮음	1	3.3	18	18.8	7	7.8	5	5.6	9	8.5
기타			10	10.4	5	5.6	4	4.5	6	5.7
합계	30	100.0	96	100.0	90	100.0	89	100.0	106	100.0

<표 VI-193> 전남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순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38	35.2	16	14.8	86	34.7	33	13.3	77	38.9	27	13.6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32	29.6	23	21.3	72	29.0	45	18.1	42	21.2	50	25.3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	13	12.0	10	9.3	18	7.3	39	15.7	24	12.1	25	12.6
귀농, 귀촌, 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5	4.6	8	7.4	22	8.9	24	9.7	10	5.1	23	11.6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7	6.5	21	19.4	16	6.5	44	17.7	12	6.1	19	9.6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3	2.8	9	8.3	12	4.8	27	10.9	12	6.1	28	14.1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10	9.3	18	16.7	18	7.3	27	10.9	12	6.1	16	8.1
기타					2	.8	3	1.2	3	1.5	2	1.0
무응답			3	2.8	2	.8	6	2.4	6	3.0	8	4.0
합계	108	100.0	108	100.0	248	100.0	248	100.0	19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 유치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77	38.9	30	14.7	90	37.2	34	14.0
직업과 관련된 적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42	21.2	43	21.1	68	28.1	50	20.7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	24	12.1	38	18.6	21	8.7	44	18.2
귀농, 귀촌, 귀어 등 신규인력의 안정적 정착 지원	10	5.1	23	11.3	18	7.4	39	16.1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12	6.1	28	13.7	14	5.8	25	10.3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능력 개발	12	6.1	23	11.3	10	4.1	19	7.9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확대	12	6.1	16	7.8	18	7.4	25	10.3
기타	3	1.5			1	.4	3	1.2
무응답	6	3.0	3	1.5	2	.8	3	1.2
합계	198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194> 자녀유무*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없음	107	99.1	240	96.8	181	91.4	170	83.3	92	38.0
1명			4	1.6	7	3.5	18	8.8	60	24.8
2명			3	1.2	6	3.0	15	7.4	66	27.3
3명 이상			1	.4	3	1.5	1	.5	21	8.7
무응답	1	.9			1	.5			3	1.2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195> 자녀의 취학상태*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가정돌봄	-	-	1	9.09	7	35	14	28	19	9.45
보육시설	-	-	2	18.18	6	30	19	38	47	23.38
유치원	-	-	3	27.27	7	35	7	14	45	22.39
초등학교	-	-	4	36.36	0	0	4	8	56	27.86
중학교	-	-	0	0.00	0	0	3	6	18	8.96
고등학교	-	-	1	9.09	0	0	1	2	10	4.98
기타	-	-	0	0.00	0	0	2	4	6	2.99
합계	-	-	11	100	20	100	50	100	201	100

<표 VI-196> 거주지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의 중요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설	5.56	1.130	5.40	1.259	5.45	1.289	5.47	1.329	5.61	1.238
교육비	5.50	1.211	5.23	1.264	5.38	1.303	5.35	1.325	5.49	1.237
교육의질	5.74	1.163	5.53	1.331	5.60	1.320	5.66	1.361	5.75	1.251
교육관련정보	5.47	1.249	5.30	1.335	5.44	1.319	5.38	1.401	5.34	1.243
교육기회와 접근성	5.68	1.167	5.56	1.296	5.73	1.300	5.62	1.382	5.58	1.296

<표 VI-197> 전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교육시설	4.04	1.168	4.01	1.101	3.95	1.215	3.96	1.074	4.17	1.154
교육비	4.04	1.151	4.03	1.161	4.02	1.346	4.00	1.148	4.18	1.200
교육의질	3.84	1.069	3.94	1.172	3.84	1.211	3.85	1.089	4.04	1.130
교육관련정보	3.84	1.201	3.94	1.135	3.73	1.236	3.80	1.133	3.82	1.129
교육기회와 접근성	3.78	1.314	3.89	1.256	3.70	1.301	3.80	1.263	3.76	1.168

<표 VI-198> 전남 교육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전라남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충분하다	4.33	1.168	4.12	1.188	4.10	1.169	3.98	1.165	4.11	1.217
전라남도는 교육시설(유치원 이상)이 충분하다	4.32	1.092	4.09	1.204	4.02	1.212	3.94	1.188	3.99	1.216
전라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4.03	1.219	4.00	1.255	3.93	1.262	3.77	1.214	3.93	1.186
전라남도의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4.58	1.269	4.34	1.233	4.44	1.345	4.49	1.313	4.53	1.204
전라남도의 교육비는 타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4.48	1.219	4.10	1.231	4.24	1.322	4.16	1.200	4.06	1.164
전라남도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81	1.150	3.74	1.223	3.85	1.184	3.67	1.160	3.64	1.056
전라남도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90	1.184	3.85	1.218	3.88	1.098	3.61	1.107	3.61	1.064
나는 향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4.73	1.431	4.62	1.548	4.73	1.458	4.59	1.550	4.63	1.464

<표 VI-199> 보육 및 교육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보육·교육기관	31	28.7	10	9.3	52	21.0	22	8.9	28	14.1	23	11.6	36	17.6	26	12.7	61	25.2	35	14.5
학부모 혹은 지인	23	21.3	30	27.8	52	21.0	66	26.6	44	22.2	44	22.2	44	21.6	51	25.0	70	28.9	71	29.3
신문·TV 등 언론매체	14	13.0	23	21.3	44	17.7	48	19.4	25	12.6	48	24.2	43	21.1	45	22.1	46	19.0	38	15.7
인터넷(포털·SNS 등)	39	36.1	30	27.8	76	30.6	61	24.6	78	39.4	44	22.2	71	34.8	52	25.5	54	22.3	61	25.2
교육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4	3.7	12	4.8	14	5.6	13	6.6	10	5.1	2	1.0	10	4.9	4	1.7	9	3.7
학원			3	2.8	4	1.6	14	5.6	3	1.5	6	3.0			5	2.5	2	.8	8	3.3
지자체 및 공공기관(교육청 등)	1	.9	6	5.6	5	2.0	18	7.3	7	3.5	15	7.6	7	3.4	11	5.4	4	1.7	14	5.8
기타			2	1.9	1	.4	1	.4			3	1.5	1	.5	2	1.0			3	1.2
무응답					2	.8	4	1.6			5	2.5			2	1.0	1	.4	3	1.2
합계	108	100	108	100	248	100	248	100	198	100	198	100	204	100	204	100	242	100	242	100

<표 VI-200> 문화/여가활동 빈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매일	7	6.5	11	4.4	8	4.0	3	1.5	7	2.9
일주일에 2-3번	41	38.0	72	29.0	47	23.7	39	19.1	31	12.8
한달에 2-3번	38	35.2	107	43.1	85	42.9	87	42.6	88	36.4
한달에 1번	18	16.7	41	16.5	35	17.7	47	23.0	67	27.7
1년에 2-3번	2	1.9	10	4.0	19	9.6	21	10.3	40	16.5
기타	2	1.9	7	2.8	4	2.0	6	2.9	9	3.7
무응답							1	.5		
Total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01> 문화/여가활동 관련 비용*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문화/여가활동 본인지출비용(만원)	14.05	16.816	20.16	22.247	24.95	29.627	25.71	37.758	20.24	31.771
문화/여가활동 가족지출비용(만원)	47.45	54.620	58.05	84.033	54.61	74.541	47.19	67.788	37.06	60.874
소득대비 문화/여가활동비 지출비용(%)	32.22	28.739	22.87	18.555	18.37	17.289	13.39	13.687	11.97	12.861

<표 VI-202> 문화/여가생활 환경의 중요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시간의 여유	5.65	1.225	5.65	1.225	5.63	1.315	5.65	1.260	5.59	1.231
문화여가생활비용부담	5.51	1.211	5.51	1.211	5.32	1.363	5.16	1.304	5.23	1.274
주변문화시설과의 접근성	5.27	1.121	5.27	1.121	5.44	1.308	5.42	1.250	5.30	1.266
문화콘텐츠의 수준	5.32	1.092	5.32	1.092	5.21	1.367	5.21	1.261	5.08	1.281
정보이용 가능성	5.06	1.162	5.06	1.162	5.09	1.335	4.88	1.282	4.79	1.312

<표 VI-203> 전남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동의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개인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4.37	1.476	3.78	1.541	4.03	1.511	3.70	1.402	3.57	1.413
나는 문화/여가생활 비용이 아깝지 않다	4.63	1.364	4.79	1.444	4.63	1.418	4.50	1.359	4.29	1.306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관광시설이 많다	3.53	1.219	3.48	1.391	3.64	1.361	3.47	1.237	3.33	1.205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다	3.55	1.307	3.32	1.327	3.33	1.321	3.21	1.251	3.30	1.169
전라남도의 문화 콘텐츠 수준은 높다	3.52	1.362	3.37	1.325	3.46	1.365	3.37	1.231	3.29	1.115
전라남도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	3.61	1.439	3.32	1.341	3.48	1.336	3.41	1.258	3.33	1.140
전라남도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충분하다	3.60	1.497	3.18	1.392	3.29	1.401	3.30	1.359	3.17	1.225
전라남도 여행지는 주말여행지로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4.29	1.583	4.06	1.563	4.32	1.391	4.14	1.347	4.14	1.338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적극적이다	3.74	1.226	3.45	1.290	3.51	1.317	3.50	1.369	3.49	1.175
나는 나의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4.13	1.408	3.72	1.511	3.94	1.341	3.75	1.361	3.70	1.247

<표 VI-204> 문화/여가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선호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4.15	1.690	3.80	1.130	4.16	1.622	3.45	1.395	4.27	1.681	3.63	1.367
박물관관람	3.70	1.636	3.75	1.054	3.92	1.528	3.42	1.312	4.27	1.592	3.67	1.337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4.08	1.708	3.66	1.200	4.09	1.649	3.38	1.393	4.37	1.651	3.54	1.479
연극공연 관람	4.65	1.722	3.80	1.410	4.58	1.711	3.41	1.450	4.90	1.611	3.54	1.469
전통예술공연관람	3.63	1.599	3.58	1.218	3.67	1.680	3.41	1.374	4.12	1.753	3.59	1.313
영화관람	5.54	1.475	4.86	1.559	5.79	1.396	4.75	1.655	5.65	1.347	4.62	1.562
대중공연	5.20	1.645	3.98	1.598	5.02	1.667	3.67	1.602	5.21	1.510	3.53	1.473
스포츠 경기 관람	4.62	1.843	3.93	1.520	4.47	1.780	3.66	1.551	4.80	1.633	3.67	1.596
지역축제관람	4.50	1.632	4.12	1.343	4.39	1.668	3.91	1.456	4.57	1.464	4.01	1.477
문화관련창작참여	3.86	1.597	3.89	1.326	3.83	1.609	3.42	1.312	4.06	1.549	3.50	1.398
스포츠동호회참여	4.15	1.739	3.98	1.518	3.84	1.746	3.62	1.370	3.92	1.602	3.61	1.434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80	1.616	3.76	1.291	3.62	1.591	3.51	1.342	3.84	1.432	3.54	1.409
역사유적지 방문	3.80	1.581	3.77	1.319	3.69	1.716	3.63	1.350	3.97	1.556	3.78	1.399
자연관광지여행	4.87	1.559	4.58	1.473	4.93	1.665	4.36	1.571	4.91	1.673	4.55	1.576
맛집탐방	5.59	1.381	4.91	1.532	5.44	1.676	4.62	1.713	5.28	1.621	4.70	1.649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시회 관람	3.95	1.727	3.68	1.329	4.01	1.628	3.56	1.153				
박물관관람	3.72	1.671	3.54	1.223	3.95	1.593	3.57	1.091				
음악, 무용 발표회 관람	3.89	1.691	3.50	1.321	3.98	1.783	3.34	1.251				
연극공연 관람	4.46	1.763	3.44	1.373	4.32	1.746	3.42	1.311				
전통예술공연관람	3.70	1.586	3.65	1.320	3.85	1.521	3.61	1.222				
영화관람	5.45	1.453	4.46	1.507	5.24	1.443	4.59	1.395				
대중공연	4.94	1.485	3.75	1.448	4.62	1.566	3.58	1.290				
스포츠 경기 관람	4.54	1.660	3.80	1.432	4.49	1.607	3.74	1.355				
지역축제관람	4.45	1.418	4.03	1.324	4.39	1.440	4.14	1.167				
문화관련창작참여	3.62	1.535	3.54	1.226	3.68	1.435	3.43	1.066				
스포츠동호회참여	3.92	1.679	3.72	1.324	4.07	1.641	3.88	1.280				
문화관련동호회 참여	3.67	1.556	3.58	1.192	3.61	1.483	3.54	1.162				
역사유적지 방문	3.94	1.570	3.83	1.246	4.07	1.558	3.95	1.275				
자연관광지여행	4.81	1.556	4.29	1.427	5.01	1.494	4.50	1.401				
맛집탐방	5.08	1.613	4.40	1.517	4.90	1.576	4.47	1.416				

<표 VI-205> 전남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적 방향*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29	26.9	9	8.3	46	18.5	16	6.5	32	16.2	13	6.6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5	4.6	7	6.5	18	7.3	14	5.6	19	9.6	12	6.1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13	12.0	11	10.2	18	7.3	38	15.3	15	7.6	26	13.1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14	13.0	15	13.9	22	8.9	31	12.5	20	10.1	26	13.1
청년문화공간마련	23	21.3	18	16.7	64	25.8	55	22.2	57	28.8	37	18.7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2	1.9	7	6.5	16	6.5	28	11.3	13	6.6	20	10.1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7	6.5	20	18.5	24	9.7	21	8.5	9	4.5	21	10.6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15	13.9	20	18.5	38	15.3	40	16.1	32	16.2	39	19.7
기타			1	.9			1	.4	1	.5		
무응답					2	.8	4	1.6			4	2.0
합계	108	100.0	108	100.0	248	100.0	248	100.0	19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예술창작기금	33	16.2	15	7.4	34	14.0	25	10.3				
청년문화기획자 교육	18	8.8	19	9.3	18	7.4	19	7.9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27	13.2	21	10.3	27	11.2	26	10.7				
문화관련정보공유 활성화	21	10.3	36	17.6	30	12.4	33	13.6				
청년문화공간마련	48	23.5	34	16.7	57	23.6	31	12.8				
청년대상 문화예술강좌 개설 및 운영	14	6.9	21	10.3	15	6.2	24	9.9				
청년문화관련 모임 활동경비 지원	16	7.8	18	8.8	26	10.7	26	10.7				
청년문화축제 다양화	24	11.8	37	18.1	33	13.6	51	21.1				
기타	2	1.0	1	.5			5	2.1				
무응답	1	.5	2	1.0	2	.8	2	.8				
합계	204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206> 집 소유에 대한 생각*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내 명의의 집(자기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5.06	1.452	5.21	1.671	5.19	1.616	5.12	1.605	5.43	1.561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66	1.461	3.25	1.501	3.14	1.495	3.25	1.544	3.37	1.506
앞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18	1.546	4.24	1.727	3.87	1.684	4.10	1.568	4.31	1.578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4	1.657	3.87	1.827	4.14	1.772	4.04	1.615	3.88	1.864

<표 VI-207>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86	1.195	4.30	1.505	5.77	1.235	4.10	1.618	5.68	1.265	4.15	1.611
적절한주거비	5.82	1.057	4.43	1.217	5.90	1.175	4.05	1.360	5.86	1.201	4.05	1.529
주변생활시설	5.61	1.229	4.24	1.393	5.68	1.297	4.02	1.431	5.59	1.268	4.06	1.387
주변상업시설	5.76	1.252	4.40	1.434	5.72	1.213	4.23	1.492	5.58	1.252	4.31	1.376
치안과 안전	5.89	1.285	4.69	1.432	5.79	1.287	4.33	1.438	5.81	1.238	4.53	1.479
실내거주환경	5.72	1.101	4.69	1.205	5.72	1.223	4.42	1.375	5.68	1.195	4.28	1.383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80	1.057	4.54	1.555	5.79	1.187	4.22	1.594	5.50	1.294	4.36	1.483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 결정 항목별 중요도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편리한교통	5.50	1.334	4.39	1.460	5.61	1.264	4.43	1.352				
적절한주거비	5.72	1.243	4.30	1.411	5.76	1.194	4.21	1.218				
주변생활시설	5.50	1.300	4.16	1.467	5.63	1.184	4.24	1.198				
주변상업시설	5.57	1.236	4.42	1.420	5.59	1.182	4.38	1.270				
치안과 안전	5.79	1.339	4.51	1.369	5.89	1.224	4.61	1.260				
실내거주환경	5.68	1.276	4.53	1.314	5.66	1.200	4.51	1.180				
학교 또는 직장과의 거리	5.63	1.247	4.56	1.425	5.59	1.297	4.56	1.419				

<표 VI-208> 현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부모소유	86	79.6	139	56.0	108	54.5	78	38.2	38	15.7
자기소유	1	.9	11	4.4	17	8.6	40	19.6	105	43.4
전세	5	4.6	24	9.7	14	7.1	38	18.6	57	23.6
월세	6	5.6	51	20.6	45	22.7	40	19.6	30	12.4
기숙사(사택포함)	8	7.4	20	8.1	11	5.6	5	2.5	5	2.1
기타	2	1.9	2	.8	3	1.5	3	1.5	7	2.9
무응답			1	.4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09> 월평균 부담하는 주거비용*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없음	77	71.3	119	48.0	78	39.4	48	23.5	24	9.9
10만원 미만	2	1.9	17	6.9	13	6.6	22	10.8	19	7.9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9	8.3	21	8.5	28	14.1	37	18.1	59	24.4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10	9.3	30	12.1	32	16.2	25	12.3	52	21.5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7	6.5	41	16.5	39	19.7	45	22.1	56	23.1
50만원이상 70만원미만	1	.9	11	4.4	5	2.5	20	9.8	21	8.7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	1.9	5	2.0	1	.5	5	2.5	8	3.3
100만원이상			3	1.2	1	.5	1	.5	3	1.2
무응답			1	.4	1	.5	1	.5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10>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52	48.1	21	19.4	97	39.1	53	21.4	89	44.9	48	24.2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 도 마련	14	13.0	28	25.9	39	15.7	71	28.6	28	14.1	46	23.2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22	20.4	22	20.4	41	16.5	39	15.7	20	10.1	35	17.7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기회 확대	20	18.5	30	27.8	67	27.0	77	31.0	60	30.3	61	30.8
기타			3	2.8	2	.8	2	.8	1	.5	3	1.5
무응답			4	3.7	2	.8	6	2.4			5	2.5
합계	108	100.0	108	100.0	248	100.0	248	100.0	19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 완화	96	47.1	48	23.5	106	43.8	66	27.3				
임차인보호제도 등 청년주거관련보호제 도 마련	28	13.7	46	22.5	21	8.7	48	19.8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23	11.3	36	17.6	22	9.1	40	16.5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기회 확대	56	27.5	71	34.8	90	37.2	76	31.4				
기타	1	.5	1	.5	3	1.2	3	1.2				
무응답			2	1.0			9	3.7				
합계	204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211>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거주지역병·의원 한의원	80	74.1	174	70.2	134	67.7	153	75.0	174	71.9
보건소,보건지소	8	7.4	7	2.8	6	3.0	4	2.0	8	3.3
타지역병·의원, 한의원	8	7.4	31	12.5	27	13.6	28	13.7	41	16.9
약국	6	5.6	26	10.5	22	11.1	12	5.9	8	3.3
의료기관 미이용	4	3.7	5	2.0	4	2.0	3	1.5	5	2.1
기타	2	1.9	4	1.6	4	2.0	1	.5	4	1.7
무응답			1	.4	1	.5	3	1.5	2	.8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12> 의료시설 이용항목별 중요도 및 전남 의료시설 만족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57	1.146	4.43	1.183	5.45	1.220	4.10	1.301	5.52	1.215	4.30	1.334
적절한 의료비	5.57	1.154	4.29	1.133	5.45	1.271	4.10	1.199	5.42	1.282	4.21	1.258
의료진의 능력	5.82	1.126	4.07	1.234	5.80	1.246	4.04	1.236	5.74	1.298	3.98	1.295
첨단의료장비보유	5.43	1.298	3.94	1.220	5.41	1.325	3.89	1.252	5.42	1.278	3.98	1.277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68	1.252	4.35	1.174	5.66	1.208	4.20	1.347	5.54	1.218	4.24	1.374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29	1.216	4.24	1.123	5.61	1.236	4.08	1.254	5.37	1.216	4.08	1.200
의료시설의 안전성	5.84	1.201	4.34	1.380	5.85	1.216	4.17	1.173	5.83	1.246	4.13	1.256
의료시설의 청결성	5.78	1.256	4.36	1.254	5.90	1.220	4.21	1.231	5.87	1.263	4.13	1.31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료시설접근성	5.58	1.301	4.24	1.329	5.58	1.309	4.26	1.300				
적절한 의료비	5.59	1.262	4.20	1.203	5.42	1.290	4.20	1.105				
의료진의 능력	5.91	1.268	3.89	1.258	5.88	1.345	3.90	1.283				
첨단의료장비보유	5.46	1.446	3.83	1.333	5.43	1.439	3.83	1.318				
의료종사자의 친절함	5.45	1.362	4.15	1.168	5.48	1.382	4.09	1.293				
의료및 건강정보 제공정도	5.33	1.356	4.04	1.279	5.26	1.397	3.84	1.262				
의료시설의 안전성	5.84	1.210	4.04	1.255	5.73	1.328	3.94	1.229				
의료시설의 청결성	5.96	1.180	4.20	1.298	5.85	1.273	3.96	1.275				

<표 VI-213>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의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 편차								
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7	1.636	4.53	1.858	4.45	1.791	4.46	1.680	4.76	1.754
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9	1.664	4.32	1.920	4.37	1.761	4.45	1.711	4.80	1.733
나는 여권이 된다면 다자녀를 키우고 싶다	3.90	1.766	3.85	2.035	3.87	1.920	4.01	1.794	4.25	1.842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3.88	1.645	3.56	1.747	3.60	1.714	3.45	1.765	3.19	1.747
전라남도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3.82	1.237	3.51	1.445	3.49	1.387	3.51	1.315	3.53	1.417
전라남도의 결혼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66	1.269	3.32	1.304	3.41	1.285	3.20	1.136	3.27	1.257
전라남도의 출산 지원정책은 유용하다	3.73	1.287	3.40	1.321	3.48	1.312	3.27	1.187	3.41	1.278
결혼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56	1.462	4.63	1.630	4.66	1.622	4.31	1.569	4.11	1.599
출산 문제로 전라남도를 떠날 의향이 있다	4.49	1.457	4.60	1.602	4.45	1.639	4.36	1.549	4.08	1.549

<표 VI-214> 주된 수입원*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근로소득(아르바이트포함)	36	33.3	168	67.7	149	75.3	152	74.5	168	69.4
부모지원(용돈)	67	62.0	69	27.8	29	14.6	14	6.9	3	1.2
납편 등 가족의 지원(부모제외)	3	2.8	3	1.2	9	4.5	16	7.8	39	16.1
사업소득	-	-	5	2.0	10	5.1	18	8.8	28	11.6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	1	.9	-	-	1	.5	1	.5	1	.4
금융소득(부동산 임대 소득포함)	1	.9	1	.4	-	-	-	-	1	.4
기타	-	-	2	.8	-	-	3	1.5	-	-
무응답	-	-	-	-	-	-	-	-	2	.8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15> 현재의 소득 만족도, 월평균 개인지출액 및 희망소득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 편차								
현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	3.96	1.251	3.81	1.381	3.88	1.206	4.02	1.169	4.00	1.192
월평균 개인지출액(단위:만원)	41.94	33.145	72.29	62.654	100.43	61.972	119.28	69.834	140.08	101.463
희망하는 적정 월소득(단위:만원)	226.85	204.775	244.63	189.464	303.08	172.970	358.66	312.133	404.19	202.753

<표 VI-216> 지출순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60	55.6	23	21.3	9	8.3	143	57.7	49	19.8	23	9.3	110	55.6	34	17.2	32	16.2
교육비	6	5.6	4	3.7	2	1.9	7	2.8	11	4.4	5	2.0	4	2.0	9	4.5	5	2.5
주류비	-	-	6	5.6	3	2.8	8	3.2	17	6.9	14	5.6	3	1.5	11	5.6	9	4.5
의복비	6	5.6	19	17.6	11	10.2	9	3.6	21	8.5	26	10.5	8	4.0	22	11.1	12	6.1
기호식품 소비(담배, 커피)	1	.9	6	5.6	9	8.3	3	1.2	11	4.4	20	8.1	6	3.0	11	5.6	17	8.6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	-	1	.9	2	1.9	1	.4	-	-	6	2.4	1	.5	2	1.0	4	2.0
교통비	8	7.4	18	16.7	19	17.6	16	6.5	27	10.9	34	13.7	12	6.1	23	11.6	20	10.1
아·미용비	-	-	3	2.8	5	4.6	2	.8	6	2.4	8	3.2	-	-	2	1.0	6	3.0
주거비	4	3.7	3	2.8	2	1.9	21	8.5	12	4.8	10	4.0	20	10.1	14	7.1	7	3.5
쇼핑	7	6.5	11	10.2	19	17.6	17	6.9	29	11.7	30	12.1	13	6.6	17	8.6	29	14.6
보건의료비	-	-	1	.9	2	1.9	-	-	4	1.6	2	.8	3	1.5	3	1.5	2	1.0
부채상환비	-	-	3	2.8	-	-	1	.4	2	.8	1	.4	4	2.0	3	1.5	1	.5
통신비	3	2.8	10	9.3	9	8.3	9	3.6	22	8.9	20	8.1	3	1.5	19	9.6	18	9.1
문화/여가활동비	11	10.2	-	-	11	10.2	10	4.0	34	13.7	37	14.9	7	3.5	22	11.1	19	9.6
기타 잡비	2	1.9	-	-	5	4.6	1	.4	3	1.2	10	4.0	4	2.0	6	3.0	16	8.1
무응답	-	-	-	-	-	-	-	-	-	-	2	.8	-	-	-	-	1	.5
합계	108	100	108	100	108	100	248	100	248	100	248	100	198	100	198	100	198	1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비(외식비 포함)	99	48.5	38	18.6	37	18.1	117	48.3	53	21.9	33	13.6
교육비	4	2.0	9	4.4	5	2.5	26	10.7	37	15.3	12	5.0
주류비	6	2.9	13	6.4	9	4.4	16	6.6	19	7.9	12	5.0
의복비	9	4.4	20	9.8	19	9.3	3	1.2	16	6.6	13	5.4
기호식품 소비(담배, 커피)	4	2.0	11	5.4	18	8.8	5	2.1	11	4.5	16	6.6
종교헌금 및 각종 기부금	3	1.5	3	1.5	4	2.0	3	1.2	4	1.7	5	2.1
교통비	3	1.5	24	11.8	22	10.8	7	2.9	20	8.3	20	8.3
아·미용비	-	-	2	1.0	3	1.5	1	.4	2	.8	2	.8
주거비	33	16.2	12	5.9	8	3.9	18	7.4	26	10.7	18	7.4
쇼핑	12	5.9	21	10.3	22	10.8	5	2.1	12	5.0	29	12.0
보건의료비	3	1.5	4	2.0	1	.5	3	1.2	3	1.2	5	2.1
부채상환비	13	6.4	9	4.4	3	1.5	26	10.7	11	4.5	9	3.7
통신비	5	2.5	19	9.3	21	10.3	3	1.2	10	4.1	36	14.9
문화/여가활동비	4	2.0	16	7.8	16	7.8	2	.8	14	5.8	16	6.6
기타 잡비	6	2.9	3	1.5	15	7.4	7	2.9	4	1.7	12	5.0
무응답	-	-	-	-	1	.5	-	-	-	-	4	1.7
합계	204	100.0	204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218> 부채여부*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없음	100	92.6	194	78.2	137	69.2	116	56.9	108	44.6
있음	7	6.5	52	21.0	59	29.8	86	42.2	134	55.4
무응답	1	0.9	2	0.8	5	2.5	4	2.0		0.0
합계	108	100	248	100	198	100	204.0	100	242	100

<표 VI-219> 주된 부채 항목*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1	16.7	8	15.4	3	14.3	11	18.6	3	9.4	
제2, 3금융권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1	14.3		.0		.0	1	4.8	4	6.8	3	9.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대출 (보험증권)	5	71.4	1	16.7	29	55.8	1	4.8	24	40.7	1	3.1	
부동산(담보대출) 마이뉴스통장 부모 및 지인 기타			.0	1	16.7	2	3.8		.0	3	5.1	2	6.3
합계	7	100.0	6	100	52	100	21	100	59	100	32	1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금융권 신용대출	18	20.9	13	20.3	47	35.1	10	11.6					
제2, 3금융권 (저축은행·대부 업체) 대출	8	9.3	6	9.4	11	8.2	6	7.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약관대출 (보험·증권)	19	22.1	6	9.4	4	3.0	5	5.8					
부동산(담보대 출)	18	20.9	6	9.4	40	29.9	14	16.3					
마이뉴스통장 부모 및 지인 기타	8	9.3	8	12.5	12	9.0	22	25.6					
합계	86	100	64	100	134	100	86	100					

<표 VI-220> 주된 부채 사유*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학자금대출	6	85.7	25	48.1	24	45.3	23	26.1	12	8.8
부동산관련대출	1	14.3	8	15.4	10	18.9	32	36.4	79	57.7
창업자금			2	3.8	2	3.8	8	9.1	11	8.0
생활비			10	19.2	9	17.0	11	12.5	21	15.3
의료비				0.0	1	1.9		0.0	1	0.7
부모님 경제력 악화			2	3.8	5	9.4	5	5.7	2	1.5
고가제품구매			3	5.8	2	3.8	8	9.1	4	2.9
기타			2	3.8		0.0	1	1.1	7	5.1
Total	7	100	52	100	53	100	88	100	137	100

<표 VI-221> 부채규모 및 상환계획*연령별

(단위: 만원, 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150	2000	437.50	375.392	100	12000	1481.82	2763.07	20	10000	1698.94	2072.44
부채상환계획	1	20	6.75	7.495	1	20	4.24	4.764	1	20	4.57	4.11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규모	100	50000	4742.84	8496.493	100	30000	4407.44	4539.319				
부채상환계획	1	30	6.38	6.211	1	30	6.93	6.316				

<표 VI-222> 전남 청년 부채 관련 필요 정책*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학자금포함)	51	47.2	19	17.6	115	46.4	29	11.7	87	43.9	36	18.2
창조경제융합지역대출상환지원	25	23.1	37	34.3	60	24.2	84	33.9	52	26.3	70	35.4
금융(재)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10	9.3	22	20.4	20	8.1	54	21.8	24	12.1	40	20.2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8	7.4	15	13.9	26	10.5	48	19.4	22	11.1	35	17.7
기타					1	.4	4	1.6	1	.5	1	.5
무응답	14	13.0	15	13.9	26	10.5	29	11.7	12	6.1	16	8.1
합계	108	100.0	108	100.0	248	100.0	248	100.0	198	100.0	198	100.0
구분	만30~34세				만35~39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이자지원(학자금포함)	90	44.1	35	17.2	112	46.3	36	14.9				
창조경제융합지역대출상환지원	56	27.5	68	33.3	51	21.1	75	31.0				
금융(재)설계교육 및 컨설팅지원	26	12.7	44	21.6	43	17.8	47	19.4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지원	12	5.9	35	17.2	19	7.9	59	24.4				
기타	3	1.5	1	.5	1	.4	3	1.2				
무응답	17	8.3	21	10.3	16	6.6	22	9.1				
합계	204	100.0	204	100.0	242	100.0	242	100.0				

<표 VI-223>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 편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슬로건 인지도	1.99	1.463	1.85	1.431	2.20	1.695	2.15	1.693	2.22	1.701

<표 VI-224> 전남 청년 관련 사업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과정지원	2.56	1.715	2.30	1.566	4.79	1.466	2.56	1.780	2.36	1.765	4.49	1.602
전남형청년인턴제	2.47	1.660	2.34	1.560	4.92	1.448	2.52	1.702	2.25	1.587	4.63	1.560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38	1.581	2.14	1.443	4.69	1.424	2.30	1.583	2.10	1.517	4.40	1.514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69	1.694	2.19	1.430	4.70	1.383	2.32	1.587	2.07	1.523	4.37	1.497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61	1.750	2.38	1.610	4.97	1.519	2.59	1.791	2.38	1.714	4.66	1.506
에너지신산업SW융합플러스터 조성	2.31	1.568	2.22	1.512	4.76	1.440	2.29	1.532	2.16	1.519	4.36	1.454
청년햇플라이스 조성	2.82	1.755	2.40	1.640	5.06	1.396	2.56	1.645	2.23	1.575	4.58	1.578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2.42	1.618	2.17	1.495	4.90	1.434	2.33	1.593	2.11	1.525	4.38	1.594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46	1.710	2.22	1.567	4.81	1.375	2.40	1.548	2.09	1.513	4.29	1.504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65	1.805	2.21	1.565	4.86	1.544	2.66	1.859	2.14	1.570	4.43	1.547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73	1.868	2.19	1.572	4.67	1.571	2.56	1.808	2.06	1.507	4.59	1.593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2.76	1.834	2.27	1.568	4.94	1.497	2.85	1.947	2.27	1.644	4.69	1.584
구분	만25~29세						만30~34세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과정지원	2.90	1.860	2.42	1.584	4.88	1.472	2.62	1.728	2.19	1.580	4.70	1.620
전남형청년인턴제	2.86	1.814	2.33	1.567	4.79	1.527	2.42	1.570	2.05	1.476	4.66	1.661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45	1.660	2.12	1.418	4.62	1.478	2.29	1.603	2.00	1.427	4.50	1.662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42	1.577	2.17	1.491	4.69	1.561	2.36	1.712	1.98	1.456	4.44	1.713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59	1.725	2.31	1.546	4.84	1.523	2.29	1.633	2.13	1.555	4.50	1.656
에너지신산업SW융합플러스터 조성	2.34	1.590	2.16	1.441	4.40	1.427	2.22	1.582	1.99	1.449	4.37	1.602
청년햇플라이스 조성	2.58	1.734	2.40	1.655	4.60	1.449	2.33	1.631	2.11	1.536	4.44	1.636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2.38	1.644	2.23	1.563	4.45	1.517	2.11	1.527	2.02	1.449	4.34	1.624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36	1.627	2.23	1.509	4.46	1.476	2.14	1.484	1.97	1.396	4.27	1.648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60	1.796	2.22	1.512	4.69	1.588	2.51	1.840	2.03	1.550	4.48	1.683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43	1.820	2.29	1.644	4.82	1.569	2.67	1.996	2.08	1.547	4.75	1.693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3.17	2.042	2.41	1.730	5.02	1.657	2.91	2.004	2.28	1.722	4.93	1.669

구분	만35~39세					
	인지도		참여도		향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산학협력취업패키지과정지원	2.38	1.628	1.93	1.314	4.76	1.495
전남형청년인턴제	2.45	1.638	1.96	1.318	4.83	1.484
청년마음로프로젝트	2.27	1.601	1.94	1.324	4.61	1.476
꿈사다리공부방운영	2.27	1.597	1.95	1.364	4.68	1.512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운영	2.32	1.523	1.98	1.322	4.66	1.449
에너지신산업SW융합플러스터 조성	2.16	1.504	1.99	1.360	4.51	1.375
청년햇플라이스 조성	2.25	1.561	2.03	1.411	4.55	1.494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2.16	1.500	1.98	1.399	4.48	1.495
2017문화가있는날 청년마이크운영	2.17	1.503	1.97	1.355	4.31	1.474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2.58	1.840	2.17	1.615	4.59	1.528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2.69	1.949	2.25	1.651	4.85	1.519
청년희망디딤돌통장 개설운영	2.82	1.958	2.19	1.622	4.80	1.611

<표 VI-22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시 고려하는 항목별 중요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정보취득의 용이성	5.00	1.467	4.87	1.305	4.91	1.549	4.85	1.438	4.90	1.507
신청방법의 용이성	4.98	1.479	4.85	1.319	4.90	1.534	4.81	1.348	4.85	1.539
지원자격조건	4.99	1.489	4.93	1.374	4.80	1.584	5.04	1.372	4.93	1.469
주변의 지원사례	5.03	1.417	4.84	1.258	4.80	1.507	4.74	1.475	4.78	1.470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	5.20	1.334	5.06	1.258	4.96	1.510	4.99	1.357	4.94	1.452
지원혜택의 정도	5.37	1.451	5.33	1.334	5.24	1.454	5.27	1.448	5.22	1.466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정도	5.07	1.429	5.13	1.374	5.13	1.522	5.11	1.443	5.15	1.487

<표 VI-226>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2.55	1.382	2.48	1.453	2.53	1.365	2.35	1.364	2.38	1.365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39	1.522	2.52	1.538	2.48	1.553	2.31	1.464	2.29	1.394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81	1.487	2.80	1.479	2.78	1.565	2.37	1.336	2.54	1.429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2.43	1.408	2.45	1.508	2.43	1.479	2.20	1.365	2.19	1.348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이 청년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39	1.658	3.32	1.492	3.39	1.709	2.94	1.502	3.14	1.610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3.14	1.575	3.13	1.458	3.04	1.516	2.66	1.431	2.78	1.499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2	1.838	4.41	1.822	4.39	1.843	4.21	1.924	4.39	1.890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취업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	2.24	1.453	2.44	1.602	2.30	1.504	2.16	1.412	2.17	1.435
나는 향후 전남에서 청년취업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싶다	3.11	1.695	3.05	1.646	2.95	1.718	2.62	1.636	2.94	1.763

<표 VI-227> 전남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1	.9	10	4.0	16	8.1	13	6.4	27	11.2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37	34.3	94	37.9	82	41.4	91	44.6	113	46.7
보통이다	21	19.4	62	25.0	45	22.7	46	22.5	54	22.3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34	31.5	58	23.4	43	21.7	49	24.0	40	16.5
반드시 떠날 것이다	14	13.0	23	9.3	12	6.1	4	2.0	7	2.9
무응답	1	.9	1	.4			1	.5	1	.4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28> 전남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현재의 일자리 만족	11	10.2	41	16.5	55	27.8	69	33.8	72	29.8
현재의 자녀교육환경만족	2	1.9	1	.4	3	1.5	4	2.0	19	7.9
현재 문화여가생활 만족	9	8.3	10	4.0	12	6.1	11	5.4	9	3.7
현재 주거환경 만족	45	41.7	107	43.1	73	36.9	62	30.4	83	34.3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3	2.8	2	.8	4	2.0	2	1.0	2	.8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1	.9	8	3.2	19	9.6	31	15.2	1	.4
기타	13	12.0	33	13.3					28	11.6
무응답	24	22.2	46	18.5	32	16.2	25	12.3	28	11.6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29>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더 나은 일자리	54	50.0	116	46.8	73	36.9	68	33.3	60	24.8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	5	4.6	13	5.2	16	8.1	31	15.2	52	21.5
더 나은 문화/여가생활	25	23.1	58	23.4	44	22.2	35	17.2	24	9.9
더 나은 주거환경	5	4.6	23	9.3	25	12.6	28	13.7	24	9.9
더 나은 의료혜택	6	5.6	2	.8	1	.5	1	.5	8	3.3
더 나은 복지혜택	2	1.9	6	2.4	12	6.1	6	2.9	17	7.0
기타			8	3.2	5	2.5	11	5.4	5	2.1
무응답	11	10.2	22	8.9	22	11.1	24	11.8	52	21.5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30> 실제 전남을 떠날 계획 여부*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빈도	비율(%)								
있다	54	50.0	132	53.2	76	38.4	62	30.4	54	22.3
없다	51	47.2	111	44.8	119	60.1	140	68.6	175	72.3
무응답	3	2.8	5	2.0	3	1.5	2	1.0	13	5.4
합계	108	100.0	248	100.0	198	100.0	204	100.0	242	100.0

<표 VI-231> 이주계획 시기*연령별

구분	만18~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평균	표준편차								
예상 이주 시기 (몇년 이내)	5.09	3.673	4.49	3.982	4.72	3.901	4.57	2.831	5.17	3.080



<부 록>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Q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 1. 일자리

Q1.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학생
- ② 취업 준비 중
- ③ 창업 준비 중
- ④ 취업상태 (Q1-1번으로)
- ⑤ 창업상태 (Q1-1번으로)
- ⑥ 실업상태 (4주 내 구직활동 있음)
- ⑦ 무직 (구직활동 없음)
- ⑧ 기타()

Q1-1. (Q1에 '④취업상태, ⑤창업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취업, 창업)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함		보통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 귀하는 일자리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 항목별 현재 전남의 일자리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중요성							2. 만족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근로(복지)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근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재)취·창업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재)취·창업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재)취·창업기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전라남도에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라남도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찾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라남도는 내가 원하는 임금 조건의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라남도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전라남도는 건강 또는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복직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전라남도는 일을 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학업활동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 귀하가 일자리(직장)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 ① 분위기 좋은 일자리
- ② 퇴근이 빠른 일자리
- ③ 급여가 높은 일자리
- ④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 ⑤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 ⑥ 직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
- ⑦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일자리
- ⑧ 기타()

Q5. 귀하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가지만 선택)

- ① 전공
- ② 학벌(출신학교의 명성)
- ③ 어학점수
- ④ 수상경력
- ⑤ 자격증
- ⑥ 인성
- ⑦ 외모
- ⑧ 인턴(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
- ⑨ 가족배경
- ⑩ 기타()

Q6. 귀하가 취·창업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시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학교
- ② 부모 또는 지인
- ③ 신문, TV 등 언론매체
- ④ 취업알선기관(잡코리아, 사람인 등)
- ⑤ 인터넷(SNS, 회사 홈페이지 포함)
- ⑥ 취업박람회
- ⑦ 학원
- ⑧ 현장실습/인턴쉽
- ⑨ 헤드헌터
- ⑩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매체
- ⑪ 기타()

중점 추진사업	1.인지도							2. 참여도							3. 향후 정책의 중요도						
	전혀 모름	보 통	잘 알고 있음	전혀 참여 안함	보 통	적극 참여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 통	매우 중요함	전혀 모름	보 통	잘 알고 있음	전혀 참여 안함	보 통	적극 참여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 통	매우 중요함			
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에너지신산업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청년 관광기획자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2017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 전라남도가 제공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다음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함
1. 프로그램 관련 정보 취득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신청 방법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원 자격 조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주변의 지원 사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원혜택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참여경력 인정 및 활용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매우 동의함
1.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전남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전라남도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전라남도 청년단체(청년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향후 전라남도 청년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앞으로 전라남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IV. 향후 전남 거주의향

Q1.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전남에서 거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계속 거주할 것이다
- ② 여건만 된다면 계속 거주할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기회가 되면 떠날 것이다
- ⑤ 반드시 떠날 것이다

Q2-1. 귀하가 전남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의 일자리 만족
- ② 현재의 자녀 교육환경 만족
- ③ 현재의 문화/여가 생활 만족
- ④ 현재의 주거환경 만족
- ⑤ 현재의 의료환경 만족
- ⑥ 현재의 복지환경 만족
- ⑦ 기타()

Q2-2. 귀하가 전남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② 더 나은 자녀 교육환경을 위해
- ③ 더 나은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 ④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 ⑤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
- ⑥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 ⑦ 기타()

Q2-3. 귀하는 실제로 전남을 떠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Q2-4번으로)
- ② 아니오 (V.응답자 일반사항으로)

Q2-4. 떠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향후 ()년 이내

